

ISSN 1738-2645

인간과 문화 연구

第 34 輯

2023. 12. 31.



동의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인간과 문화 연구

제34집

2023년 12월

目 次

1. 유아교사의 조직 갈등 개념 및 특성 / 전성이·손유진 1
2. 녹색환경지원센터 이해관계자들의 정책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황희영 22
3. 유방암 생존자를 위한 모듈식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 사례연구 / 임영제·이정희 43
4. 고려시대 울산 지역의 자기 생산과 수요양상 / 박주향 68
5. 인문·사회과학 계열 대학생의 사회인식조사 - D 대학교를 중심으로 / 전윤숙·이달별·윤지영 91

【부록】

- 인문사회연구소 소개 133
- 『인간과 문화 연구』 발행 규정 136
- 기타 규정 (편집위원회, 투고, 원고, 심사, 연구윤리 등) .. 138

유아 교사의 조직 갈등 개념 및 특성*

전성이** · 손유진***

【목 차】

1. 서론
2. 연구 방법
3. 유아 교사 조직 갈등 개념과 특성
4. 논의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최근 15년간의 국내학술지, 학위논문 중 유아 교사의 조직 갈등과 관련된 19편의 문헌을 선정하였다. 해당 문헌분석을 통한 조직 갈등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알아보으로써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들이 조직 갈등을 이해하고 올바른 대처 방법으로 갈등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기관에서 조직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 알고 필요한 지원과 해결 방안 모색을 통해 교사들의 안정적인 교직 생활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러한 유아교육기관의 특성으로 인하여 유아 교사들이 겪는 조직 갈등의 경우 조직 커뮤니케이션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

*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재구성하여 수정한 것임

** 동의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

*** 동의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유아교육기관만의 특유성으로 조직효과성은 조직문화와 조직풍토의 영향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는 학부모와 유아와의 관계 외에 동료교사, 원장 등 함께 하는 조직 구성원과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조직 생활이 이루어짐을 통해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이는, 다양한 관계의 얽힘 속에서 유아 교사들이 경험하고 있는 조직 갈등에 대해 개념과 특성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개선방향과 필요성을 제시해 줌으로써 유아교육기관과 교사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문헌분석, 조직 갈등, 유아 교사, 유아교육기관

1. 서론

2020년 3월 1일 시행된 3~5세 누리과정 고시문에는 교사는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기 위해 좋은 교육 과정과 환경 및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가장 중요한 교육환경이라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김문희(2011)는 여성 위주의 조직인 유아교육기관은 다른 조직과 달리 의사소통 방식이 매우 사적이며 인간관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유아와 학부모를 일방적으로 배려해야 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권혜진, 2008). 조직의 구성원인 유아, 학부모, 동료 교사, 원장과의 공동체 관계가 강조되는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갈등은 다양할 것이다.

이러한 밀접한 유아와 교사의 관계로 인하여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는 교육기관이라는 일반적이기 않은 조직에서의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유아 교사는 조직 내에서의 다양한 갈등으로 인하여 조직에 만족하지 못하여 잦은 이직으로 인한 높은 이직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조직 갈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주임교사의 갈등관리 유형과 조직효과성과의 관계(임성진, 2012), 영아반 팀티칭 교사 간 소통과 갈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남보미, 2018), 어린이집 교사가 인식한 원장-교사 교환관계 및 원장의 갈등관리 전략과 조직효과성의 관계(오선영, 2021) 등의 대상에 따른 조직 갈등 연구, 초임교사와 경력교사의 팀티칭에서의 갈등경험 분석(임정아, 2015), 공립유치원에서 저경력교사로 살아가기(신주은, 2014) 등의 경력에 따른 조직 갈등 연구, 유아교육기관의 조직 갈등이 유아교사의 직무만족과 소진에 미치는 영향(최수량, 2020), 유아교육기관의 조직커뮤니케이션과 조직 갈등,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문지혜, 2015) 등이 변인 간 관계에 따른 조직 갈등 연구 등이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조직 갈등에 대해 연구는 대부분 갈등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의 조직 갈등은 유아 교사의 소진과 협상유형에 영향을 미치며(최수량, 2020) 조직 갈등과 갈등해결유형은 교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최수량, 신건호, 2020). 또한 유아 교사는 유아, 부모, 원장, 동료, 교사 등 다양하고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개인적·사회적 갈등을 경험한다(정혜영, 2021). 박다은, 정혜영(2020)은 고령 출산과 함께 부모의 높은 교육열은 교사가 자신의 자녀만을 대우해 주길 바라며 부모님들의 무리한 요구로 유아 교사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남긴다고 하였다. 이처럼 조직 내 갈등이 증가하면 조직몰입은 감소하고 이직 의도는 증가하게 된다(조효수, 2019).

이처럼 유아 교사들의 높은 이직율은 불안정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유아들의 질 높은 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아들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잦은 이직률의 원인인 조직 갈등에 대해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을 통한 조직 갈등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알아보으로써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들이 조직 갈등을 이해하고 올바른 대처 방법으로 갈등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헌분석을 통해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나타난 조

직 갈등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문헌분석을 통해 살펴본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조직 갈등 개념과 특성은 어떠한가?

2. 연구 방법

1) 자료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1월 2일부터 2023년 2월 5일까지였으며 분석 기간은 2023년 2월 13일부터 2023년 4월 1일까지였다.

첫째, 학술지 인용색인(KCI)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한국학술정보(KISS), 누리미디어(DBPIA)를 이용하여 문헌검색을 하였으며 검색어는 국문으로 ‘조직 갈등’, ‘교사 조직 갈등’, ‘유아 교사 조직 갈등’, ‘어린이집 조직 갈등’, ‘유치원 조직 갈등’, ‘유아교육기관 조직 갈등’으로 조합하였다. 검색된 문헌 중 최근 15년간 발행된 문헌을 선정하였으며 학문의 분야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둘째, 도출한 문헌을 엑셀로 저장하여 데이터베이스별로 자료를 처리하였으며 그 결과 국내 학술지 216편, 국내 학위논문 1119편으로 모두 1335편이 수집되었으며 이 중 학술지와 학위논문에 중복된 문헌은 학술지만을 포함하였다.

셋째, 조직 갈등, 유아 교사, 유아교육기관의 키워드로 재검색하여 총 108편의 문헌을 수집하였으며 해당 문헌의 인용(citation) 정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연구자가 분석하고자 한 것과 거리가 멀다고 판단된 조직체계, 조직모형 등에 관한 문헌 67편을 제외하여 국내 학술지 16편과 국내 학위논문 25편인 총 41편의 문헌을 선정하였다.

넷째, 선정된 총 41편의 문헌 중 교실 환경, 유아공동체, 특수학교, 유아프로그램, 예비교사, 원장, 학부모 등에 관한 문헌 22편을 제외한

후 문헌의 원본을 확보하여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문헌인지 전문가 1인과 함께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유아교육기관에서 재직 중인 유아교사의 조직 갈등과 관련된 19편의 문헌을 최종 선정하였다.

2) 연구대상

위의 자료수집 과정을 통해 추출된 대상 문헌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연도별 발행 별수는 2009년 1편, 2011년 2편, 2013년 1편, 2014년 1편, 2015년 2편, 2019년 4편, 2020년 4편, 2021년 4편의 연구 문헌이 있었다. 본 연구자는 선정된 문헌의 빈도를 알아보기 위해 임의로 5년 단위로 나누었다. 2009년-2013년까지 4편(21%), 2014-2018년까지 3편(16%), 2019-2023년까지 12편(63%)이었고 세부적으로는 2019년 4편(21.1%), 2020년 4편(21.1%), 2021년 4편(21.1%)이다. 연도별 연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 2019년 이후 유아 교사들의 조직 갈등에 관한 연구가 이전보다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단순히 조직 갈등을 일으키는 변인과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는 양적연구에서 질적연구를 통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 분석에 포함된 문헌의 연도별 현황

구분	2009-2013	2014-2018	2019-2023	계
문헌수(%)	4(21%)	3(16%)	12(63%)	19(100%)

3) 자료분석

자료 분석을 위한 준거는 최현주, 정귀임(2018)의 문헌 고찰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구성하였다. 자료 분석은 엑셀(MS-Excel)을 이용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선행된 자료수집 단계에서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보조교사, 연장반 교사 포함)로 하

었다. 유아 교사의 조직 갈등에 관한 문헌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조직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과의 관계, 영향력에 대한 양적인 연구에서 유아 교사들의 경험과 사례를 통한 질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문헌고찰을 통해 조직에서의 갈등 대상과 갈등 원인을 중심으로 조직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유아 교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직 갈등 원인을 중심으로 문헌을 분석한 결과, 유아 교사는 개인적 특성, 교사 배경 변인, 대인 간 상호관계, 갈등해결 유형, 의사소통 등의 다양한 갈등 요인과 함께 조직의 문화와 풍토에 따라 조직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유아 교사 조직 갈등의 개념과 특성

유아 교사가 조직에서 어떠한 갈등을 겪고 이러한 갈등 특성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우선 갈등과 조직 갈등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갈등의 개념

갈등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개인이나 집단(단체) 사이에서 목표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상대를 적대시하는 상태 또는 마음 속에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함께 일어나 중심을 잡지 못 잡고 괴로워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처럼 갈등은 모든 사람들이 겪는 현상이지만 갈등을 정의하는 것은 갈등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진 현재에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갈등의 학문적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갈등 현상을 바라보는 개인적 관점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매우 다양하여 보편적인 가치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의 정의는 없을 것이다. 갈등의 정의에 대해 임경미(2018)은 갈등을 바라보는 개인적 시각과 범위설정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하였으

며 주삼환(1985)은 갈등에 관한 정의는 다양하고 보편적인 가치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단 하나의 정의는 없다고 하였다. 김창걸(2001) 또한 갈등이 의도만 있는 경우, 행동으로 나타난 경우 또는 행동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갈등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갈등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고 하였다.

용어의 성격과 특성을 알기 위해 학자들이 정의한 갈등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애귀(1995)는 한 사람의 정서나 다른 사람의 동기가 다른 정서나 동기와 맞지 않았을 때 그 표현을 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라고 하였으며 이정희(2002)는 좋지 못한 관계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만족스럽지 못한 현상이라고 하였으며 박슬기(2007)는 한정적인 자원을 차지하려는 구성원들의 불일치된 관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힘이 점점 없어져 가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갈등은 서로 간의 교류에서 일방의 활동이 상대방의 활동과 조화되지 않고 지장을 주거나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 불리하다고 여겨질 때 발생하는 사건으로 적대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우호적인 관계에서도 발생 되는 일상적인 사건이라고 하였으며(Deutsch, 1973). 혼자가 아닌 둘 이상의 개인 또는 집단이 상대방 또는 집단의 행동이나 상호작용으로 인한 상대적인 손실을 느끼게 되어 대립이나 다툼이 일어나는 행동의 형태라고 하였다(Lit terer, 1974).

Thomas(1976)는 한 개인이 갖는 관심에 대해 다른 사람이 좋지 못한 영향을 주거나 그럴 것으로 느낄 때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하였으며 실체의 내부나 사람들 사이에서 모순과 의견의 불일치와 다름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적인 상태라고 하였다. 또한 Pondy(1967)는 갈등이란 갈등의 조건과 대상자의 감정 및 인지 상태, 갈등의 행동 단계로 구성되며 모든 것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위와 같이 갈등의 개념들을 통해 갈등의 의미와 성격에 대해 알 수 있다. 첫째, 갈등은 둘 이상의 대립되는 주체가 필요하며 갈등은 개인의 시각, 대상, 적용 분야에 따라 의미가 다르며 강도에 있어서도 사소한 개인 간의 의견 차이에서부터 국가 간의 전쟁에까지 사용될 만큼

넓고 복잡하다(윤우곤, 1998). 둘째, 서로 다른 주체 간의 의견의 불일치와 모순의 원인이 되는 대상이 필요하며 그 대상은 앞서 연구자들이 제시한 목표나 가치관, 서로 다른 이해관계, 한정된 자원, 상대적인 손실이라 할 수 있다. 갈등의 발생에는 원인과 조건이 수반되어야 하며 갈등 발생의 모든 요소가 단순히 존재한다고 하여 갈등이 되는 것이 아니며, 여기에 일정한 조건이 부여될 때 비로소 갈등이 발생된다(신현주, 2007). 셋째, 갈등은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갈등이란 서로 유사한 힘의 대립 상태나 그 현상 자체(Lewin, 1935; Deutsch, 1973)이며 대립이나 다툼이 일어나 갈등이 행동으로 표면화된 단계이다(Litterer, 1974). 이렇듯 갈등을 표현한 정도는 학자들마다 다를 수 있으며 갈등이 표출되지 않고 내면에 생성되었을 때, 갈등을 인지하고 불안을 느낄 때, 갈등이 행동으로 표출되었을 때 등 갈등의 표출 정도를 다르게 해석하며 갈등에는 과정이나 일련의 단계가 있다고 하였다(Pondy, 1967). 넷째, 갈등은 부정적인 현상을 가져오게 되어 갈등과정에서 좌절되기도 하고 상대방을 좌절시키기도 하면서 서로의 불만을 표현하고 다투는 상황에서 서로에게 적개심을 가지게 되기도 한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갈등은 주로 부정적인 것으로 보며 갈등은 없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갈등은 선하지 않고 악하다고 여겨왔으나 형태론적 관점에서 갈등은 조직 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며 갈등의 수용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현대에서는 갈등을 그 자체만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으며 갈등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의견과 함께 갈등을 필요한 것으로 보는 관점이 우세하다(박수연, 박정애, 2000).

2) 조직 갈등의 개념

갈등이란 한 사람의 정서나 다른 사람의 동기가 다른 정서나 동기와 맞지 않았을 때 그 표현을 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라고 하였으며(조애귀, 1995), 좋지 못한 관계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만족스럽지 못

한 현상이라고 하였다(이정희, 2002). 박슬기(2007) 역시 갈등에 대해 한정적인 자원을 차지하려는 구성원들의 불일치된 관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힘이 점점 없어져 가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또한 김창걸(2001)은 갈등이 의도만 있는 경우, 행동으로 나타난 경우 또는 행동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갈등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갈등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고 하였다.

이승희(2012)에 의하면 개인 내 갈등은 욕구불만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목표 선택의 곤란에서 야기될 수 있으며, 의사결정에 있어서 대안 선택의 어려움에서 오는 수도 있다고 하였다. 갈등은 둘 이상의 행동 주체(개인, 집단, 조직) 사이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써 표면화되는 대립적 행동뿐만 아니라 대립적 행동에 노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동 주체 간에 긴장, 불안, 적대감 등의 정서적인 면까지도 포함한다(김영훈, 2006). Dahrendorf(1958; 최수량, 2021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갈등 이론가들은 갈등에 대해 파괴적인 것으로 인식하며 갈등은 무엇보다도 인간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오해와 불신을 낳게 됨으로써 인간관계의 단절이라는 파괴적인 결과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전통적인 관점에서 갈등은 주로 부정적인 것으로 보며 갈등은 없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갈등은 선하지 않고 악하다고 여겨왔다. 하지만 박수연, 박정애(2000)의 형태론적 관점에 의하면 갈등은 조직 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며 갈등의 수용을 강조하기도 하며 현대적 관점에서는 갈등을 그 자체만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으며 갈등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의견과 함께 갈등을 필요한 것으로 보는 관점이 우세하다. 갈등의 기능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갈등의 순기능의 관점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업적 향상에 도움을 주는 건설적인 형태의 측면인 형태론적 관점에 해당하며 갈등의 역기능의 관점은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파괴적인 형태의 기능으로 전통적인 관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송재필(2006)은 갈등의 순기능적 특성에 대해 환경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는 조직, 창의성 증대, 변혁 촉진, 문제해결을 하려는 활발한 행동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송재필(2006)은 갈등의 역기능의 특성에 대해 과업지향적인 집단, 조직강조, 리더십의 독재성, 집단 간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태도 변화와 부정적인 지배적 태도의 증가, 집단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감소와 타 집단 활동의 감시가 증가됨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처럼 갈등은 그 자체만으로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 다만 그 해결 방법을 알지 못하여 적절한 조직 갈등의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Thomas는 갈등을 다른 측면의 관심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의미하는 협조성(cooperativeness)과 자신의 관심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독단성(assertiveness)로 분류하였다. 조직이란 특정의 목표(목적)를 설정 달성해 나가는 분업과 통합의 활동 체계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이다(정홍상, 2011).

조직이란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 개체, 요소를 모은 체계 있는 집단을 말하며 조직 갈등이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의 상호작용이나 활동으로 상대적 손실을 지각한 결과, 대립, 다툼, 적대감이 발생하는 행동의 한 형태이다(Litter, 1974). 장해순(2003)은 조직 갈등은 문제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표면화되어 당사자가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상황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정연홍(2004)은 조직 갈등은 하나 혹은 둘 이상의 개인이나 집단 간의 다양한 대립, 방해 행동, 투쟁 등 심리적이고 행동적인 특성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개적이나 잠재적 행동이라고 하였다.

김성필(2005)은 당사자들이 목표의 양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호작용을 할 때 나타나는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조직 갈등이란 조직 내 행동 주체 간 대립적이거나 적대적 상호작용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행위자의 내부 및 그들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긴장이며(최동희, 2011), 개인 또는 조직과 집단 사이의 가치관, 목표의 차이

그리고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며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받는 지각, 인식, 행위를 포함한 적대적 대립의 과정이다(홍규선, 2005).

3) 유아교육기관의 조직특성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는 많은 조직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조직체는 개성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같은 종류의 조직체라 할지라도 성격은 모두 다를 수 있다. 조직이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업무체계이다. 유아교육기관은 다른 학교 조직과는 다르게 규모가 작고 교사의 수가 적기 때문에 교사 1인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많고 업무분장에 어려움이 많다(권수현, 이승연, 2011).

유아교육기관은 다른 기관에 비해 조직의 구성원 수가 적으며, 공간의 크기도 작으며 소규모의 형태로 운영되어 일반적인 기관의 조직들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유아교육기관은 다른 학교 조직에 비교해 보아도 소규모이며 구성원 대부분이 여성으로 되어 있어 일반적인 학교 조직과 다른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그 속에서 해당 조직만의 조직풍토가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 조직문화는 하나의 조직이 주어진 환경에서 오랜 시간 동안 조직 자체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며, 한번 형성되면 쉽사리 변하지 않고 계속되면서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 조직효과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Schein, 2004).

유아교육기관은 다른 학교에 비해 교사, 유아, 원장, 기관장 등 구성원 간 상호작용이 역동적이며, 교육청, 학부모 등과 같은 외부 환경과의 교류를 통하여 안정과 성장이 유지된다는 나름의 조직풍토가 있다고 하였다(정언애, 2002). 대부분의 유아교육기관에서는 교사 간 갈등은 폐쇄적 교직 문화를 바탕으로 함으로써 교사 간의 관계에서 상호 간의 적당한 무관심을 특징하고 있었다.

이러한 유아교육기관의 특성으로 인하여 유아 교사들이 겪는 조직갈등의 경우 조직 커뮤니케이션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임성혜, 1997). 이를 통해 유아교육기관만의 특유성으로 조직효과는 조직문화와 조직풍토의 영향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는 학부모와 유아와의 관계 외에 동료교사, 원장 등 함께 하는 조직 구성원과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조직 생활이 이루어짐을 통해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조직 갈등 특성

조직 갈등은 개인 또는 조직과 집단 사이의 가치관, 목표의 차이 그리고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며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받는 지각, 인식, 행위를 포함한 적대적 대립의 과정이다(홍규선, 2005). 이처럼 사람이 생활하는 곳에는 갈등이 발생하며 그 사람들이 이루며 사는 조직 내에서도 어쩔 수 없이 여러 형태의 갈등이 존재하게 된다(김중운, 박성실, 2011).

보육교사들 간에 원 운영에 따른 일적, 심리적 갈등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교육 현장에서의 어린이집 교사 사이에 형성되는 인간관계에서도 많은 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었다(한명란, 2019). 유아 교사가 인간관계 측면에서 가장 많은 갈등을 느끼는 대상으로 원장, 동료 교사, 학부모, 아동 순으로 조사, 분석되었다(한명란, 2019).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조직 갈등은 교사와 원장과의 갈등은 원장이 교사의 잘못에 대해 질책을 할 때 나타나며 서로 예의를 갖추지 않고 말할 때 드러난다고 하였다(김희태, 2004). 또한 원 운영자가 교사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조태영, 2004).

조직 갈등 경험은 근무 기간, 연령, 조직구조, 직종에 따라 과중한 업무, 행동 사고의 차이, 자율적 권한의 제한, 언행과 태도의 불쾌, 역할 중복 및 마찰, 상충된 요구의 갈등 경험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갈등이 많을수록 조직몰입이 감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훈, 2006). 조직 갈등이 높고 자율성이 낮으며 동료와의 관계

가 낮을수록, 상사와의 관계가 낮을수록, 이직 의도가 높으며 동료와의 관계나 상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이직 의도는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백남숙, 2013). 윤혜영(2006)은 조직 구성원 중 최고 관리자의 행동과 운영방식의 결과로 조직 리더의 영향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였다. 이진원(2010)은 유아교육기관 안에서 교사들은 유아교육에 많은 영향력을 주는 집단임을 전제하며 교사가 조직에 대해 강한 애착과 소속감을 가지고 있어 충성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조직에 헌신하게 된다고 하였다.

송미선과 김동춘(2005)은 교사가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외부의 환경변화와 요구에 잘 적응해 나감에 따라 헌신감을 강하게 느끼며, 교사들은 소속감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조직이 구성한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 해간다고 하였다(박은주, 2010). 문헌분석을 통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조직 갈등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조직 갈등은 조직문화, 조직풍토, 조직효과는, 사회적지지, 커뮤니케이션, 직무만족, 소진, 회복탄력성의 다양한 요인과 관련되어 발생 되었다.

이 외에도 개인과 조직의 특성, 교사의 갈등 해결 유형에 따라 영향력의 차이를 보이며 유아 교사가 조직에서 경험하는 갈등 대상인 동료 교사, 학부모, 행위자, 상호관계의 대인 간의 관계로부터 발생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조직 갈등은 한 가지가 아닌 다양한 현상과 복잡하게 얽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의 다양한 조직 갈등 현상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정혜영(2021)이 복잡계 관점에서 연구한 문헌을 살펴보았다. 정혜영(2021)은 유아교육 및 보육 현장의 갈등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유아 교사들에게 반복되는 갈등 경험을 되먹임의 고리를 통해 생각지도 못하게 일어난다고 하였다.

노하정, 안은영(2019)의 직장어린이집 교사의 조직문화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는 직장어린이집 교사가 경험하는 조직문화는 회사에 소속된 어린이집 교사로서 내면적 갈등을 겪으며 보육 전문가로 성장하게 하

는 직장보육 공동체로 나타났다. 원장과 교사의 관계는 상호협동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원장은 교사들의 멘토가 되며 지지자와 지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교사와 교사의 관계에서는 원활한 관계를 맺고 상호 협력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관계 중심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

교사들은 오랜 시간을 함께 생활하면서 회로애락을 함께 하고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조직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느낀다고 하였다(노하정, 안은영 외 3, 2019). 이러한 집단문화는 직장어린이집의 많은 업무량과 일과를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 교사들은 원장과 동료와의 관계에서 상호협력적 관계를 맺고, 갈등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관계 중심의 조직문화는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을 통한 유아교육기관에서 조직 갈등 개념과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조직 갈등은 개인 또는 집단 사이에서 목표, 가치관의 차이로 발생하며 한가지 원인이 아닌 다양한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조직 갈등 또한 조직문화, 조직풍토, 교사의 개인적 특성, 배경 변인, 상호관계, 갈등해결 유형 등의 갈등 요인과 함께 대부분의 구성원이 여성이고 소규모 집단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조직으로 원장, 동료, 학부모, 유아와 다양한 관계의 얽힘 속에서 조직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유아교육기관은 구성원이 대부분 여성으로 이루어진 소규모의 집단이며 협소한 장소에서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특성을 가진 조직이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조직 갈등은 다른 조직에서와 다르게 갈등 요인만이 아닌 대인과의 상호관계에서 복잡하게 얽혀져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수와 엄지숙(2019)의 사립유치원 교사의 퇴직과 복직의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 복직한 유아 교사는 원장의 배려로 일과 양육을 함께 할 수 있었고, 변화된 유치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연수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하여 긍정적인 조직풍토와 인적 환경 또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조직 갈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에서 발생된 조직 갈등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직무만족, 직무몰입을 높이고 그로 달성된 직무성과는 조직에 스스로 헌신하게 만들며 이는 조직 갈등으로 인한 소진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이직 의도 또한 낮추는 효과가 있다(최수랑, 2020).

이렇게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조직 갈등은 여러 관계의 얽힘으로 일어나며 중앙 통제나 외부의 개입이 아닌 유아 교사와 조직 스스로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변화에 앞서 혁신을 도모함으로써 새로운 질서를 창발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정혜영, 2021). 실제 조직 갈등 경험에 근무 기간, 연령, 조직구조, 직종에 따라 과중한 업무, 행동 사고의 차이, 자율적 권한의 제한, 언행과 태도의 불쾌, 역할 중복 및 마찰, 상충된 요구의 갈등 경험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갈등이 많을수록 조직몰입이 감소된다(김영훈, 2006).

조직 갈등이 높고 자율성이 낮으며 동료와의 관계가 낮을수록, 상사와의 관계가 낮을수록, 이직 의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동료와의 관계나 상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이직 의도는 낮게 나타난다(백남숙, 2013). 이에 유아교육기관 안에서 교사들은 유아교육에 많은 영향력을 주는 집단이며 교사가 조직에 대해 강한 애착과 소속감을 가지고 있어 충성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조직에 헌신하게 되도록 조직 내 소통 문화가 중요하다. 소통과 관계 맺음이 조직 내 갈등을 낮추는 것이다. 노동시간, 월급과 같은 처우개선과 더불어 조직 내 긍정적인 문화를 향상시킨다면 교사 갈등을 낮추고 결국 조직 갈등 또한 낮추며 이는 교사의 직무만족을 높이는 것이다.

위에서 기술한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조직 갈등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유아 교사가 안정된 조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유아교육기관은 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제안과 더불어 관계지향적인 조직문화와 긍정적인 조직풍토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유아 교사는 조직에서의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과 관계와의 얽힘으로 일어남을 알고 스스로 갈등 대처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 또한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논의를 통해 나타난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유아교육기관의 그 외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갈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유아 교사의 조직 갈등 요소에 대한 연구로 유아 교사의 조직 갈등 외 학부모와의 갈등 등 갈등 요소를 확장하여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국내 논저

- 강승지, 손유진(2017). 유아 교사의 자아탄력성, 조직문화, 교직원신의 구조적 관계, 유아교육연구, 37(5), 317-337.
- 교육부, 보건복지부(2019). 2019 개정누리과정 교원 연수자료.
- 권혜진(2008). 보육교사의 정서노동과 소진-정서적 부조화의 매개 효과에 대한 탐색. 인간발달연구, 15(4), 93-113.
- 김명란(2016).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과 교사효능감이 조직현인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명(2006). 보육시설장의 직무와 교육 요구에 기초한 현직교육 내용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주, 이경화(2015). 유아 교사의 관점에서 본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과정: 근거 이론적 접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5), 237-260.
- 김영희, 안효진(2016). 유아 교사의 행복감에 대한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8(4), 235-250.
- 김정미(2017).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종희(1990). 학교조직풍토의 개념화 및 측정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28(2), 67-80.
- 마지순, 안라리, 이선애(2018). 유아 교사의 행복감과 사회적 지지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4(4), 43-62.
- 문 주(2017).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감정노동 수준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백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지혜, 김수향(2015). 유아교육기관의 조직커뮤니케이션이조직 갈등,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9(4), 179-197.
- 박다은, 정혜영(2020).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경험과 의미탐구 : Levinas의 관점을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 27(3), 23-58.
- 박성주(2021). 영유아 교사의 회복탄력성 조직 갈등 및 조직건강성이 영유아 교사의 소진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주(2010). 유아 교사가 지각한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 사회적 지지 및

조직효과성과의 관계.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은주, 문태형(2011) 유아 교사가 지각한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1(2), 75-98.

박은혜(2021). 팀티칭을 경험한 보육교사의 동료교사간 심리적 갈등과 어린이집 조직 건상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충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지원(1985). 사회적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현진(1996). 자아탄력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미선, 김동춘(2005). 유치원 교사의 갈등관리 유형과 조직효과성과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5(5), 55-74.

송재필(2006). 보육교사의 갈등대상에 따른 갈등수준 및 갈등해결방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순애(2007).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가영(2019), 유치원교사의 조직문화 인식과 갈등관리 방식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경화, 정혜영(2009). 학교조직풍토와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 수산해양교육연구, 21(1), 121-133.

이예영(2019), 보육교사의 대인간 의사소통수준과 역할갈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다운(2009). 보육시설 조직커뮤니케이션 만족과 보육교사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유아교육학논집, 13(5). 75-90.

정다운, 김정희(2011). 어린이집 원장이 지각한 조직커뮤니케이션이 조직 갈등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0(4), 235-245.

정명자(2016). 유아 교사의 인성 및 교사효능감과 행복감 간의 관계 분석.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은주(2015). 영아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혜영(2021). 유아교육 및 보육 현장의 갈등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교사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38(1), 293-322.

조효숙(2019), 보육교사의 조직내 갈등, 조직몰입, 이직의도와의 관계. 국민대학

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미미, 서영숙(2013).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동료교사와의 갈등 원인 및 대응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1), 221-239.

최수량(2020), 유아교육기관의 조직 갈등이 유아 교사의 직무만족과 소진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수량, 신진호(2020), 유아교육기관의 조직 갈등이 교사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갈등 해결유형의 조절효과. 인문사회21, 11(4), 765-780.

최수량(2021). 교사의 무례함 경험이 유아교육기관의 조직 갈등에 미치는 영향에서 TMX의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3), 21-30.

최예슬(2014), 유아 교사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이직결정 경험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나리(2020), 보육교사가 경험한 어린이집 조직문화에 대한연구:Freire의 관점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지수, 염지숙(2019). 사립유치원 교사의 퇴직과 복직 경험, 열린교육연구, 27(2), 121- 146.

한명란(2020), 보육교사들 간에 원 운영에 따른 일적, 심리적 갈등관계. 대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예빈(2023), 영·유아보조교사의 직장 내 갈등 요인과 사회적 지지가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외국 논저

Pettigrew, A. M. (1979). "On Studying Organizational Culture",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4, pp. 570-581

Robbins, S. P. (1989). *Organizational theory: The structure and design of organizations*. NJ: Prentice-Hall

Schein, E. H. (1983). "The role of the founder in creating organizational culture". *Organizational Dynamics*, 12(1), 13-28.

Smylie, M. A.(1988). "The enhancement function of staff development: organizational and psychological antecedente to individual teacher chang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5(1), 1-30.

[Abstract]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al Conflict among early Childhood Teachers*

Jeon Seong Yi* · Shon Yoo Jin**

In this study, 19 pieces of literature related to organizational conflict among early childhood teachers were selected from domestic academic journals and dissertations published in the past 15 years. By studying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al conflict through an analysis of the relevant literature, it is believed that teache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can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organizational conflict and develop effective coping strategies. Through this initiative, our aim is to promote a stable and positive teaching environment for teachers by identifying the causes of organizational conflict and implementing the necessary support and solutions. In the case of organizational conflict experienced by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it is attributed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se institutions. Due to the unique natur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s influenced by both organizational culture and organizational climat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teachers have diverse relationships with other members of the organization, including their colleagues and administrators. They also have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children. The importance lies in the fact that all organizational activities occur within it. This study aims to provide valuable insight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and teachers. By examining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al conflict experienced by early childhood teachers in various relationships, this study aims to provide insights into the direction and significance of this field.

* Dong-Eui Univers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It is a reorganization and revision of the doctoral dissertation.

* Dong-Eui Univers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fessor

Key-words : Literature analysis, Organizational conflict, Early childhood teach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논문 접수일 : 2023년 12월 10일
심사 완료일 : 2023년 12월 20일
게재 확정일 : 2023년 12월 25일

녹색환경지원센터 이해관계자들의 정책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황희영*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5. 결론 및 논의

【국문초록】

본 연구는 녹색환경지원센터 이해관계자들의 경험을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개별적인 경험 속에 공통적으로 내재된 체험의 본질구조를 통해 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장애요인의 본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녹색환경지원센터 이해관계자들의 정책경험의 구성요소로 ‘구조적 매너리즘에 빠지기’, ‘조직 자정능력의 상실’, ‘환경의 변화로부터 고립된 조직구조’, ‘구조적 제약을 받아들이며 지역 환경지킴이로 살아내기’의 4개 중심의미와 7개 하위구성요소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도출된 분석결과를 토대로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활성화 및 자립에 관한 정책

* 동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적·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녹색환경지원센터, 정책경험, 현상학적 연구 방법

1. 서론

본 연구는 녹색환경지원센터 이해관계자들의 정책경험을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개별적인 경험 속에 공통적으로 내재된 체험을 본질구조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기, 물, 토지 등의 환경자원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환경자원은 다양한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생산과정에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장실패로 점철되는 환경오염의 문제를 야기한다(이영범·지현정, 2011). 이러한 연유로 그 동안 환경 분야에 있어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다.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환경전문가, 민간단체 등과 함께 지역특성에 따른 환경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¹⁾ 녹색환경지원센터는 그 동안 다양한 행위주체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환경문제 해결의 구심체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으며, 특히 지역 중심의 기업지원사업을 통해 그동안 환경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영세업체들의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연구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센터에 대한 외부의 불신이 커져왔고, 최근 환경부 종합평가의 결과로 3개 센터가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련의 상황 속에서 녹색환경지원센터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규정되어 있다.

정책현상은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정책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 속에 공통적으로 내재된 본질구조에 주목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녹색환경지원센터 이해관계자들의 개별적인 경험 속에 공통적으로 내재된 본질구조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조망하고자 한다. 정책현상에 대한 경험은 다분히 맥락 중심적인 결과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해당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녹색환경지원센터 이해관계자들이 조직과 조직을 둘러싼 환경적 맥락 속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활용해 그들의 개별적인 경험 속에 내재된 본질구조를 조망하고, 이를 통해 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의 고착화된 문제점을 조망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으로서 현상학

20세기 후설(Husserl)에 의해 창시된 현상학(phenomenology)은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대상들(objects)에 대한 의식의 본질적 구조를 탐구하는 과학이다(Polikinghorn, 2001). 현상학에서는 의식의 경험으로 발현되는 모든 현상은 본질구조를 가지며,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들을 조명함으로써 그 본질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학문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Crotty, 2001; ; 홍현미라 외, 2010).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사람들에게 이 현상에 대한 경험의 본질과 구조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되며,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 현상을 밝히고 그 경험을 정확히 서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신경림 외, 2004). 따라서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 현상학 연구는 ‘체험’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다분히 귀납적이고 기술적인

(descriptive) 방법을 통해 현상의 의미와 구조를 밝힌다고 할 수 있다 (권향원, 2016; 김분한 외, 1999; 홍성하, 2015).

현상학에서 모든 대상은 현상으로 존재하며, 현상은 인간의 의식 속에서 출현한다(홍현미라 외, 2010). 의식으로 경험되는 현상은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현상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주어진 대로 직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조작되지 않은 인간의 경험을 연구 자료로 활용한다(심훈섭·심지현, 2018). 그러나 현상학적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경험을 단순히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주관적인 경험을 관통하는 본질을 파악하는데 분석적 초점을 둔다(남기민·방혜선, 2012; 심훈섭·심지현, 2018)²⁾.

2)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녹색환경지원센터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에 소재하고 있는 2개 녹색환경지원센터 구성원 및 ○○도 환경 관련 담당자로 제한하였으며, 이 가운데 Flick(2009)이 제시한 ‘좋은 정보제공자’의 요건에 따라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내적 통찰을 바탕으로 자신의 언어로 잘 기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력 5년 이상의 관계자 5명을 연구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8년 6월부터 동년 9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자 1인당 70분에서 90분, 평균 2회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사전에 준비한 반(半)구조화된 질문지를 토대로 진행하였으며, 빈틈 없는 상황 묘사를 위해 모든 심층면접 내용을 녹취하였다. 자료 수집은 더 이상 새로운 범주나 관련 주제가 나타나지 않는 포화수준에 이를

2) Husserl(1968)은 개별경험들로부터 체험의 본질구조를 직관해 내는 작업을 ‘형상적 환원’이라고 불렀는데, 이러한 논리적 파악이 가능한 것은 다양한 차이들 속에서 연속성을 인식하는 인간 고유의 ‘본질직관’ 능력 때문이라고 보았다.

때까지 이루어졌다(Glaser & Strauss, 1967).

3) 자료의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로부터 연구문제와 관련된 주제와 본질을 추상화 해내고 이를 관계적 구조로 제시하는 방법을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이라 한다(Braun & Clarke, 2006). 주제분석의 방법을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Colaizzi(1978), Giorgi(1970), van Kaam(1966)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기술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해 살아 있는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탐색하기에 적합한 Giorgi(1970)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자료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³⁾

1단계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자료의 총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그들의 언어로 표현되는 경험들을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2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언어로 표현된 진술 가운데 연구문제와 대응하는 의미단위로서 주제(theme)를 식별한다. 3단계에서는 연구자의 언어로 주제를 구체화하여 대상자의 경험이 대상자에게 의미하는 중심의미(focal meaning)을 규명한다. 4단계에서는 식별된 주제들의 중첩을 확인하고 주제들의 관계적 구조를 정련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5단계에서는 연구자가 현상학적 성찰을 통해 주제들을 이론적 차원의 언어로 전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5단계에서는 주제들을 관통하는 본질구조를 해명하고 기술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4) 연구 결과의 신뢰성 검증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study)는 하나의 현상 또는 대상에 대하여 여러 개인들이 갖는 개별적인 경험의 자료에 기초해 그 속에

3)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된 모든 인터뷰 자료는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었으며, 녹음된 자료는 연구진이 직접 필사하여 원자료로 활용하였다. Giorgi의 방법에 입각한 자료의 구체적인 분석과정은 문민정·장연집(2011)과 김은하 외(2012)의 논의를 참고할 것.

내재된 공통적인 특성을 발견하고 궁극적으로 현상의 본질을 분석한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목소리를 통해 현상을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현상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자신의 편견에 괄호를 치거나 선입견에 대한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본질을 꿰뚫는 직관에 의존해 대상을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연구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연구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삼각측량(triangulation)기법을 활용하였다.⁴⁾

이와 관련해 본 연구는 먼저 자료의 다원화, 연구자의 다원화, 연구 참여자를 통한 재확인 과정을 거쳤다. 먼저, 녹색환경지원센터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얻기 위해 관련 논문 및 보고서 등의 공식적인 기록물과 인터뷰 녹취록 등 자료를 다양화하여 자료의 다원화(data triangulation)를 꾀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자의 주관성에 기인하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의 다원화(investigator triangulation)를 꾀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료 수집에서부터 분석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동안 녹색환경지원센터 관련 연구를 수행중인 동료 연구자와의 상호점검을 통해 연구자의 편견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였다. 셋째, 분석결과의 재검증 차원에서 연구 참여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주제분석을 통해 도출된 개념 및 범주의 정확성 및 타당성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3. 연구 결과

1) 경험의 중심의미 및 주제 도출

4) 신뢰성 검증이란 기 수행된 연구를 다른 연구자가 다시 연구하였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연구 결과의 오류와 편견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신뢰성 검증과 관련하여 질적 연구에서는 삼각측량법이 강조된다.

Giorgi(1970)의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 자료에서 의미단위를 도출하고 중복된 내용들을 통합하고 정리하여 이를 학문적 용어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녹색환경지원센터 이해관계자가 인식하는 정책경험에 대해 4개의 중심의미(focal meaning)와 7개의 하위주제(theme)가 발견되었다. 이상의 내용은 아래의 <표 1>와 같다.

<표 1> 주제분석 결과

중심의미 (focal meaning)	하위주제(theme)
구조적 매너리즘에 빠지기	사업의 정체성과 성과평가체계의 불일치
	예산운용의 경직성
조직 자정능력의 상실	소통채널의 부재
	리더십의 부재
환경의 변화로부터 고립된 조직의 구조	특정 지역에 귀속된 센터의 정체성
	법적지위로 제한된 조직역할의 범위
구조적 제약을 받아들이며 지역 환경지킴이로 살아내기	지역 환경지킴이로서의 일의 보람

2) 구조적 매너리즘에 빠지기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에 의하면 개인의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맥락(context)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맥락은 제도적 환경(institutional setting)을 의미한다. 즉,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제도란 개인의 선호를 형성하고 행위를 제약하는 맥락으로서 기능한다(Katznelson, 1992; 하연섭, 2008).’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의 경험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구조적 제약요인

에서 비롯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최근 녹색환경지원센터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자립’ 및 ‘활성화’와 같은 이슈들을 구조적 제약이라는 맥락 속에서 재해석하며 그들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녹색환경지원센터 이해관계자들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구조적 제약들을 체험하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기 보다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현재의 상황에 순응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으로 여기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들은 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표출됨과 동시에 조직의 경계(boundary) 내에 존재하는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무기력한 한계를 확인 받게 하며, 이 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순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1) 사업의 정체성과 성과평가체계의 불일치

환경문제는 지역의 맥락적 특성을 반영하는 만큼 그 다양성의 수준을 쉽게 가늠하기 힘들며, 이슈 현저성(salience)이 높은 환경문제의 경우 대부분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의 형태로 갑작스럽게 발현되어 환경문제의 예측에 있어서도 본연적인 불확실성을 내포하게 된다. 환경문제의 특수성에 관한 이상의 논의에 비춰볼 때 문제해결의 관점에서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이슈의 현저성이 높은 현안문제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지역의 환경문제를 조망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사업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환경문제의 특수성에 관한 고려 없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성과평가체도로 인해 일종의 ‘인지부조화’를 겪으며, 인지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⁵⁾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환경전문기관

5) 최초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환경전문가, 민간단체 등과 함께 지역 특성에 따른 환경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현재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성과에 대한

으로서 ‘조직이 지향해야 하는 이상적인 사업구조’와 ‘성과평가체계와 연계되어 정형화된 현재의 사업구조’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gap)을 확인하고 인지부조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센터의 사업계획’을 바라보는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 인지 부조화의 해결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예산의 삭감 및 조직의 존폐 여부와 연계된 성과평가체계를 그들의 선호와 행위를 제약하는 제도적·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인식하며, 성과지표 달성에 초점을 둔 현재의 정형화된 사업패턴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험을 하게 된다.

“환경문제를 장기적으로 내다볼 필요도 있고, 어떤 부분은 지금 현안사안에 집중해서 해결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어쨌든 중장기 사업계획도 세우고,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적으로 예산을 활용하거나... 그런 사업들이 투트랙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 사업계획이 그렇지 못해요. 그 실적 채우는 정도의 사업으로만 루틴하게 사업계획이 짜져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사업 계획인데... 사업계획이 너무 형식적이고, 이게 사업 계획인가 싶습니다. 저희가 제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을 고민 안해요. 작년꺼를 가지고 실적만 바뀌서 약간만 수정해서... 그것부터 시작 인건데요.” [참여자 1]

“녹색환경지원센터는 20년을 했는데 문제는 시작부터 끝까지 패턴이 똑같다. 그러다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성과가 안 나오고 있다. 잘하나, 못하나,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고... 20년 동안 거기서 일하는 직원, 센터장도 열심히 하거나... 하지 않거나 크게 차이가 없다.” [참여자 4]

(2) 예산운용의 경직성

공·사부문의 많은 조직들은 사업 범주 별로 예산을 책정하고, 책정된 예산에 맞게 지출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스스로를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의 트렌트가 변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상위기관의 평가는 환경문제의 지역적 특수성에 관한 고려 없이 전국 15개소 녹색환경지원센터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많은 경우 이러한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세워 놓은 예산은 때때로 조직의 유연한 대응을 저해하는 구조적 제약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많은 조직은 자기관리 및 통제의 목적으로 예산의 통제를 받으면서도 변화하는 환경에 조응하며 융통성 있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환경문제는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기본적인 속성을 특징으로 한다. 해당 관점에서 지역의 환경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기관은 사업 예산편성과 집행의 과정에서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예산은 대부분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재원으로 마련되어 예산운영의 경직성이 높은 편이다.⁶⁾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예산운영 과정에 존재하는 여러 제약요인들을 경험하면서 환경문제의 다차원적이고 다면적인 특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제도적·구조적 제약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예산은 조직의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고, 미래의 비전과 전략에 연계되어 있다(주기완·윤성식, 2012).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 속에 예산은 단순히 ‘과거가 투영된 현재의 거울’에 불과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에는 국고와 지방보조금인데 이에 대해 사업계획을 하고 예산 분배를 할 때 환경부가 예산지침을 내려줘요. 그 지침을 임의적으로 저희가 바꿀 순 없어요. 물론 연구는 얼마, 기업지원 얼마 등 구체적으로 정해주시는 않지만... (중략)... 저희에게 예산의 여지를 주면, 올해 안산 시흥 경기도내 미세먼지 현안은 우선 현황 파악이 안되어 있으니까 조사를 다시 하자라고 해야 지역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예산계상이 될텐데... 성과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예산회계 지침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여자 1, 2]

“예산배정을 할 때 일종의 예비비도 현안사항이 생기면 써야 되는데...

6)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비는 사업비로, 국고는 사업운영비로만 사용하는 구조이며 이로 인해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예산배분의 한계가 존재한다.

불용이 되면 안되니까... 예비비를 안 잡아 놓는 것 때문에 정작 필요할 때 쓰지 못하고..." [참여자 1]

3) 조직 자정능력의 상실

자정능력(self-purification capacity)이란 수계에 유입된 오수나 오염된 공기 등을 자연의 힘으로 정화하는 능력이나 작용을 의미한다. 이 개념을 조직 분야에 적용하면 조직의 잘못을 스스로 걸러내는 능력으로 이해되어 진다. (예시) 잘못이 있다면 이를 단정 짓거나 즉각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소통과 토론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다양성을 배척하지 않으면서도 잘못은 걸러내는 자정능력, 이것이 바로 독일을 독일답게 만드는 힘이었다(김가나, 2016).

조직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직의 자정능력은 ‘소통’, ‘리더십’ 등의 다양한 기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의 공유에 기반한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토론 그리고 리더의 역량은 조직변화를 추동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해당 관점에서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조직변화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의 공유에 기반해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하고 아래로부터의 목소리가 변화의 초석이 되길 기대하였지만, 그들은 그 과정에서 공허한 메아리만이 울리는 것과 같은 무력함을 경험하게 된다.

(1) 소통채널의 부재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추진체계 상 센터 간 업무조정, 연구 성과의 효율적 관리·활용·전파 등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센터와 환경부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녹색환경지원센터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두고 있다. 사단법인으로서 법적지위를 가진 연합회는 의사결정 기관으로 ‘총회’와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모두 센터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통의 측면에서 연합회의 기능적 역할은 각 센터들의 제도개선
 관한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발굴해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상
 위기관에 전달하고 전략적인 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조직생존의 차원에서 비롯된 제도개선
 에 관한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연합회에 관철되지 않는 일련의 경험을
 하면서 ‘소통채널로서 연합회의 기능’에 대한 불신이 커져갔다.⁷⁾ 이러
 한 인식의 경험은 연합회의 ‘대표로서 범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연합회의 ‘대표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는 각 센터의 장으로
 구성된 연합회가 센터 전체 구성원의 이익을 얼마나 대변하는가에 관
 한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연합회는 각 센터의 장으로 구성된다. 주
 관기관의 교수인 센터장은 상근직 직원들에 비해 조직의 생존에 덜 민
 감하며 변화에 대한 유인이 적다. 즉, 센터장의 경우 제도개선에 따른
 실익이 상근직 직원들에 비해 크지 않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연합회 구성원의 편향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대표성 왜곡 문제를 통해 본인들의 종사상 지위가 가지는 현실적 한계
 와 더불어 압당한 조직의 자정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이에 대해 참여자
 들은 ‘기무사’, ‘하나회’ 등의 표현에 빗대 연합회에 대한 그들의 감정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며, 소통에 기반한 제도적 기제를 통해 스스로 문제
 를 바로잡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 참여자 0는 ‘연합회는
 단순 업무연락 창구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고 표현하면 소통
 채널 부재의 현실을 설명하였다.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지속적으로 갈려면 이노베이션도 하고
 자립화도 해야 하는데, 근데 학교에 소속된 교수님들이 대부분 센터장이

7) 전체 센터의 사업방향성이나 규정 및 조직운영방식 변경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경우 환경부가 개별 센터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로 환경부는 연합회라는 중간조직을 통해 전체 센터와 소통하는 구조를 취하
 고 있으며, 연합회는 이사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한다. 하지만 연합회와 이사회 모
 두 센터장으로부터 구성되어 그 동안 연합회의 대표성 문제와 의사결정권한의 독점
 으로 인한 견제수단의 부재와 같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다 보니까 교수님들은 굳이 내가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2년 뒤에 끝나는 건데 내가 활성화시켜서 자립화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좋은 의견들이 나오고 자립화 방향이 나와서 올라가면 이거에 대한 운영 지침이나 규정이나 이런 게 연합회에서 결정을 해요. 수도 없는 시간동안 그런 것들이 올라갔는데 거기서 다 거부시켰어요.” [참여자 2]

“연합회 구조가 잘못되어 있어요. 사실은 연합회가 사실은 본부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다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센터들이... 왜냐하면 거기가 환경부하고 소통창구거든요. 거기서 뭔가의 안도 만들어 내고 센터를 확장하는 것에 대한 기획을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환경부에 제안도 하고 그래야 되고, 환경부하고 협의한 결과에 대해서 지역에 뿌려주고, 중앙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참여자 1]

(2) 리더십의 부재

리더십(leadership)은 어떤 목표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특정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의미한다(Robbins & Judge, 2011; Yukl, 2002). 조직생존의 관점에서 리더십은 개인이나 집단의 행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이창원 외, 2014). 이러한 이유로 생사의 갈림길에 선 많은 조직들은 ‘리더의 교체’를 통해 조직이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한다. 그러나 리더의 성공적인 리더십은 단순히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둘러싼 내·외적인 환경들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내생적으로 발현된다. 따라서 리더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리더십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인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각 센터의 리더라 할 수 있는 센터장들의 반체신적인 행태를 경험하면서 센터장의 조직몰입도 및 조직헌신을 위한 동기부여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주관기관(대학)의 장(총장)이 추천하면 행정협의회의 결정을 통해 임명이 되는 비상근, 임기제(2년)로써 대부분 주관대학의 교수들이 센

터장을 역임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센터장의 반체신적인 행태와 관련하여 고용형태(비상근, 임기제 등)에 따른 센터장의 낮은 동기부여 수준을 일차적인 원인으로 지적함과 동시에 그러한 행태를 가속화시킨 본질적인 원인을 ‘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한 주관기관의 인식변화’에서 찾고 있었다.

사업의 도입기 과정에서 다수의 대학들은 학교의 인지도 제고 및 연구기반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다. 이러한 대학의 관심은 초기 사업의 진행과정에 투영되었으나, 점차 센터의 사업수행 방식 및 성과에 관한 대외적인 비판들이 제기되면서 센터에 대한 주관기관의 긍정적 인식은 전환되었다.⁸⁾ 참여자 0 는 ‘계류’이라는 표현을 통해 현재 센터에 대한 주관기관의 인식의 단면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 속에서 주관기관 내 센터의 입지는 줄어들었으며, 센터장은 자연스럽게 주관기관의 교수로서 본연의 직무에 보다 충실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조직 내 리더의 의미가 무색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조직 변화의 동력을 잃은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

“센터장에게 센터에 대해 긍정적 역할을 기대하고 노력을 위한 동기부여를 하려면 학교에서 그 자리를 인정해 줘야하는데... 학교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센터장에게) 동기부여가 안됩니다. 굳이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거죠...” [참여자 2]

“(센터가) 학교에 있는 한 교수님들이 그냥 비상근... 비상근이면 항상 뒷전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학과교수회의와 센터행사 중에 교수회의를 가요. 상근이면 당연히 센터장 역할을 최우선으로 하겠죠.” [참여자 3]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지속적으로 갈려면 이노베이션도 하고 자립화도 해야 하는데, 근데 학교에 소속된 교수님들이 대부분 센터장이

8) ‘17년 국정감사 시 센터의 연구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주관대학 위주 과제 선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외부적으로 ‘연구과제의 독점’ 및 ‘나눠먹기식 과제수행’에 대한 문제 제기와 불신이 지속되어 왔다.

다 보니까 교수님들은 굳이 내가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2년 뒤에 끝나는 건데 내가 활성화시켜서 자립화할 필요가 없다.” [참여자 5]

4) 환경의 변화로부터 고립된 조직의 구조

‘유기체로서 조직(organizations as organisms)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르면 조직은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간주되고, 조직의 생존과 관련하여 조직의 행동을 환경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조작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Morgan, 1997).’

특정재원의 의존비율이 높은 조직의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자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입구조의 창출 및 다원화를 위한 전략마련과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구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조직구조의 본연적인 한계를 경험하며, 현재의 조직 구조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센터의 활성화 및 자립에 대한 논의가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관한 의구심을 느끼고 있었다.

(1) 특정지역에 귀속된 센터의 정체성

녹색환경지원센터는 광역적 관점에서 광역자치단체, 국지적 관점에서 개별 기초자치단체의 환경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들 지방정부는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기능적 역할에 대한 잠재적 수요자임과 동시에 마케팅 전략 수립 시 표적집단(target group)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활성화 및 자립의 관점에서 다양한 환경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의 참여자들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제도적 장치들로 인해 센터의 정체성이 특정지역에 귀속되는 현상을 체험하고, 센터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연

구기관으로 전락해 버린 듯한 경험을 하게 된다⁹⁾.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센터의 존립 및 유지의 기반이 된 제도적 장치들이 오히려 센터의 기능적 범위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역설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

“예산을 주고 있는 ○○사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시가 ○○센터에 준건 ○○시를 위해 쓰라고 예산을 주는 거니까... 여기 일부터 해결해야 되는거죠. 그리고 나면 실제 다른 걸 할 시간이 없죠.” [참여자 1]

“예산이 지금보다 확보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센터가 가지고 있는 △△라는 이름을 버려야 해요.” [참여자 1, 2]

“□□ 영역으로 센터의 기능이 특화되어 지정되니까 요즘 문제가 되는 환경현안문제에 대응하기가 어렵죠.” [참여자 3]

(2) 법적지위로 제한된 조직역할의 범위

조직 자립의 관점에서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입구조의 창출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현재 녹색환경지원센터의 법적지위로 인해 조직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가 제한되고, 이로 인해 센터의 법적지위가 수입구조의 창출 또는 다원화의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법률로써 명시된 지위 및 권한을 의미하는 법적지위는 조직의 지위에 관한 성문화된 근거임과 동시에 조직 역할의 경계를 규정한다. 후자의 관점에서 조직의 법적지위는 조직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수행해서는 안 되는 역할’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확인해준다. 따라서 조직의 법적지위는 일정부분 그 역할을 제한하는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조직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관한 경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법적 지위의 변화 없이 센터의 활성화 및 자립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

9) 환경부의 지정제도와 지자체 보조금을 의미한다.

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가 직접 실행을 못하니까 여기(센터)다 돈을 줘서 수행하게 하고 싶은데 여기는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조직의 법적지위 자체가...” [참여자 5]

“조직의 모호성(법적지위), 저희 기관이 사업자등록증에 비영리 단체(로 등록이 되어있죠)... 상당히 모호하죠... 이것 때문에 재원마련이 탄력적이지 못하죠. ○○시나 □□도가 실무조직인 센터에 예산을 직접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출연기관이 아니라 사무위임을 못해요. 그럼 결국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용역 띄우고 수주해야 하는데 실적이 부족하면 우리가 실제로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거죠. 조직의 모호성(법적지위)에서 오는 예산확보 탄력성 저해... 이게 중요해요.” [참여자 4]

4) 구조적 제약을 받아들이며 지역 환경지킴이로 살아내기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구조적 제약이라는 현실의 장벽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의 위치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이유는 환경 전문가로서의 사명과 그들의 노력이 지역 환경문제 개선에 기여한다는 보람과 긍지에 있었다.

(1) 지역 환경지킴이로서 일의 보람

본 연구의 참여자가 일을 하는 의미 중 가장 부분은 바로 지역의 환경문제 개선에 기여한다는 일의 보람에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때론 산업현장에서, 또는 교육현장에서 그들의 역할을 수행하며 긍정적인 변화들을 직접 경험하며 지역 환경지킴이로서 일의 보람을 찾는다. 연구 참여자들이 척박한 업무환경 가운데에서도 일을 통해 느끼는 보람은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구성으로서 일을 계속할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시의 환경개선에 상당히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익기여에 대한 부분은 실제 이곳에 와서 느끼게 되었죠. 첫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결론 내린 건 ‘이지역의 환경개선과 나의 성장을 함께 할 수 있겠다’ 라는 답을 내렸죠.” [참여자 1]

4. 결론

1) 분석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도 소재 녹색환경지원센터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책경험에 대한 의미와 본질을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 탐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드러나 정책경험은 총 4개의 중심의미와 7개의 하위구성요소로 도출되었다. 4가지의 중심의미는 ‘구조적 매너리즘에 빠지기’, ‘조직 자정능력의 상실’, ‘환경의 변화로부터 고립된 조직구조’, ‘구조적 제약을 받아들이며 지역 환경지킴이로 살아내기’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중심의미를 통해 본 연구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들의 정책 경험에 갖는 의미를 탐색해보았다. 본질구조에 대한 논의는 정책적 제언을 통해 구체화 하고자 한다.

2) 본질구조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정책의 제도적·구조적 제약에서 비롯되는 현실적인 한계들을 체험하며, 현재의 제도적 기반 위에서 센터의 활성화 또는 자립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유의미성이 없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

있다. 따라서 보다 적시성 높은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경험한 ‘제도적·구조적 제약’에 우선적인 초점을 두고 관련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결국 현재의 제도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제도에 관한 논의로 귀결된다.

해당 관점에서 최근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환경진흥원’ 설립에 관한 논의는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현재의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으로 이관될 경우 수입구조 창출의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한 센터의 법적 지위가 자연스럽게 전환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위임이 가능해져 불확실성이 높은 위탁사업에 비해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입구조의 창출이 가능해진다.¹⁰⁾ 이와 더불어 공기관대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매칭펀드를 조성하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위탁사업 수행이 가능해진다.

둘째, 그 동안 국지적 차원에서 제한되어온 센터의 기능적 역할의 범위가 광역수준으로 확장되어 변화하는 환경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셋째, 상위기관의 평가지표에 초점을 둔 정형화된 사업구조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련 상위계획과 부합하는 사업의 설계가 가능해진다.

10)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으로서 환경관련 사무의 집행기관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참고문헌】

1. 국내 논저

- 김분한 외(1999). 「현상학적 연구 방법의 비교고찰」,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제29권 6호 1208-1220쪽.
- 김은하 외(2012). 「결혼이주여성이 임신·출산과정에서 체험한 갈등경험」, 『질적연구』, 제12권 1호, 66-78쪽..
- 권향원(2016). 「현상학과 사회과학연구: 정책연구에의 질적방법론적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25권 제1호, 355-394쪽.
- 문민정·장연집(2011). 「성인 지적 장애 자녀 어머니들의 양육 체험」. 「질적연구」, 12(1): 25-35.
- 이영범·지현정(2011). 환경규제, 기술혁신, 생산성과의 관계. 「한국행정학보」, 45(1): 171-197.
- 윤건수(2011). 약자의 설득전략: 어느 하위직 지방공무원의 개혁활동에 대한 현상학적 보고서. 「한국행정학보」, 35(1): 143-161.
- 홍현미라 외(2008). 사회복지 질적 연구 방법론의 실제, 서울: 학지사.
- 홍성하(2015). 간호학의 돌봄에서의 '정'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 「철학과 현상학 연구」, 65(1): 1-28.

2. 외국 논저

- Clo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S. Valle & M. King (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lick, U. (2009). 「질적연구 방법론」. 임은미, 최금진, 최인호, 허문경, 홍경화 역, 서울: 한울 아카데미.
- Giorgi, A. (1970). *Psychology as a Human Science: A Phenomenologically Based Approach*. New York: Harper & Row.
- Glase, B. G., & Strauss, A. L.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New York: Aldine.
- van Kaam, A. (1966). *Existential Foundations of Psychology*.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Abstract]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Policy Experience of Stakeholders of Green Environment Support Center

Hwang Hui-Young*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experiences of stakeholders of the Green Environment Support Center as a phenomenon and examine the nature of the obstacles that hinder the activation of the Green Environment Support Center project through the essential structure of experiences commonly embedded in their individual experiences. As a result of applying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four central meanings and seven sub-components of the policy experience of stakeholders of the Green Environment Support Center were derived: "falling into structural mannerism," "loss of organizational self-cleaning ability," "organizational structure isolated from changes in the environment," and "living as a local environmental guardian while accepting structural constraints." Based on the derived analysis results, this study presented policy and practical suggestions for the revitalization and independence of the Green Environment Support Center.

Key-words : Green environment support center, Policy experience, Phenomenological study

논문 접수일 : 2023년 12월 10일
심사 완료일 : 2023년 12월 20일
게재 확정일 : 2023년 12월 25일

* Dong-Eui University, Public Administration, Assistant Professor

유방암 생존자를 위한
모듈식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 사례연구*

임영제** · 이정희***

【목 차】

1. 서론
2. 모듈식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
3. 모듈식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 사례
4. 결론 및 논의

【국문초록】

본 연구는 유방암 생존자를 위한 모듈식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제 대상자에게 적용하여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을 실제 유방암 생존자 1명을 대상으로 치료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여 6회기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였다. 그리고 회기별 진행내용과 프로그램 만족도 검사 결과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8가지의 참여자 경험의 의미가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실제 현장에서 진행자가 재구성하여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듈식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을

* 본 연구는 임영제(2022)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발췌 수정하였음.

** 동의대학교 산업문화대학원 음악치료학과 겸임 조교수

*** 동의대학교 청소년상담학과 교수

실제 유방암 생존자에게 적용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논의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유방암 생존자, 모듈식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 사례연구

1. 서론

의학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암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인식된다. 한국은 모든 암의 조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 448.4명으로 암 발생률이 높은 국가에 속한다. 특히 유방암 생존자는 지난 10여 년간 무려 2배가량 증가하였으며, 그 수는 2018년 2만 3,647명으로 국내 여성 암 중 최다 발생률을 보인다(국가암정보센터, 2020). 이러한 유방암 발생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5년 생존율은 2010~2014년 86.6%로 세계 최고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2017년 한국 여성 유방암 생존자의 연령별 발생 추이 자료에 의하면 40대가 8,867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연령군이며, 40세 이하에서도 2,668명의 발생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한국유방암학회, 2020). 이는 점차 증가하는 발생률과 낮아지는 발병 연령에 따라 유방암 장기 생존의 기간 동안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유용하고 검증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최근 유방암 생존자들이 치료과정에서 복합적으로 경험하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여성성을 상징하는 유방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에 근거하여 유방암을 외상 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고 있다(박은영, 2011). 유방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살펴보면 23.0%~69.8%가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의 위험 수준 이상의 증상을 나타낸다(양승경, 김은심, 2015)고 보고하고 있다. 심리학적 측면에서 외상(trauma)은 일상적인 스트레스의 경험을 넘어 신체적 위협과 죽음 또는 심각한 상해 등을 통해 입은 마음의 상처를 의미한

다(유성임, 2018). 이러한 의미로 본다면 유방암 생존자는 암 진단과 함께 장기적 치료의 과정에서 단순한 질병의 경험을 넘어 자신을 극복해야 하는 외상 경험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외상의 경험은 자신이 가진 기능과 적응의 수준에 따라 인지적 및 정서적인 재구성의 과정을 통해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유방암 생존자는 병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내면의 힘을 얻고 오히려 감사와 삶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단순한 생존이 아닌 암 이전의 상태를 넘어서는 긍정적 변화를 하게 된다(임영제, 이정희, 2020). 따라서 유방암 생존자가 삶의 위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인지적인 노력을 통하여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중요성이 부각된다.

그동안 심리 중재의 한 분야인 음악치료는 전인 치유의 개념을 가지고 암과 관련된 임상 현장에서 신체·심리·정서·사회적 기능 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 왔다(박다정, 2016). 특히 유방암 생존자들에게 음악은 정서적으로 내면의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다(Clair, Mathews, & Kosloski, 2005). 음악치료는 노래 부르기, 악기연주, 즉흥연주 등의 음악적 경험을 통해 유방암 생존자가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을 회복하도록 돕는 심리치료의 한 방법이다. 유방암 생존자들은 언어적 표현 방법이 아닌 이러한 음악적 경험을 활용하여 감정을 쉽게 표현하고 공감하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황은영, 정은주, 이유진, 2014).

그중 노래심리치료는 유방암 생존자를 위한 치료 및 생존단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음악적 경험을 적용하는 언어적 심리치료이다(황은영 외, 2014). 그리고 노래심리치료는 노래의 가사, 박자, 화성, 선율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과 인지를 복합적으로 다루어 유방암 생존자의 생각과 느낌에 대한 풍부한 표현을 도울 수 있다(정현주, 2015). 본 연구에서 노래는 정서적 영역과 인지적 영역 중 인지적 영역에 무게를 두고 진행되었다.

노래를 치료적으로 활용한 기존 중재 연구는 성인 대상자에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경선, 2021). 이러한 결과는 노래가

정서적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심리치료의 과정을 촉진하기 때문에 볼 수 있다(Bruscia, 1998). 이처럼 노래심리치료는 유방암 생존자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방암 생존자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특성에 따라 노래를 통해 심리·정서·사회적 영역에서 변화와 지지를 줄 수 있다(최미환, 2006). 그러나 유방암 생존자의 특성이 반영된 음악치료 중재 관련 연구는 국외에서 유방암 환자 그룹을 대상으로 적용한 연구(Allen, 2010; Burns, 2001; Thompson & O'Callaghan, 2013)가 소수 있지만, 국내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유방암 생존자가 겪는 치료 및 생존단계에서의 다양한 심리·정서적 문제를 이해하고 성장으로 이끌기 위한 맞춤형 노래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특히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는 노래심리치료는 모형과 구성이 구체화되어있지 않고 프로그램의 중재방법에 따라 회기를 정하고 각 대상자에게 같은 내용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개별특성에 따른 적용방식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설정하고 그룹으로 진행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의 형태는 유방암 생존자의 특성에 따라 맞춤 형식으로 좀 더 실용성 있게 프로그램을 활용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무엇보다 유방암 생존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주로 병원 내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적극치료 이후 항암 화학요법이나 그 외 치료를 위한 특성상 3~4일 정도의 짧은 입·퇴원으로 인해 장기적인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병기의 유방암 생존자가 함께 그룹으로 참여하여 단기성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김지연, 김영신, 2009). 그러므로 유방암 생존자를 위한 심리 중재 프로그램은 의료환경과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유방암 생존자가 병기별로 겪게 되는 심리적 어려움과 특별히 경험하는 여러 특성을 토대로 기존의 학문적 프로그램의 절차보다는 좀 더 세분화되고, 새로운 형태의 실용성 있는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방암 생존자가 생존기간 동안 개별적으

로 경험하게 되는 여러 특성에 따라 필요한 내용들을 대상자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현장에서 유연하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듈식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먼저 대상자와 치료사 그리고 활용하는 병원 현장에 모두 초점을 맞추어 가장 적합한 형태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듈식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임영제, 2022). 그리고 개발된 모듈을 대상자에게 맞춤형으로 적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유방암 생존자를 위한 모듈식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제 대상자에게 적용하여 평생의 생존기간 동안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유방암 생존자들에게 도움이 되어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유방암 심리 재활에도 실질적인 역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모듈식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

모듈식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 적용을 위하여 먼저 프로그램 개발의 원리 및 프로그램 개발의 절차와 구성요소 등에 대한 이론적 절차에 따라 모듈식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진행자가 활동 과정을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적용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모듈식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이란 유방암 생존자의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와 요구를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적합한 형태로 재구성한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유방암 생존자의 개별적 특성과 상태 및 요구를 고려하여 유방암 생존자를 위한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단위별 모듈의 형식으로 개발하였다.

유방암 생존자를 위한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방암 생존자가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을 자신의 삶을 이끌어온 미덕(virtue)을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심리사회 적응방식을 찾는다. 둘째, 노래를 활용하여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공감하고 표현하는 과

48 · 『인간과 문화 연구』 제34집 (2023.12.31.)

정을 통하여 투병하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한다. 셋째, 유방암 생존자로서 삶의 의미를 탐색하고 위기를 성장으로 이끄는 주체로서 현재와 미래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간다.

<그림 1> 모듈식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세부모듈 주제와 목표

특정영역 모듈	V-PAM 모듈	세부모듈 주제와 목표	노래활동모듈	모듈번호
1 가족관계	A 전념적 행동	주제 가족 안에 나	a 감상 '가족사진' 감상 후 노래대화	 ①
		목표 가족을 위해 자신이 노력했던 과거 모습을 찾아보고 가족과 나에 대해 이해하기	b 가창 '가족사진' 음원으로 가창	 ②
			c 표현 동영상으로 본 주제로 곡틀 연주	 ③
	B 듣기	주제 가족과의 대화	a 감상 '가족' 노래 감상 후 회상	 ④
		목표 가족에 대한 자신의 감정, 생각, 상태 등의 숨겨진 표현방법 찾기	b 가창 '가족' 노래 주교번기	 ⑤
			c 표현 두드림리듬으로 노래의 리듬 표현	 ⑥
	C 실용적 지혜	주제 가장 소중한 관계	a 감상 '엄마가 말에게' 감상 후 가사노래	 ⑦
		목표 가족과 함께 이루었던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을 떠올리며 가족의 소중함 찾기	b 가창 '엄마가 말에게' 라이브 가창	 ⑧
			c 표현 레인스틱으로 주제를 따라가기	 ⑨
	D 정서적 승화	주제 감사 표현하기	a 감상 '바람의 노래' 감상 후 가사노래 나누기	 ⑩
		목표 가족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지금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b 가창 '바람의 노래' 라이브 가창	 ⑪
			c 표현 본차임으로 주제부분 연주	 ⑫
	E 전실성	주제 가장 가까운 관계	a 감상 '다행이다' 감상 후 연상하기	 ⑬
		목표 가족에게 먼저 손 내밀고 어려움에 대하여 공감의 도움 요청하기	b 가창 '다행이다' 재사하여 가창	 ⑭
			c 표현 MMR로 매그네트 커튼 표현	 ⑮

특성영역 모듈	V-PAM 모듈	세부모듈 주제와 목표	노래활동모듈	모듈번호
2 대인관계	A 전념적 행동	주제 치료적 관계 만들기	a 감상 '사랑으로' 감상 후 노래 만들기	 16
		목표 암 환자 관계망을 통해 치료적 관계를 찾고 대인관계 형성하고 유지하기	b 가창 '사랑으로' 라이브 가창	 17
			c 표현 본화임으로 관계 노래 화성표현	 18
	B 용기	주제 실황 속의 나 수용하기	a 감상 '아모리' 감상 후 노래 토의	 19
		목표 현재 처한 자신의 상황을 수용하고 대인관계를 이어나가는 방법 배우기	b 가창 '아모리' 라이브 가창	 20
			c 표현 리듬악기로 4박리듬 따라가기	 21
	C 실용적 지혜	주제 은혜한 관계	a 감상 '아름다운 세상' 감상 후 가사 토의	 22
		목표 상대의 마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전환하고 타인의 격려 받아들이기	b 가창 '아름다운 세상' 음원 가창	 23
			c 표현 주제부분 후드름리 즉흥연주	 24
	D 경서적 습화	주제 병을 통해 있는관계 얻은 관계	a 감상 '옛사랑' 감상 후 가사 토의	 25
		목표 암을 통해 만난 사람과 맺어진 사람을 확인하고 자신의 대인관계 돌봄하기	b 가창 '옛사랑' 소절씩 주고받기	 26
			c 표현 오현드림 자유즉흥 표현	 27
	E 전실성	주제 내가 원하는 대인관계 만들기	a 감상 '새월이가면' 감상 후 연상하기	 28
		목표 나를 지지해주는 인간관계 만들기	b 가창 '새월이가면' 라이브 가창	 29
			c 표현 후렴부분 켈레로 주고받기	 30

특성영역 모듈	V-PAM 모듈	세부모듈 주제와 목표	노래활동모듈	모듈번호
3 사회복귀	A 전념적 행동	주제 대표 감동 찾기	a 감상 '거위의 꿈' 감상 후 노래만들기	 31
		목표 지난 삶의 성공·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강점 발견하기	b 가창 '거위의 꿈' 라이브 가창	 32
			c 표현 에그제이츠로 리듬표현	 33
	B 즐거 기	주제 새로운 도전	a 감상 '나는 문제없어' 감상 후 노래대화	 34
		목표 지금의 두려움을 벗어나 관심있는 것에 대해 탐색하고 새로운 도전계획 세우기	b 가창 '나는 문제없어' 라이브 가창	 35
			c 표현 핸드드럼 강박,약박 표현	 36
	C 실용적 지혜	주제 생활양식의 변화	a 감상 '웃는거야' 감상 후 가사 도의	 37
		목표 유머는 행복한 삶을 살다는 신호임을 인식하고 타인에게 유쾌한 반응을 표현하기	b 가창 '웃는거야' 노래 주고받기	 38
			c 표현 카바사도 리듬표현	 39
	D 형식적 승화	주제 자기격려	a 감상 '넌 할 수 있어' 감상 후 노래 만들기	 40
		목표 암을 통해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에대한 자신감 키우기	b 가창 '넌 할 수 있어' 음원으로 가창	 41
			c 표현 오렌드럼 후렴부분 즉흥표현	 42
	E 관실실	주제 일상의 회복	a 감상 '살다는건' 감상 후 노래 대화	 43
		목표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b 가창 '살다는건' 개사하여 가창	 44
			c 표현 평저심벌, 쉼메 리듬주고받기	 45

특성영역 모듈	V-PAM 모듈	세부모듈 주제와 목표	노래활동모듈		모듈번호	
4 심리적 어려움	A 권남적 행동	주제	긍정적 생각	a 감상	'바람' 감상 후 노래만들기	 ㉔
		목표	부정적인 생각이 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하기	b 가창	'바람' 라이브 가창	 ㉕
				c 표현	본자임으로 멜로디 표현	 ㉖
	B 통기	주제	마음 보살피기	a 감상	'행복해요' 감상 후 노래만들기	 ㉗
		목표	치료에 대한 걱정, 불안을 다스리고 마음을 보살피는 방법 찾기	b 가창	'행복해요' 노래 주고받기	 ㉘
				c 표현	스윙업 드림으로 확성표현	 ㉙
	C 실용적 지혜	주제	고통의 의미 발견하기	a 감상	'모든날 모든순간' 감상 후 가사 토의	 ㉚
		목표	심리적 어려움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 해 보고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대처방법 찾기	b 가창	'모든날 모든순간' 출연 가창	 ㉛
				c 표현	에그레이커, 카바사 주고받기 표현	 ㉜
	D 정서적 승화	주제	위기를 성장으로	a 감상	'아모르파티' 감상 후 가사 토의	 ㉝
		목표	치료과정에서 겪은 역경의 경험을 통하여 자기 성장을 확인하기	b 가창	'아모르파티' 출연 가창	 ㉞
				c 표현	우드블라 자유 즉흥표현	 ㉟
	E 진실성	주제	사회 속으로 적응하기	a 감상	'행복을 주는 사람' 감상 후 가사 토의	 ㊱
		목표	유망한 생존자로서 사회적 존재의 의미를 탐색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가기	b 가창	'행복을 주는 사람' 라이브 가창	 ㊲
				c 표현	윈드벨로 아디엘 첫 음정 표현	㊳

본 프로그램의 모듈구성은 유방암 생존자의 심리사회 적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심리사회적응 요인으로 1가족관계, 2대인관계, 3일(work), 4정서적 어려움의 4개의 모듈로 도출하였다. 그리고 V-PAM의 5가지 요인인 A전념적 행동, B용기, C실용적 지혜, D정서적 승화, E진실성으로 분류하여 5개의 V-PAM 모듈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노래활동 방법은 a감상중심, b가창중심, c악기표현중심의 3개의 모듈로 전체 프로그램의 모듈은 모듈 60개(4×5×3)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유방암 생존자의 문제영역에 따라 자신의 미덕(virtue)을 찾을 수 있도록 조합하여 세부모듈의 주제와 목표를 위의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3. 모듈식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 사례적용

1) 프로그램 실행 절차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 <표 1>과 같다. 먼저 병원에 의뢰하여 노래심리치료를 원하는 대상자를 추천받아 총 6회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표 1> 프로그램 실행 절차

제목	내용		비고
대상자모집	2021. 10. 04. (월)		
프로그램 적용	1회기	2021. 10. 06 (수) AM11:00 ~ 11:50	대상자시간 반영
	2회기	2021. 10. 08 (금) AM11:00 ~ 11:50	
	3회기	2021. 10. 12 (화) AM11:00 ~ 11:50	
	4회기	2021. 10. 13 (수) AM11:00 ~ 11:50	

	5회기	2021. 10. 15 (금) AM11:00 ~ 11:50	
	6회기	2021. 10. 18 (월) AM11:00 ~ 11:50	
운영 장소	P 암 재활병원 프로그램실		
사전검사	2021년 10월 04일(월) 오전11시 ~ 11시30분		
준비물	키보드, 블루투스, 선곡표, AVIS 척도 검사지, 활동지, 필기도구, 미니젬베, 윈드차임, 우드블럭, 레인스틱, 핑거심벌, 탬버린, 오션드럼, 카바사, 마라카스, 톤차임, 공명실로폰, 우쿨렐레 등		노 래 활 동 악기
만족도검사/사후검사	6회기를 마친 후 사후검사와 만족도 검사를 진행하고 제출하도록 함		

2)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는 먼저 기관 생명윤리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연구 승인(DIRB-20208-HR-R-16)후 프로그램 적용 대상자가 입원 중인 병원의 담당의사로부터 동의를 구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자 유방암 생존자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 기간, 비밀보장, 참여 중단권리, 녹취 및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하고 코드화하여 저장하고 연구를 위한 모든 자료는 연구를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연구가 완전히 종료된 후 모두 폐기될 것임에 대해서도 명시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서를 작성하고 각각 한 부씩 보관하도록 하였다.

3) 프로그램 실행

먼저 자기탐색 및 모듈 선택단계인 1회기와 2회기를 진행하였다. 그

리고 회기 계획수립을 하고 프로그램 실시단계인 3회기, 4회기를 진행 하고 자기격려 및 마무리 단계인 5회기 프로그램 진행을 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현재 암 재활병원에 입원중인 유방암2기 생존자로 한 달 중에 일주일은 입원하고 4주간 외래진료를 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 일정을 미리 의논하고 담당 의료진의 동의를 구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자는 음악치료전문가, 음악심리지도사 1급, 전문상담사 2급, 예술심리지도사 1급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그리고 음악치료 임상을 위해 복지관 및 특수학교, 성인 음악치료, 개인 음악치료 및 집단 음악치료에 대한 10년 이상의 치료 경력이었다. 현재는 00예술심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D대학교 산업문화대학원 음악치료학과 겸임조교수로 재직중이며 암 재활병원 소속 음악치료사로 8년이상 근무 중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55세의 기혼자로 현재 미용사로 일하고 있으며, 자녀는 딸 1명을 두고 있다. 2020년 유방암 2기 진단을 받고 현재는 재활치료 중이다. 평소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 많았으며 발병이후 관계가 멀어진 딸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다. 1회기는 2021년 10월 6일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P 암 재활병원 프로그램실에서 진행하였다. 자기소개 및 상담목표 탐색하기의 주제로 5가지의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였다. 2회기는 2021년 10월 8일 오전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진행하였다. 모듈선택 및 회기계획을 위하여 3가지의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1회기에서 탐색한 문제영역에 따른 주제와 자신의 미덕(virtue), 노래활동방법을 찾아 모듈을 선택하고 회기계획을 수립하였다.

참여자는 매월 일주일 정도 입원하고 4주간 외래진료를 받고 있어 일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모듈식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총 6회기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1~2회기 진행에 따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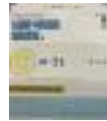
<표 2> 모듈 선택단계의 진행내용 결과

참여자 인적 사항	성명	조달빛	심리치료 경험	□ 심리상담 □ 미술치료 □ 음악치료 □ 기타 ■ 없음	
	연령	55세			
	학력	고졸			
	직업	미용사	진행 시간 (회기)	1	2021. 10. 06 오전 11시 ~ 11시 50분
	종교	기독교		2	2021. 10. 08 오전 11시 ~ 11시 50분
	결혼 유무	기혼		3	2021. 10. 12 오전 11시 ~ 11시 50분
	가족 사항	남편.딸1		4	2021. 10. 13 오전 11시 ~ 11시 50분
	병력	2020.유방암 2기 진단		5	2021. 10. 15 오전 11시 ~ 11시 50분
		6	2021. 10. 18 오전 11시 ~ 11시 50분		
1회기	주 호소 문제	①남편에 대한 서운함, 발병 이후 딸과 소원해진 관계 의 어려움 ②무기력함 ③치료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			
	선호 노래	①바람(노사연) ②행복해요(추가열) ③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조수아)			
2회기	AVIS 척도 결과		내용	점수	
			전념적 행동	4.29	
			용기	2.2	
			실용적 지혜	3	
			정서적 승화	5.67	
			진실성	7.64	

	대상자 자원	①미용 관련 일을 하면서 대인관계를 형성 ②종교적으로 위안을 받음-남동생이 목회자로 지지해줌 ③배려와 공감의 능력이 있다고 믿음
3회기	3Ac(3사회복귀, A전념적 행동, c악기표현활동) 주제: 대표강점 찾기 (노래: 행복/추가열)	
4회기	1Ba(1가족관계, B용기, a감상활동) 주제: 가족과의 대화 (노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5회기	4Cb(4심리적 어려움, C실용적 지혜, b가창활동) 주제: 고통의 의미 발견하기 (노래: 바람/노사연)	
6회기	자기격려 및 마무리	

1회기와 2회기 실시를 통해 모듈을 구성하고 회기계획을 수립한 후 프로그램 실시단계인 3회기부터 6회기까지의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으며, 6회기 전체 프로그램을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모듈식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 목표 및 내용 실행 내용

단 계	회 기	주제 (모듈)	구 분	목표 및 내용	실행 내용
자 기 탐 색 및 모 듈 선 택	1	자기 소개 및 상담 목표 탐색	목 표	1. 프로그램의 전체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동기를 높인다. 2. 별칭 짓기로 자기소개를 하고 친밀감 형성을 한다. 3. 자신의 어려움을 탐색하고 AVIS 검사를 실시한다. 4. 선곡표를 참고로 선호노래를 탐색한다.	
			내 용	1. 프로그램 O/T, 서약서, 주의사항 안내 2. 워밍업: 별칭을 지어보고 자신만의 이름표 만들기 3. 문제영역 탐색	

단 계	2	모듈 선택 및 회기 계획	목 표	4. AVIS 검사 실시: 자신의 virtue 탐색 5. 노래 선곡표를 보고 선호노래 탐색하기		
			내 용	1. AVIS 검사 결과해석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이해한다. 2. 주제에 따른 모듈을 선택한다. 3. 치료계약을 맺는다.		
	3	대표 강점 찾기 (3Ac)	목 표	1. 위밍업: Hello song으로 별칭 인사 나누기 2. AVIS 검사 결과해석을 통해 자신의 virtue 이해하기 3. 문제영역에 따른 주제, 자신의 virtue, 노래 활동 방법을 찾아 모듈을 선택하고 회기 계획 수립하기		
			내 용	1. 인생 그래프를 통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한다. 2. 주제 노래로 악기표현 활동을 한다. 3. 현재 삶에 강점을 적용한다.		
프 로 그 램 실 시	3	대표 강점 찾기 (3Ac)	목 표	1. 위밍업: 지금의 감정 리듬악기로 표현하기 2. 강점 발견: 인생 그래프를 그리고 강점 발견하기 3. '삶' 주제 노래: '행복해요' 톤차임 연주하기 4. 강점 적용: '지금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전념적행동)		
			내 용			
	단 계	4	가족 과의 대화 (1Ba)	목 표	1. 주제 노래로 감상활동을 한다. 2. 가족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탐색한다. 3. 가족과의 올바른 소통의 표현방법을 찾아 실천한다.	
				내 용	1. 위밍업: Forest Hymn-Bill Douglas/호흡하며 이완하기	

	5	고통의 의미 발견하기 (4Cb)		2. '가족' 주제 노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상 3. 가사토의: 노래의 가사를 통해 가족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일치하는 부분을 찾아 (치료사) ~돼! (대상자) ~못해!, (치료사)할 수 있어! 로 감정 탐색하기 4. 노래대화: 노래의 의미 있는 부분을 개사하여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로 바꾸어 보기 5. 자신의 감정, 생각, 상태 등을 편지로 적어 가족에게 전달하기(용기)	
			목표	1. 주제 노래로 가창 활동을 한다. 2. 심리적 어려움을 탐색하고 의미를 이해한다. 3. 현재 삶의 대처 방법을 탐색한다.	
			내용	1. 워밍업: 힘 빼고 12345의 강도로 목소리 내기 (도래요, 레래요~크레센도하여 목소리 내고 해소하기)-악기활용 2. '심리정서' 주제 노래: '바람' 가창 3. 심리적 어려움을 탐색하여 개사하기 4. 노래주고받기: 미리 개사한 노래로 치료사와 한 소절씩 주고받으며 삶에 적용하기 (실용적 지혜)	
자기격려 및 마무리	6	자기격려 및 마무리	목표	1. 매회기에 발견한 자신의 긍정적 힘을 재확인한다. 2. 전체 프로그램의 과정을 정리하고 새롭게 발견한 모습을 콜라주 작업으로 확인한다. 3. 인생 노래를 찾아본다(18번 노래).	
			내용	1. 워밍업: 인생 노래 탐색하고 감상하기 2. 콜라주 활동: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virtue (그림, 잡지 활용) 장착하기를 통해 자신의 긍정적 힘을 재확인	

리 단 계				3. 나의 인생 노래 불러 보기(용기) 4. 그 외 전체 활동 소감 나누기	
-------------	--	--	--	--	--

4) 프로그램 실행 결과분석

6회기의 프로그램이 종결한 후에 프로그램 만족도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질문은 목표달성에 대한 5문항과 내용 만족에 대한 3문항, 진행 방식의 3문항, 재참여 희망의 2문항으로 총 13문항에 대한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위기를 성장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특히 노래를 통한 감상, 가창, 악기표현 활동의 방식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고, 프로그램의 내용도 충분히 이해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모듈을 선택하고 회기를 계획하는 과정에 대하여 매우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 진행자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프로그램 재참여 의사에 대하여 재참여를 희망하였으며 다른 환자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문제 특성을 통한 자기 이해

참여자는 앞으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기대하며 1회기와 2회기의 자기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자신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미덕이 ‘용기’라는 것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불안과 우울이 발병 이전과 이후 자신의 삶의 방식과 문제특성에 따른 어려움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2) 자신의 삶을 통해 강점 발견

3회기 에서는 주제 노래의 개사 활동으로 탐색한 참여자의 강점을

가사로 바꾸어 지금 자신의 삶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개사 작업은 진행자와 참여자가 함께 의논하고 토의하면서 소통하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으로 완성하여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참여자가 발견한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여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현재 삶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다.

(3) 악기표현 활동을 통한 감정표현

3회기는 주제 노래를 통한 비언어적인 악기표현과 진행자와의 악기 교류 및 즉흥연주 등으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 음악 안에서 관계 회복과 일상의 복귀를 위한 준비를 도울 수 있었다. 조각이 간단하고 소리가 명확한 리듬악기로 답답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의 소리 표현을 통해 자신의 현재 감정을 알아차리고 상황을 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이러한 표현은 악기표현으로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언어로 재표현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참여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악기표현 프로그램 참여는 참여자가 그동안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올바르게 표현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그로 인한 답답한 마음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4) 가창 활동을 통한 자기직면

5회기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에서 참여자는 당당한 자신의 목소리 표현의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가창을 한다는 것이 자신을 다 드러내야 하는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부담없이 즐겁게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목청껏 소리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참여자는 발병 이후 선호하게 된 ‘바람’이라는 노래를 가창하고 싶어하여 진행자는 참여자의 음정에 최대한 맞도록 조절하여 라이브 반주로 지지하였다. 그리고 가

사가 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주제에 따른 가사 바꾸기 작업으로 참여자가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도왔다. 참여자는 노래의 가사를 통해 지나온 삶을 바라보면서 늘 마음을 숨기고 외롭고 불안한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한 자신을 마주하였다. 비록 그 삶 속에 자신은 없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왔던 지난 노력들을 회상하면서 현재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다.

(5)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용기

4회기에서 참여자는 평소 자신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자주 긴장하고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특히 발병 이후 더욱 어려워진 가족과의 관계는 참여자로 하여금 심리적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로 참여자는 유방암 치료에 전념하지 못하고 심리적 불편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러한 주 호소 문제에 따라 참여자의 긴장을 완화하여 자신의 마음을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평소 참여자가 선호하였던 노래의 가사를 통해 자신의 핵심 정서를 찾아 먼저 용기 낼 수 없었던 자신을 깨닫고 올바른 소통의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평소 말주변이 없어 언어적 소통이 어려웠던 참여자는 가사 안에서 자신의 마음과 일치하는 부분을 인용하여 편지쓰기를 시도하면서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방법은 현재 삶에 적용하여 딸 뿐만아니라 남편과의 소통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질 수 있었다.

(6) 현재 삶의 수용

4회기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래의 가사를 의미있게 개사하면서 마음에 담아 두었던 심리적 어려움을 표현하고 그 의미를 전환하는 기회를 가졌다.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참여자는 암 발병이 지나온 삶의 태도

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 깨닫고 앞으로의 삶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무엇보다 지금 자신의 병을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고 가족과의 관계도 자신이 먼저 손 내밀고 다가가야 한다는 것과 적극치료 이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또한 현재 자신이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은 암이라는 위기 앞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과정이며 현재 삶을 수용하고 성장하는 삶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였다.

(7) 자신의 미덕(virtue)을 삶에 적용

6회기의 마무리 단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참여자는 자신이 가진 미덕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자신에게 부족했던 ‘용기’는 항상 의식하면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적극치료 이후 일상으로 복귀하는 준비를 위하여 ‘전념적 행동’을 통해 현재 삶에 전념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실용적 지혜’는 지난 삶을 통해 얻은 인내의 경험을 활용하여 현재 치료와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표현을 하였다. 따라서 참여자가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한 자신의 미덕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며 충분히 현재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졌다.

(8) 자기 격려

6회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그동안 삶에서 용기 내지 못한 자신을 후회하면서 스스로 격려하고 긍정적인 힘을 발견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5가지의 미덕(virtue)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미덕을 앞으로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였다.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의 삶을 이해하고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찾아보면서 노래 가사의 의미를 통해 현재 자신을 격려할 수 있었다. 단순히 노래를 듣고 부르던 경험에서 심리치료적 접근으로 노래의 의미를 분석하

는 과정이 참여자에게는 도움이 된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경험은 참여자에게 유방암 생존기간동안 심리 사회적으로 적응하고 성장하는 삶의 지지와 격려가 될 수 있었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체계적으로 개발된 유방암 생존자를 위한 모듈식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제 대상자에게 적용하여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을 실제 유방암 생존자 1명을 대상으로 치료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여 6회기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였다. 그리고 회기별 진행내용과 프로그램 만족도 검사 결과분석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 결과 및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단계와 절차에 따라 개발된 60개의 전체모듈 중 3개의 모듈을 선택하여 6회기의 프로그램으로 실제 유방암 생존자에게 적용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은 55세의 유방암 생존자로 남편에 대한 서운함과 딸과의 관계, 치료과정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문제영역에 따라 1회기에서 자기소개 및 상담목표를 선택하고 2회기는 3개의 모듈을 선택하고 별칭 인사 나누기, AVIS 검사를 실시하고 해석을 진행하였다. 3회기는 ‘대표강점 찾기’, 4회기는 ‘가족과의 대화’, 5회기는 ‘고통의 의미 발견하기’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6회기는 자기격려 및 마무리 단계로 실행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의 경험과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 전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참여자는 1회기와 2회기의 자기 탐색과 모듈 선택단계를 통해 자신의 문제 특성과 자기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자신의 강점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3회기~5회기의 프로그램 실시단계에서는 발병 이후 어려움의 문제들에 대하여 주제 노래를 통해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용기’와 ‘현재 삶의 수

용'을 위한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6회기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인생노래를 통해 자기를 격려하고 심리사회 적응과 성장의 삶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구조화된 회기와 활동구성으로 정해진 대상자를 위한 정형화된 프로그램이 아닌 현실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또한 대상자와 진행자가 함께 선택하고 상황에 맞게 회기를 계획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실제 현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적용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개발된 전체 모듈식 프로그램은 선행연구의 단편적인 프로그램과는 달리 개별 맞춤형으로 진행이 가능한 모듈을 선택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본 프로그램은 모듈식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위하여 실제 유방암 생존자를 참여자로 선정하여 의료현장의 상황을 고려하고 정형화되어있는 기존의 프로그램 형식이 아닌 맞춤 형식의 개별 프로그램으로 실행하였다. 회기계획은 참여자의 의료 스케줄에 따라 재계획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모듈식 프로그램 방법은 실제 현장에서 운영자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6회기의 짧은 프로그램 참여에도 불구하고 만족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참여자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는 점과 세분화된 모듈에서 참여자 문제 특성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장점인 모듈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고, 이러한 모듈을 구성하는 과정과 프로그램을 진행할 대상자의 선정 및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준비에 대하여 모니터링하여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회기별 실시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적극활용하고 적용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과제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방암 2기, 50대의 2년 생존자 1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상황에 맞게 시간을 고려하여 6회기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다양한 단계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그에 따른 모듈

을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유방암 생존자라는 독립적인 대상으로 모듈식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단일 대상의 표본으로 참여자의 주관적 만족도와 노래심리치료의 효과성에 따라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으므로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일반화하기는 힘들다. 유방암 생존자뿐만 아니라 특정 암 생존자로 대상을 넓혀 모듈식 프로그램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유방암 생존자는 가족의 지지가 심리사회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모듈 체제를 확장하고, 유방암 생존자와 가족에게 모듈을 적용하여 나타나는 변화에 관한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국내 논저

- 김지연·김영신(2010), 「일회성 음악치료 중재가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부인암환자의 통증, 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음악치료학회지』 제11집 2호, 21-35쪽
- 박다정(2016), 「여성암 환자를 위한 지지적 노래심리치료(S-SPT)프로그램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경선(2021), 「노래의 치료적 활용 분석: 국내 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영제(2022), 「유방암 생존자를 위한 모듈식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동의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현주(2015), 「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최미환(2006), 「치료적 노래만들기」, 『서울: 학지사』
- 한국유방암학회(2020). 「2020 유방암백서」.
- 황은영·정은주·이유진(2014), 「음악심리치료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2. 외국 논저

- Allen, V.(2003), "A time of turmoil: Music therapy interventions for adolescents in a paediatric oncology ward". *Australian Journal of Music Therapy*, 14(2003), pp. 20.
- Bruscia, K.(1998), *The dynamics of music psychotherapy*. Gilsum, NH: Barcelona Publisher.
- Clair, A. A., & Menment, J.(2009), 「노인음악치료(노인음악치료 연구회」,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저 2008 출판.
- Thompson, S., & O'Callaghan, C.(2013), "Decision making in music therapy: The use of a decision tree". *Australian Journal of Music Therapy*, 24, pp. 48-64.

3. 기타

- 국가암정보센터(2020). 「암통계」,
URL: <http://www.cancer.go.kr/ncic/index.html> (검색일: 2023.8.10)

[Abstract]

Case Study on a Modular Singing Psychotherapy Program for Breast Cancer Survivors

Lim Young-Je* · Lee Jeong-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a modular singing psychotherapy program for breast cancer survivors to actual subjects so that it can be used practically in the field. For this purpose, the developed program was implemented by establishing a 6-session plan for one actual breast cancer survivor, taking into account the treatment environment and situation. In addition, the meaning of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was analyzed through analysis of the progress of each session and the results of the program satisfaction test. As a result, eight types of participant experience meaning were analyz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pplied a modular song psychotherapy program that can be reconfigured and flexibly used by the facilitator in the actual field to actual breast cancer survivor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was discussed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research were presented.

Key-words : breast cancer survivor, modular singing psychotherapy program, case study

논문 접수일 : 2023년 12월 10일
심사 완료일 : 2023년 12월 20일
게재 확정일 : 2023년 12월 25일

* Dong-u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and Cultural Studies, Department of Music Therapy, Adjunct Assistant Professor

** Dong-ui University, Department of Youth Counseling, Professor

고려시대 울산 지역의 자기 생산과 수요양상*

박주향

【목 차】

1. 머리말
2. 울산 지역 자기의 생산과 특성
3. 울산 지역 자기의 수요양상
4. 맺음말

【국문초록】

자기(瓷器)는 인류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양한 물건을 담는 용기로 사용되어 사회상과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생산 방식이 까다롭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자기 생산과 수요는 그 지역 상업과 수공업의 실태는 물론 생활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인 청자(靑瓷)에 대한 연구는 강진·부안 등 서남해안의 특정 지역 유물과 유적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일반적으로 한반도 동남해안에 위치한 울산 지역은 청자의 생산과 소비 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울산 지역의 고려시대 유적에서는 청자와 청자 가마 유적이 다수 발견되었다. 출토된 유적을 다각도로 검토해 본다면 울산 지역 자기의 특성은 물론 소비, 유통과 관련한 당시 사회 경제의 여러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

【주제어】 자기, 청자, 울산 자기, 동남 자기, 고려시대, 수공업

1. 머리말

자기(瓷器)는 인류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양한 물건을 담는 용기로 사용되어 사회상과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생산 방식이 까다롭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자기 생산과 수요는 그 지역 상업과 수공업의 실태는 물론 생활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수도 있다.

청자(靑瓷)는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유물 중 하나로 그동안 고려청자 및 가마에 대한 연구는 강진·부안 등 서남해안의 특정 지역 유물과 유적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¹⁾ 또한 소비처인 수도 개경과 그 인근 지역, 특정 계층에 국한된 연구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한반도 동남해안에 위치한 울산 지역은 청자의 생산과 소비 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울산 지역의 고려시대 유적에서는 청자 및 청자 가마 유적이 다수 발견되었다. 유적을 다각도로 분석해 본다면 울산 지역 자기의 특성은 물론 소비, 유통과 관련한 당시 사회경제의 여러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

그동안 울산 지역에서 조사된 고려시대 자기 가마와 연관해 자기 생산과 소비 등에 대해 논의한 논고는 다음과 같다. 김경화는 울산 지역에서 출토된 청자 가마를 통해 그 기종과 문양 등을 분류하여 편년을 제시하고 일부 사회상을 논하였다.²⁾ 박경자는 울산 지역 분청사기 가

* 본 논문은 필자의 2017년도 동의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사학과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1) 서수민, 「고려말·조선초기 도자수공업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논문, 2012 ; 김경화, 「울산 지역 청자문화 - 청자 가마를 중심으로-」 『울산 청자·분청사기 그리고 백자를 굽다』, 울산대국박물관, 2014.

마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시대 편년을 제시하였다.³⁾ 최영문은 낙동강 이동지역의 상감청자를 생산유적과 소비유적으로 분류하여 동남지역 자기 문화에서의 생산과 소비의 연관성 등을 논하였다.⁴⁾ 이러한 논고는 기종과 문양 등이 논의의 중심이 되어, 소비생활을 연관시키지 못하였다. 또 특정 자기에 한정되거나 울산 지역이 아닌 동남지역을 함께 서술하여 울산 지역만의 특성을 부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울산 지역 내의 고려시대 자기 및 가마 유적과 관련된 발굴 보고서를 중심으로 울산 지역의 자기 생산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통하여 울산 지역 자기의 특성은 물론 소비, 유통과 관련한 당시 사회 경제의 여러 양상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고려시대 자기 유적과 관련한 각종 발굴 보고서를 통해 출토 유적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자기와 비교 검토를 통해 울산 지역의 자기의 특성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태조실록(太祖實錄)』~『세종실록(世宗實錄)』,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 등 각종 고문헌 자료를 보완하여 울산 지역의 자기 생산과 수요 양상 등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울산 지역 자기의 생산과 특성

일반적으로 한반도 동남해안에 위치한 울산 지역은 청자의 생산과 소비 등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청자에 대

2) 김정화, 「울산 지역 청자 문화 -청자 가마를 중심으로-」 『울산 청자·분청사기 ; 그리고 백자를 굽다』, 울산대곡박물관, 2014.

3) 박경자, 「울산 지역 분청사기 제작시기」 『울산 청자·분청사기 그리고 백자를 굽다』, 울산대곡박물관, 2014.

4) 최영문, 「고려후기 낙동강 이동의 상감청자 연구 -부산 울산 양산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논문, 2016.

한 연구는 강진·부안 등 서남해안의 특정 지역 유물과 유적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소비처인 수도 개경과 그 인근 지역, 특정 계층에 국한된 연구가 많았다.

최근 발굴 조사를 통해 울산 지역의 여러 고려시대 유적에서 청자 및 청자 가마 유적이 다수 발견되었다. 각 유적에서 자기와 연관된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유적 위치와 출토 현황, 자기 현황, 시대를 각각 구분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울산 지역 자기 관련 유적 현황

	유적명	유물현황	자기현황	추정 시기	위치
(1)	울주 반구동 유적	유구, 기와, 자기	청자 분청사기 백자	12세기 이후 ~	울산시 중구 반구동 303번지 일대
(2)	울주 연자도 유적	수혈유구, 청자, 기와, 철기	청자	12~13세기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산 1번지
(3)	울산 중산동 이화 유적	구상유구, 청자편, 편병	청자	14세기	울산시 북구 중산동 산 69-2번지 일원
(4)	운흥사지 유적	기와, 청자, 백자	청자 분청사기 백자	11세기 이후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5)	울산 범어 유적	청자, 청동수저, 청동완	청자	14세기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 산 331-1번지 일대
(6)	울산 서동유적	청자, 분청사기, 백자, 청동손가락	청자 분청사기 백자	14세기	울산시 중구 우정동
(7)	울산 용연동 고려시대	청자, 청동손가락, 판상철기	청자	14세기	울산시 남구 용연동 산 40-1번지 일원

	분묘 유적				
(8)	울산 옥동 산91-9번 지 유적	자기, 청동발, 청동 숟가락	청자	13 ~ 14	울산시 남구 옥동 91-9번지 일원
(9)	울산 천전리 진현·압골 유적	청자요, 목탄요, 청자,	청자 분청사기	14세기 이후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10)	울산 삼정리 유적	청자요·탄구 부	청자 분청사기 백자	12세기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251번지 일원
(11)	울주 반곡리 유적	청자요	청자 분청사기	14세기	울주군 연양읍 반곡리 산 72-1번지 일원
(12)	울산 고지평 유적	분청자요	분청사기	15세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 49번지 일원
(13)	울주 태기리 유적	자기요	분청사기 백자	15세기	울주군 연양읍 태기리 241번지 일원
(14)	부산 기장 상장안 유적	자기요	분청사기 백자	15세기	부산시 기장군 장안리 산 48-1번지 일원

위 표를 볼 때 울산 지역의 청자 유적은 12세기부터 나타나며, 14세기에 가장 활발하게 분포하고 있다. 유적은 용도에 따라 생산 유적인 가마터와 소비 유적인 사지寺址, 건물지(주거지), 분묘 등으로 구분된다. 소비 유적은 (1)~(8)의 유적으로 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물지 유적인 (1) 반구동 유적과 연관된 출토 자기는 고려청자 74점, 상감청자 11점, 분청사기 38점 백자 33점 등이 출토되었다. 기종은 뚜껑, 발, 완, 접시, 잔 병, 제기, 연적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중국 자기가 나타나는데 이는 중국과 교역의 산물로 볼 수 있다. 이는 관청

이나 주거지 유적으로 분류된다. 주거지 유적인 (2) 연자도 유적에서는 다량의 고급 청자가 출토되었으며 그 기종도 다양하다. 사지 유적에 속하는 (4) 운흥사지 유적에서는 11세기 경 청자 접시와 12세기 청자 잔탁을 비롯하여 14세기까지의 청자가 나타나며 15세기 이후의 분청 접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까지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5) 범어유적을 비롯하여 (8) 울산 옥동 산91-9번지 유적 등은 고려시대 분묘 유적으로서 출토된 청자 수는 많지는 않으나, 생산 유적인 가마에 비하여 다양한 기종의 고급 청자가 출토되었다. (9) 울주 천전리 진현·압골 유적을 비롯하여 (10) 울주 삼정리 유적은 청자 및 자기를 직접 생산한 가마가 있는 생산 유적으로서 다량의 청자, 자기 및 청자편, 자기편 등이 출토 조사되었다. 이중 울주 삼정리 유적 청자 가마터⁵⁾와 울산 천전리 진현·압골 유적 청자 가마터,⁶⁾ 반곡리 유적 청자 가마⁷⁾를 중심으로 가마 유적의 특징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5) 울주 삼정리 유적 청자 가마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215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한국도로 공사의 부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구간에서 확인된 유적으로 가마는 북쪽의 해발 83.8m 구릉 남쪽 사면의 말단부에 위치한다. 서쪽의 소계곡과 인접해 있으며 유적의 남쪽에는 남천이 서에서 동으로 흐르고 있다. 가마는 암반을 파서 만든 반지하식 터널형 가마로 가마의 규모는 잔존 길이 600m, 너비 140m, 깊이 10~80m이다. 연소실은 평면 형태가 타원형에 가까우며 소성실은 장타원형이다. 가장 아래쪽에 불을 지피는 화구가 있는데, 화구에 사용되었던 돌과 불을 지핀 후 입구를 막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폐쇄석도 함께 확인되었다. 연도부와 소성실의 일부가 파괴된 상태이나 울산 지역 발굴 조사된 청자 가마 중에서 구조가 가장 잘 남아 있다. 폐기장은 가마의 동쪽에 인접한 자연 계곡부를 이용하였다. 울산문화재연구원, 『울산 삼정리 유적』, 2007 ; 김경화, 「울산 지역 청자문화 -청자가마를 중심으로-」 『울산 청자·분청사기 그리고 백자를 굽다』, 울산대곡박물관, 2014, 159~176쪽 참조.

6) 울산 천전리 진현·압골 유적 청자 가마터는 울주 대곡리 반구대암각화진입로 화포장공사 구간 내에서 확인된 유적으로 가마는 반구대 진입도로의 북쪽의 해발 161.7m 구릉 남사면의 말단부에 위치한다. 남쪽의 해발 204.1m 구릉과 구릉 사이의 계곡부와 인접한 곳이다. 기와 가마의 규모는 지름 140m, 깊이 55m로 연소실은 암반을 파서 만들었고 편평 형태는 원형이다. 가마의 소성실과 연도부는 경작과 소로 개설 공사에 의해 파괴된 상태였고, 가마에 떨어진 연소실과 자연곡부를 이용한 폐기장이 확인되었는데 폐기장의 규모는 너비 420m, 깊이 30m정도이다. 유물은 주로 폐기장에서 출토되었다. 울산문화재연구원, 『울산 천전리 진현·압골 유적』, 2005.

7) 반곡리 유적 청자 가마는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산 72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가마

<표 2> 울산 지역 청자 가마 출토 청자 기종 현황

유적명	발	접시	병	개	옹	잔탁	기타	합계(점)
삼정리 유적	44	87	-	1	-	6	7	145
진현·압골 유적	86	46	-	-	1	-	18	151
반곡리 유적	60	27	6	1	1	1	21	117

<표 3> 울산 지역 청자 가마 출토 발과 접시 유형별 주문양

유적명	구분	A형	B형 (1형/2형)	C형
삼정리 유적	발	-	-	-
	접시	-	-	-
진현·압골 유적	발	-	사원문, 여의두문, 이중원문, 접문, 변형당초문, 연주문, 초문, 뇌문	연주문, 사원문, 파문, 초문, 외문, 변형당초문
	접시	-	횡선문, 사원문, 여의두문, 변형초문	횡선문
반곡리 유적	발	육원문, 초문, 연판문	육원문, 초문, 소국화문, 당초문, 여의두문	연판문, 육원문, 처문, 소국화문

는 남서쪽으로 뻗어 내린 구릉 하단부 해발 114m ~ 118m에 입지하는데, 묘약과 경작지 조성으로 인해 많이 훼손되었다. 가마는 동요인데 연소실, 소성실 바닥과 벽체만 잔존한다. 가마의 잔존길이는 16.25m, 너비는 180m, 깊이는 25m~104m이다. 소성실은 탄이 여러 개 있는 다실의 구조이며, 초벌구이 칸을 포함하여 7칸으로 보고되어 있다. 한 칸의 길이는 대략 210m내외이다. 연도에 접해 있는 소성실은 초벌구이 칸으로 판단된다. 소성실 전체 규모는 길이 14.25m너비 150m~180m, 깊이 25m내외이다. 가마의 남쪽에 접해서 폐기장 I이 남동쪽으로 약 7m 떨어져 폐기장 II가 위치한다. 한편 유적의 실제 장소는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직동리 유적 혹은 직동리 가마터로 명하는 것이 타당하나 비교 유적과의 통일성 등을 고려하여 보고서명인 반곡리 유적으로 칭하기로 한다. 울산발전연구원, 『울주 반곡리 유적』, 2006 ; 김경화, 「울산 지역 청자문화 -청자 가마를 중심으로-」 『울산 청자·분청사기 그리고 백자를 굽다』, 울산대국박물관, 2014, 참조.

		당초문			파문
	접시	-	여의두문, 연판문, 초문, 변형당초문	연주문, 국화문, 여의두문, 파문, 육원문, 삼원문, 변형당초문	-

<표 4> 울산 지역 자기유적의 시문과 기법

	유적명	명문	시문	기법	도판	시대
(1)	울산 삼정리 유적	-	-	-		12세기 이후
(2)	울산 천전리 진현·압골 유적	-	횡선문 사원문. 여의두문, 변형당초 문	상감, 인화		14세기 이후
(3)	울주 반곡리 유적	사선 (司膳)	모란당초 문, 국화문, 사원문, 육원문, 여의두문	상감, 인화		14세기

<표 2>, <표 3>, <표 4>를 토대로 울산 지역 가마 유적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울산 지역의 청자 가마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는 기종은 세 유적 모두 발과 접시라는 점이다. 다만 삼정리 가마터에서 다른 지역과 보다 잔탁이 다수 출토되었다는 점과 녹청자(綠靑瓷)⁸⁾라 불리는 초기 조질 청자가 출토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또한 소비 유적에서 양

8) 녹청자는 유색에 녹색 외에 갈색 등의 색이 섞여 있고, 태토의 질이 조잡하여 유약에 잡물이 섞여 그릇의 표면이 고르지 못한 청자를 이르는 말이다. 울산대곡박물관, 『울산 청자·분청사기 그리고 백자를 굽다』, 2014, 18쪽.

질의 청자가 출토된 것과는 다르게 마상배 등의 고급 자기나 갑발 등 고급 자기 생산을 위한 받침이 출토된 예가 없다. 이를 볼 때 울산지역에서 나타나는 고급 청자는 생산물이 아닌 교역의 산물인 것으로 보인다.

삼정리 유적에서 출토된 청자는 문양이 시문 되지 않았다. 진현·압골 유적은 소문자기가 대부분이며 B형과 C형에만 시문 되었고 1단만 시문 된 것이 많다. 문양 중에 변형당초문, 이중원문, 점문, 사원문은 이 유적 가마에서 출토되는 자기에만 시문이 되고 있다. 명문은 출토된 바가 없다. 점시도 내저면에는 문양이 없으며 내외면에 횡선문으로 문양대를 구획하고 그 내부에 주문양이 단순하게 시문 되어 있다. 특히 진현·압골 유적에서는 상감기법의 시문이 많고, 인화기법도 있으나 매우 단순하며 극히 일부 한정적이다. 반곡리 유적에서 출토된 자기는 모두 문양이 시문 되어 있다. A·B형은 주문양이 1단으로 시문 된 예가 많고, C형은 2-3단에 걸쳐 시문 된 예가 많다. 이 유적에서는 ‘사선(司膳)’⁹⁾, ‘□선(□膳)’ 등의 명문 자기가 출토되었다. 점시에서도 ‘흥興’, ‘경흥(慶興)’, ‘장(長)’, ‘장흥(長興)’, ‘부장흥(府長興)’, ‘장흥고(長興庫)’ 등의 다양한 명문 자기가 많이 출토되었다.

그 밖의 특징으로 기형에 약간의 변화를 보이는데 특히 진현·압골 가마에서는 8개 면을 이루는 팔각 점시가 다량 출토되었다. 후기 반곡리 출토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팔각 점시는 특정 시기에만 유행하는 기형¹⁰⁾으로 볼 수 있다.

울산 지역에서 출토된 유적을 용도에 따라 크게 생산 유적과 소비 유적으로 나누어 분석 본 결과,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울산 지역에서 출토되는 청자는 12세기~14세기에 걸쳐 분포한다. 둘째, 주거지나 사지 등 울산 지역 자기 소비 유적에서는 양질의 청자가 출토되었다. 그러나 이는 울산 지역 가마 유적에서는 출토되지 않는 것을 볼

9) 박경자는 조선이 개국한 1392년에서 공납용 자기의 관사이름을 표기하도록 조치한 1417년 사이에 제작된 관사명 자기가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사선(司膳)’명 청자의 제작기간을 1272~1420년 경 사이로 보고 있다. (『朝鮮 15世紀 磁器貢納에 관한 研究』, 충북대학교 박사논문, 2009, 106~107쪽.)

10) 김정화, 「울산 지역 청자문화 - 청자 가마를 중심으로-」 『울산 청자·분청사기 그리고 백자를 굽다』, 울산대곡박물관, 2014, 159~176쪽 참조.

때 교역의 산물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울산 지역 가마 유적 생산자기는 조질의 발과 접시가 대부분을 이룬다. 넷째, 울산 지역에는 특정 시기에 유행한 자기가 출토되었다.

지금까지 울산 지역의 자기 유적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러한 특징들이 울산 지역만의 문화인지 고려하기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등을 알기 위해서는 이 시기에 인근 지역의 가마 유적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유사 시기의 인근 가마로는 기장의 대룡 유적,¹¹⁾ 양산의 화제리 지라 유적¹²⁾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인근 지역의 가마터와 비교해 그 특징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¹³⁾

<표 5> 울산 지역 인근 지역의 가마유적 특징 비교

유적지역	울산	양산	기장
가마위치	북쪽 해발 161.7m구릉 남사면 말단부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지라마을 낮은 구릉	대룡 마을 인근 구릉 정상
주종	대접, 접시	대접, 접시	대접, 접시
주문양	무문, 사원문, 여의두문, 이중원문, 점문, 변형당초문 등	무문, 연당초문, 육원문, 우점문 등	무문, 연당초문, 노문, 운문, 기사(己巳), 경오(庚午), 임신(壬申), 계유(癸酉), 갑술(甲戌), 임오(壬午), 정해(丁亥), 을미(乙未) 명문 등
기종특징	팔각접시	-	팔각접시
추정시기	14세기 ~	14세기 중 후반	12 ~ 13세기

11) 허선영, 「14~15세기 부산 기장지역 도자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논문, 2007, 108쪽.

12) 최영문, 「고려 후기 낙동강 이동의 상감청자 연구 -울산·부산·양산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논문, 2016, 재인용.

13) 인근 지역의 유적 비교는 유사시기 등을 고려하여 울산 지역의 울주 천전리 진현·압골 유적, 기장 대룡 유적, 양산 화제리 지라 유적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기존에 제시된 울산 지역의 유적과도 비교한다.

<표 5>을 볼 때 세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성은 출토된 자기의 주종이 대접과 접시인 점이다.

또한 울산 지역 유적과 비슷한 시기의 기장 대룡 유적지에서 팔각접시가 나타난다는 점으로, 특정 지역에 팔각접시를 소비하는 수요계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도판 1> 울주 진현·압골 유적 및 기장 대룡 유적 출토 팔각 접시

울주 진현·압골 유적 출토팔각접시		기장 대룡 유적 출토 팔각 접시	
			

울산 지역 가마 유적의 특징이 인근 지역에서 비슷하게 나타난다. 특정 시기에 특정 기종을 소비하는 수요 계층이 있었다는 점은 시기의 유통, 소비 등 경제상을 이해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따라서 울산 지역 자기의 생산, 소비 유적지에 나타는 특징을 통해 울산 지역 자기의 수요 양상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3. 울산 지역 자기의 수요 양상

울산 지역 가마의 여러 특징은 인근 지역 유적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는 이 시기의 유통, 소비 등 경제상을 이해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따라서 울산 지역 자기의 생산, 소비 유적지에 나타는 특징을 통해 울산 지역 자기의 수요 양상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울산 지역에서 출토되는 청자는 12세기~14세기에 걸쳐 분포하며, 조

질의 발과 접시가 대부분을 이룬다. 이는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여 장인들의 유망으로 인한 민영 수공업의 발달과 전쟁, 왜구 침입 등으로 인한 자기 수요의 증가 등의 측면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중앙과 지방은 사회적·경제적으로 발전의 격차가 컸으므로 중앙이 전국을 일률적으로 통제할 수 없었다. 소(所)라는 특수 행정 단위로 묶고 생산을 담당하는 주민을 잡척으로 분류하여 국가의 수취망에 편제 시켰다.

고려 전기까지 소는 성이나 지방 호족 휘하의 소공업(所工業) 단지로 존재했을 것이다.¹⁴⁾ 소는 군현제가 완비된 현종(顯宗) 대에 이르러 지방제도에 편입되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광산물, 수산물, 특수 농산물, 수공업 제품 등의 주요 물자 생산지를 소(所)로 편제하여 별도의 수취 체제를 마련하였다.¹⁵⁾ 소는 전문적으로 특정 공물 생산을 하도록 설정된 곳이었던 만큼 그 공물의 액수 자체가 늘 과다했을 것이다. 게다가 소민들은 빈번하게 부과되는 별공(別貢)을 위해서도 매번 지속적으로 동원되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소민들은 농민이라기보다 모두 장인으로 인식되었을 정도이다.¹⁶⁾ 이러한 과도한 공물에 따라 소민의 불만은 커져갔으며 소민이 도망가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료를 검토해 보자.

나) 예종(睿宗) 3년(1108) 2월 관하기를, “경기(京畿)의 주현(州縣)에는 상공(常貢) 이외에도 요역(徭役)이 번거롭고 무거워 백성들이 이를 괴롭게 여겨 날로 점차 도망치고 유망하고 있다. 주관하는 관청에서는 계수관(界首官)에 그 공역(貢役)의 많고 적음을 물어 참작하여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동소(銅所)·철소(鐵所)·자기소(瓷器所)·지소(紙所)·묵소(墨所) 등의 여러 소(所)에서 별공(別貢)으로 바치는 물건들을 너무 과중하게 징수하여 장인(匠人)들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여 도피하고 있으니, 담당 관청으로 하여금 각 소에서 별공과 상공으로 바치는

14) 홍희유, 『조선 중세 수공업사 연구』, 지양사, 1989, 120~121쪽.

15) 이정신, 「철소 운영으로 본 고려시대 제철 수공업」 『철 세계를 정복하다』, 2015, 3쪽.

16) 서성호, 『高麗前期 手工業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7.

공물의 많고 적음을 참작하여 다시 정하여 아뢰어 재가를 받도록 하라.”라고 하였다.¹⁷⁾

이 시기 과도한 공납의 납부 등은 소민들과 장인의 불만을 낳았고 유망하는 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소민들은 생계를 위하여 전국 각지에 흩어졌는데 특히 자기소 장인의 유망은 12세기 중 후반 이후 지방 수요를 위해 많은 가마들이 생겨나게 했다. 동시에 민간 수공업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다양한 질의 청자 생산을 가능하게 하였다.

13세기 이후 전쟁 물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가마와 관련이 깊은 각종 물자가 제한됨에 따라 다소 쇠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나라와 강화를 맺으며 본격적인 원의 간섭이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시작된 원의 수탈로 인해 동을 비롯한 각종 금속원료가 부족하게 되었다.¹⁸⁾ 당시 원은 고려에 많은 공물을 요구하였는데 그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동궤이다. 당시 원이 요구한 동의 양은 상당하였고 지속적인 헌납을 요청하였다. 고려는 원의 요구를 충당하기 위해 관리들과 백성들에게 낫쇠와 동으로 만드는 그릇을 공수하는데 이르렀으며 이에 많은 금속을 거둬들여 일반 민가에서 사용할 그릇조차 줄어들게 되었다. 결국 공양왕 3년에 이르러 동기(銅器)와 철기(鐵器) 등 금속기 사용을 제한으로 자기와 목기 사용을 권장하게 되었고,¹⁹⁾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즉 몽고군의 침입으로 인하여 동기 제작이 어려워짐으로 인하여 고려 조정에서는 도기와 자기의 사용을 이에 따라 자기 수요량이 급격히 늘게 되는데 이는 자기의 질적 하락을 가져온다. 이후 원간섭기에 자기의 질적 하락을 막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²⁰⁾ 간지명(干支銘)²¹⁾이 청자가 출토된다.

17) 『高麗史』, 卷78, 食貨1, 貢賦.

18) 『高麗史』 卷 23, 世家 23, 高宗 18年 ; 『高麗史』 卷 79, 志 33, 食貨2, 科斂.

19) 『高麗史節要』 卷 21, 忠烈王 13, 下 4月.

20) 허선영, 「14~15세기 부산 기장지역 도자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논문, 2008, 79쪽.

21) 간지명의 청자의 제작시기에 관해서는 13세기~14세기 전·후반에 걸쳐 학자마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박경자의 연구를 따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작시기와 관련하여 구일희와 이희

14세기 후반에 급증한 왜구 침입 등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전쟁 및 약탈에 따라 민들의 생활용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시대상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울산 지역은 삼국시대부터 신라의 배후 관문으로서 경제와 지식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²²⁾ 하였고, 고려의 건국 이후에도 해상 무역을 통해 경제력이 한동안 유지되었다. 철소, 염소, 자기, 도기, 농소 등을 통한 특산물의 생산과 풍부한 해산물을 기반으로 울산항을 통한 상업 활동이 활발하게 유지되자 주요 침탈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왜구 침입은 삼국시대부터 지속되다가 14세기 가장 심하게 나타났다. 울산 지역은 해안에 접해 있어 고려 말 잦은 왜구 침입²³⁾을 받았다. 경인년 이후 왜구의 침구는 고려 사회 전체를 위협할 만큼 많은 폐단을 가져왔다. 특히 남해안 연안 등에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되었다.²⁴⁾ 그러므로 해안에 위치한 울산 지역과 인근 지역은 말할 것도 없이 그 피해가 막심했을 것이다. 우왕 5년에 이르면 왜구의 침입이 극에 달하자 울산 지역은 텅 빈 고을이 될 정도로 그 피해가 심각하였다. 이는 고려시대 문신 이첨(李詹)이 남긴 <고읍성기(古邑城記)>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첨의 기(記)²⁵⁾에 따르면 갑자년에 성균사예(成均司藝) 이문화(李文和)가 경상도를 순시하며 계변성에서 제사를 지내고 돌아갈 때 계림부윤(鷄林府尹) 박위(朴葦)에게 말하길 그의 아버지가 울산을 다스릴 때는 울산의 은부(殷富)함을 보였는데 지금 오니 훼손되어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 되어 새로 쌓고자 했다. 박위가 경상도 도순문사가 되며

관은 13세기 전후로, 윤용이와 한성옥은 14세기 전후로 보았다. 구일회, 「고려시대 상감청자대접의 편년연구-간지명이 있는 접시들을 중심으로」 『미술자료』54, 국립중앙박물관, 1994 ; 이회관, 「고려 후기 기사명 청자의 제작년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미술사학연구』217·218, 1998 ; 윤용이, 『한국도자사연구』, 문예출판사, 1933 ; 한성옥, 「고려 후기 청자의 기형 변천」 『미술사학연구』232, 2001.

22) 최연주, 「14세기 왜구의 경상도 侵寇과 書籍 간행」 『일본근대학연구』35, 2012, 153~174쪽.

23)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울산광역시사』(역사편), 울산광역시, 2002.

24) 『高麗史』 卷 114, 列傳 26, 崔瑩傳.

25)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2, 慶尙道, 蔚山郡, 古跡條 ; 울산광역시문화원연합회, 『역주 울산지리지 I』, 2014, 132~135쪽.

그의 도움을 받아 1385년 2월에 읍성 쌓기를 완성했으며, 신사를 수리해 제사를 지내고 관청도 새로 지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울산 지역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어 폐허하여 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경상도도순문사(慶尙道都巡問使) 박위의 도움으로 같이 새로운 읍성을 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부터 울산 지역에 사람들이 다시 살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사람들이 다시 생활하면 생활용품의 사용이 급증하였을 것이다. 전쟁과 왜구 침구로 소실된 생활용기의 필요함에 따라 도자기 수요가 증가하였고, 민간에서 직접 만들어 공급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민간의 도자기 수요 증가는 그러나 질 좋은 자기를 대량으로 만드는 것에 한계를 가져왔다.

조선시대의 기록이기는 하나 울산 지역의 자기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1) 자기소磁器所가 1, 도기소陶器所가 1이니, 모두 군 북쪽 제여담리齊餘沓里에 있다. 【하품이다】²⁶⁾
- 2) 자기소磁器所가 1, 도기소陶器所가 1이니, 모두 현 남쪽 대토리大吐里에 있다. 【하품이다】²⁷⁾
- 3) 모두 고을 남쪽 장안리 고개에 있다. 품질은 하품이다.²⁸⁾
- 4) 고을 안 웅곡리와 고을 남쪽 대토리에 있다. 도기陶器 품질은 하품, 자기瓷器 품질은 중품이다.²⁹⁾

위 사료와 같이 울산의 자기소에서 하품의 자기들이 생산되었다는 기록 등은 이러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연자도 유적, 운흥사지 유적 등 주거지나 사지 유적과 지배층의 분묘 유적인 범어 유적에서는 고급 자기가 출토되었다. 또한 생산 유적인 진현·압골 유적에서는 특정 시기 유행한 자기가 출토되었다.

26) 『世宗實錄』, 卷 150, 地理志, 慶尙道, 慶州府, 蔚山郡.

27) 『世宗實錄』, 卷 150, 地理志, 慶尙道, 慶州府, 彦陽縣.

28) 『慶尙道續撰地理誌』, 蔚山郡.

29) 『慶尙道續撰地理誌』, 彦陽縣.

이는 이를 소비하는 계층이 존재하였음을 알게 한다. 고급 청자 등의 소비 계층은 지역의 토호 또는 토착 세력들로 추정된다. 또한 울산에서 고급 자기의 생산 유적이 없는 것을 볼 때, 이는 교역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신라 하대 이후 경주에서의 권력투쟁으로 구심력을 급속히 잃고 곧 이어 지방을 무대로 한 귀족과 농민의 잦은 반란에 직면하게 된다. 이렇게 지방에 대한 신라 왕권의 통제가 느슨해지면서 일찍이 국가의 대외활동을 위해 왕권하에 조직된 해민(海民)들이 자율적 활동을 시작하고 또 이러한 움직임에 호응하는 집단도 형성되었다.³⁰⁾ 즉 배후에 일정한 생산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한 무역통교를 위해 해적 및 내륙의 적을 방어할 수 있는 일정한 군사력을 구비하고 있는 존재인 해상 세력들이 무역을 장악하였다. 울산항이 경주의 외항으로서 활발한 국내외 무역의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었고 또 전국의 조세의 일부가 이곳을 통해 경주로 들어갔던 점을 염두에 두면, 해상교역의 장악을 생각할 수 있다.³¹⁾

이와 관련하여 울산 지역에는 박윤웅(朴允雄)이 강력한 호족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는 군사력 우열과 직결된 달천 광산과 울산항의 무역 이윤을 장악함으로써 독자적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다.³²⁾ 박윤웅은 신라가 멸망하자 자신이 구축해온 세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려로 귀부하였다. 고려는 귀부한 호족들에게 귀부에 대한 반대급부로 호족들이 지배하던 세력 권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방제도로서 주州·부府를 설

30) 이성시, 「경사 교역에서 대재부 교역으로」 『동아시아의 왕권과 교역』, 청년사, 1999. 김용범 위 논문 재인용, 37쪽.

31) 김용범, 위 논문, 39쪽.

32) 한편 경주와 인근에 있는 울산에서 독자적인 지방 세력이 성장하였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견해도 있다. 처용으로 상징되는 울산의 집단은 경주의 특정 귀족의 통제에 놓여 있으면서, 해상활동에 종사하는 존재가 아니었나 한다. 현강 왕대 이후 중앙의 권력이 급속도로 붕괴되면서 점차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하여 박윤웅 단계에 오면 신학성장군(神鶴城將軍)으로 자칭(효공왕 1년, 901)할 만큼 독자적 세력을 구축하였다고 보여진다. 수도 경주와 울산의 단절은 자연히 울산 박씨로 하여금 독자적 생산지의 확보에 주력하게 하였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정용범 『고려전·중기 유통경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39쪽.

치하는 한편, 호족 자신에 대해서는 공신(功臣)³³⁾으로 책봉하거나 원윤(元尹) 이상의 관계(官階)를 수여하고 녹읍(祿邑)을 지급하였다.³⁴⁾ 박윤웅은 귀부와 함께 농소의 채지와 유포의 곽암을 받았다고 전하는데 다음 사료와 같다.

아) 고려 태조가 그 고을 사람 박윤웅(朴允雄)이 공이 있다 해서 동진(東津)과 우풍(虞風)의 두 고을을 가져다가 합쳐서 흥려부(興麗府)로 승격시켰다가 뒤에 낮추어서 공화현(恭化縣)을 만들었다. 또 지울주사(知蔚州事)로 고쳤으며, 현종(顯宗)이 방어사를 두었다.³⁵⁾ 태조는 귀부한 박윤웅(朴允雄)을 삼한공신(三韓功臣)에 봉하는 한편 농소를 채지로 하사하고 더불어 유포의 곽암 12구를 하사하였다.³⁶⁾

박윤웅은 곽암 등을 경제 기반으로 하여 울산 지역의 호족으로서 그 위치를 공고히 해갔으며 앞선 울산항 등 무역을 통해 경제적인 활동을 하였다. 이를 볼 때 박윤웅과 같은 경제적 부가 있는 호족이 자기소를 운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박윤웅이 고려시대 자기소(瓷器所)를 직접 운영하였던 기록이나, 근거를 찾을 수 없음으로 추론할 뿐이다. 그러나 울산 지역의 생산 가마가 모두 박윤웅의 주 무대였던 울주군에 있다는 점 등의 추론을 통해서 박윤웅 혹은 그와 비슷한 세력을 가진 호족이 있었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이는 고려 후기 박구(朴球)라는 인물을 소개할 때 울주(蔚州) 소속의 부곡인(部曲人)으로, 그의 조상은 부유한 상인이었다고 한 기록을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박구는 조상들의 자산을 바탕으로 세상에서 대단한 부자로 알려졌고, 이러한 재력을 바탕으로 원종 때에 상장군에까지 올랐다.³⁷⁾ 박구의 경우 그의 조상들은 울주를 중심으로 부를 축적하였던 상인들로 생각해 볼 수 있

33) 김광수, 「고려태조의 삼한공신」 『사학지』7, 1973, 35~72쪽.

34) 구산우, 「羅末麗初의 蔚山地域과 朴允雄 : 藿所의 기원과 관련하여」 『한국문화연구』5, 1992, 35쪽.

35) 『新增東國輿地勝覽』卷 22, 蔚山郡, 形勝條.

36) 송수환, 『울산의 역사와 문화』, 울산대학교출판부, 2007, 135쪽.

37) 『高麗史』권104, 金方慶 附朴球傳.

다.³⁸⁾ 또 지배계층으로 분묘로 추정되는 범어유적이 울주군에 위치한다는 점을 볼 때 이 지역을 지배하는 계층이 자기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본다.

그리고 사지 출토된 고급 청자의 경우, 그 사격(寺格)을 가름할 수 있다. 고려시대 사원은 고급 청자의 주 소비처이기도 하였다. 각종 의식구(儀式具)를 비롯하여 공양구(供養具) 등이 다양한 자기로 제작 유통되었을 것이다. 고급 자기를 운흥사에서 직접 구입하기도 하였으나, 경우에 따라 단월(檀越)이 존재하여 보시(報施)를 통해 시납(施納) 받았을 것이다. 운흥사지에서 출토된 고려청자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운흥사지 출토 청자 기종 현황

유적명	발	접시	병	개	옹	잔탁	기타	합계(점)
운흥사지유적	4	6	-	1	-	2	-	14

출토된 기종은 대접, 접시, 잔탁의 등이 확 인되며 기종을 볼 때 실제 의식구나 공양구 등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 시기의 것은 백색내화토빛음, 모래섞인 내화토빛음을 받쳤으며 규석을 받친 고급 품도 출토된다.³⁹⁾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울산 지역에서는 고급 청자를 생산하는 가마터가 조사되지 않았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울산 지역 출토된 고급 청자는 그 생산지인 강진 및 부안과 직접 교역을 통해 구입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운흥사지에서 출토된 잔탁은 몸체와 전 사이에 깊은 홈이 파여져 있는데, 동일한 형태의 잔탁이 강진 용운리 10호-1층과 삼흥리요지에서 확인된다.⁴⁰⁾

이와 관련한 내용은 추후 자기 관련 유적이 확대되고, 출토 자기에 대한 분석이 심화된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8) 정용범, 위 논문, 195쪽.

39) 강정미, 『慶南地域 寺址 출토 高麗靑磁의 편년과 특징』,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08, 8쪽.

40) 강정미, 위 논문, 23쪽.

이상에서 당시 시대상을 통해 울산 지역 자기의 수요 양상을 살펴본 결과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울산 지역의 자기 문화는 고려시대 지방으로 청자가 확산되는 12~13세기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울산 지역에서 생산된 자기는 특정 계층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몽항쟁 등 전쟁과 왜구 침입 등의 일련의 상황 속에서 일반 민들의 생활 용기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고려시대 울산의 민간수공업의 발달 형태나 무역 형태 변화 등을 엿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자도 유적, 범어유적, 운흥사지 유적 등에서 나타난 고급 자기 등의 출토를 통해 사원이나 고급 자기를 소비할 수 있는 특정 지배층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는 강진 및 부안 등에서 무역을 통해 구입하였을 것이다.

5. 맺음말

자기(瓷器)는 인류 생활 속에서 오랫동안 생활용기로서 사용되었다. 그 제작 과정이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제작 당시의 수공업 체계 및 기술사적 의의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자기 판매와 유통 구조를 통해 상업 체계를 엿볼 수 있어 당시 사회상과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고는 고려시대 울산 지역의 자기 생산과 소비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았다. 고려시대 대표 유물이라 할 수 있는 청자는 전남 강진과 전북 부안 등 서남해안 지역이 중심이 되었다. 이에 일반적으로 한반도 동남해안에 위치한 울산 지역은 청자의 생산과 소비 등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발굴조사를 통해 울산 지역에는 다양한 유적지에서 청가 가마 등 자기 유적지가 출토되었다. 유적지를 다각도로 분석해 본 결과 울산 지역 자기 생산의 변화 양상과 특성, 소비 형태의 변화 등 그 양상을 알 수 있었다.

울산 지역에서 출토 조사된 청자, 청자 가마 등 편년은 대체로 12세기에서 14세기에 걸쳐 분포하였다. 출토된 청자의 주 기종은 발과 접시이다. 이는 12세기 장인들의 지방으로의 유망으로 민영 수공업이 발달함과 더불어 대몽항쟁 등 전쟁과 왜구 침입 등 국제 정세에 따라 민들의 생활용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시대상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주거지나 사지 유적, 지배층의 무덤 등에서 출토된 고급 자기나, 특정 시기 유행한 자기 등의 출토를 통해 이를 소비하는 특정 계층이 존재하였음을 알게 한다.

고급 청자 등의 소비 계층은 지역의 토호 또는 토착 세력들로 신라 수도였던 경주에 인접해 있으면서 무역 등을 통해 부富力를 축적해 놓은 것이 토대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울산 지역은 지금까지 강진, 부안 등과 달리 청자 문화와 연관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그 연구가 미흡하였다. 그러나 청자 이후에도 조선 시대 분청에 이르기까지 자기 문화와 연관이 많다. 울산 자기 생산과 소비 양상에 대한 연구는 울산 지역 상수공업을 이해하는 지표로서 매우 중요함으로 더욱 연구될 필요가 있다. 현재에도 지속적인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새로운 유적의 발굴 등을 통해 지속적인 연구가 계속될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사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高麗圖經』, 『慶尙道地理志』, 『慶尙道續撰地理誌』,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掾曹龜鑑』, 『蔚山朴氏族譜』

2. 저서

박경자, 「高麗 末・朝鮮 初 貢納用 磁器의 製作背景」 『高麗陶瓷新論』, 學研文化社, 2009.

송수환, 『울산의 역사와 문화』, 울산대학교출판부, 2007.

윤용이, 『우리 옛 도자기의 아름다움』, 돌베개, 2007.

3. 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울주 대곡리 반구대암각화 발굴조사보고서』, 2015.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운홍사지발굴조사보고서』, 2003.

울산대학교박물관, 『울산 범어 유적』, 2000.

_____, 『울산 달천 유적』, 2000.

울산문화재연구원, 『울산 천전리 진현·압골 유적』, 2005.

_____, 『울산 삼정리 유적』, 2007

울산발전연구원, 『울산 산하동 화암 유적』, 2011.

_____, 『울산 서동 유적』, 2013.

_____, 『울산 옥동 산 91-9번지 유적』, 2016.

_____, 『울산 용연동 고려시대 분묘 유적』, 2013.

_____, 『울산 중산동 이화유적Ⅱ』, 2016.

_____, 『울산 태화루 부지 유적』, 2010.

_____, 『울산 학성동 유적』, 2005.

_____, 『울주 교동리 유적』, 2004.

_____, 『울주 구영리 유적』, 2007.

_____, 『울주 반구동 유적』, 2006.

_____, 『울주 반곡리 유적』, 2006.

_____, 『울주 반천리 유적』, 2013.

_____, 『울주 연자도 유적』, 2012.

- _____, 『울주 천전리 진현·압골 유적』, 2005.
_____, 『울주 활천리 열백들 유적』, 2010.
부산박물관·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 상장안 유적』, 2011.
황창한·박찬문, 『蔚山梅谷洞新基遺蹟-3』, 2007.
한국문화연구원, 『蔚州 直洞里·西河里·人甫里·活川里 遺蹟』, 2015.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울산 고지평 유적』, 2004.

4. 도록

- 울산대곡박물관, 『울산 청자·분청사기 그리고 백자를 굽다』, 울산대곡박물관,
2014.

5. 국내논문

- 강정미, 「경남지역(慶南地域) 사지(寺址) 출토 고려청자(高麗靑磁)의 편년과
특징」, 『文物研究』, 2008.
김광수, 「고려태조의 삼한공신」 『사학지』7, 1973.
김경화, 「영남지역(嶺南地域) 고려묘(高麗墓) 출토 청자에 대한 편년(編年) 연
구」, 경상대학교 석사논문, 2005.
박경자, 「14세기 당진(康津) 자기소(磁器所)의 해체와 요업체제의 이원화」, 『美
術史學研究』, 2003.
서수민, 「고려말·조선초기 도자수공업(陶瓷手工業)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논문,
2012.
이성시, 「경사 교역에서 대재부 교역으로」 『동아시아의 왕권과 교역』, 청년사,
1999.
정용범, 「고려 전·중기 유통경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2014.
최영문, 「고려후기 낙동강 이동의 상감청자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논문, 2016.
허선영, 「기장 장안리 상장안 자기요지의 편년 연구」 『문물연구』18, 2010.

【Abstract】

**Production and Demand Patterns of Pottery in Ulsan
the Goryeo Dynasty**

Park Joo Hyang

Pottery is closely related to human life and is used as a container for various objects, giving a glimpse into society and life. In addition, high-tech production and demand can be very important indicators for understanding the living conditions of local commerce and industry.

Research on celadon, a representative relic of the Goryeo Dynasty, has been intensively discussed on relics and remains in certain areas of the southwest coast, such as Gangjin and Buan. In general, it was thought that the Ulsan area, located on the southeast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wa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celadon.

However, the remains of celadon and other ceramic kilns were excavated from various sites of the Goryeo Dynasty in Ulsan, and if you look at the remains of ceramics and ceramic kilns excavated in Ulsan from various angles, you can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ceramics in Ulsan as well as various socio-economic aspects of the time related to consumption and distribution.

Key-words : Pottery, Celadon, ceramic, Ulsan, Goryeo Dynasty

논문 접수일 : 2023년 12월 10일
심사 완료일 : 2023년 12월 20일
게재 확정일 : 2023년 12월 25일

인문·사회과학 계열 대학생의 사회 인식 조사
- D 대학교를 중심으로

전윤숙* · 이달별** · 윤지영***

【목 차】

1. 서론
2. 20대 남자, 20대 여자 현상에 대한 검토
3.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5. 결론 및 논의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사립대학의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20대 초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전국 단위 분석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20대로 통칭되는 집단 내 차이와 공통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20대 남자』와 『20대 여자』를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경쟁과 공정, 소수자에 대한 수용 정도, 정치적 신념, 성별 차이와 성 역할 차이,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을 D 대학교 인문·사회과학계열 296명의 남녀 학생을 대

* 동의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부교수

***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D 대학교 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교적 신뢰가 높고 경쟁과 능력주의에 우호적이며, 능력주의에 따른 평가도 공정하다고 생각했다. 이는 전반적으로 전체 20대와 유사한 경향이나 동의 비율에 있어서는 D 대학교 학생들이 전체 20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D 대학교 남녀 학생은 전체 20대 남녀보다 공정과 경쟁, 페미니즘과 성차별에 대한 남녀 인식차가 적은 반면, 다양성에 대한 인식은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차이가 존재했다. 전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소수자에 대한 수용도가 낮았다.

【주제어】 인문·사회과학, 20대 남자, 20대 여자, 사회 인식, 지방 대학교

1. 서론

오늘날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차별과 배제, 혐오는 주의를 요한다. 정체성 또는 주체성에 대한 근대적 신념에 뿌리내리고 있는 배제와 차별의 인식은 특히 최근 한국 사회에서 청년 세대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대표적인 것이 ‘이대남’, ‘이대녀’라는 용어로 소환되는 20대 세대 내 젠더 갈등이다. 온라인 여초 커뮤니티인 메갈리아와 남초 커뮤니티 위마드 간의 논쟁으로 촉발되어 강남역 살인사건과 사회 각 분야에서 전개된 미투 운동과 진보 계열로 분류되는 정치인들의 잇따른 성추문 등에 의해 가속화된 페미니즘 이슈가 20대 젠더 갈등의 출발점이 되고, 20대 남성의 보수화로 특징지어지는 있는 이른바 ‘20대 남자 현상(이대남 현상)’이 또 다른 축을 이룬다.

페미니즘 이슈가 당사자인 2030 여성들의 문제 제기로 촉발된 반면, ‘이대남 현상’은 정치권과 언론에서 만든 프레임이라는 인식이 주를 이룬다. 20대 남성들에게 있어 문제인 대통령 지지율이 유독 심각하게 하락한 현상을 놓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2019년 2월에 ‘20대

남성지지율 하락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현안보고서를 작성했으며¹⁾ 같은 해 4월 시사주간지 『시사IN』은 208개 문항으로 대규모 심층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20대 남자 현상’을 살펴본다.²⁾ 이러한 접근은 특정 정권의 지지율 하락을 보수화와 등치로 놓고, 이를 젠더 간 갈등의 문제로 치환한 것이라는 비판을 낳는다.³⁾ 실제로 19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더불어민주당은 N번방 사건을 쫓던 박지현을 영입하는데, 이는 정치권과 언론이 이대남, 이대녀 프레임으로 젠더 갈라치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한 근거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남녀 간의 인식 차이를 부인할 수는 없다. 이를 입증하는 여론조사나 연구 결과도 다수 존재한다. 다만, 20대 남성은 보수적인 반페미니스트로,⁴⁾ 20대 여성은 ‘페미니즘으로 무장한 집단이기주의자’로⁵⁾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을 뿐이다. ‘이대남 현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이들이 정치적으로 보수화되었다는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20대 남자, 그들은 누구인가」도 20대 남자들의 반페미니즘적 정서는 확인할 수 있지만 정치적 보수화 징후는 없다고 결론 내린다. 이 설문의 후속으로 2021년에 시행한 ‘20대 여자’에 대한 설문 결과도 마찬가지다. 이 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 가운데 페미니즘에 우호적인 집단이 존재하며 이들이 20대 여성을 견인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들이 정치적 진보의 무조건적 지지자는 아니다. 요컨대, 페미니즘을 둘러싼 20대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는 존재하지만, 그 외에는 사안에 따라 20대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입장을 취하기

1) 「“페미니즘 무장한 20대 여성은 집단이기주의”라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한겨레신문』, 2019. 2. 27.

2) 천관율, 「20대 남자, 그들은 누구인가」, 『시사 IN』, 2019.04.15

3) 최종숙, 「‘20대 남성 현상’ 다시 보기: 20대와 3040세대의 이념 성향과 젠더 의식 비교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통권 제125호, 비판사회학회, 2020, 193쪽. ‘20대 남성 현상’ 다시 보기: 20대와 3040세대의 이념 성향과 젠더 의식 비교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25 (비판사회학회, 2020),

4) 천관율·정한울, 『20대 남자』, 시사IN북, 2019.

5)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20대 남성지지율 하락요인 분석 및 대응 방안」, 『한겨레신문』, 2019.2.27.

도 하고, 극단적으로 상반된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이러한 착종이 특히 두드러지는 사안은 공정과 경쟁에 대한 인식이다. 한국 사회에서 공정 담론이 눈에 띄게 전면화된 것은 2016년 국정농단이 계기가 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 2020년 인천 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둘러싼 논쟁은 청년 세대에게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그리고 공정성에 대해 얼마나 상이한 인식이 공존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⁶⁾ 무엇을 공정하다고 볼 것인가 하는 공정성 인식은 매우 다면적인 요인이 얹힌 문제로, 이는 공정성 인식이 절대적 가치나 불변하는 진리가 아니라 개개인들이 사회적 과정 속에서 기대치를 형성하는 인지적 과정(cognitive process)이자 담론과 제도의 의해 구성된 산물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공정을 판단하는 기준은 개인이 처한 분배적 상황과 사회경제적 특성, 그리고 개인적 속성에 따라,⁷⁾ 혹은 정치적 지향이나 사회적 정체성에 따라 달라지며, 따라서 젠더나 세대(연령),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도 공정성 인식과 상관성을 가질 수 있다.

개인의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 청년 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공정과 경쟁에 대해 더 우호적으로 생각하거나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 능력이나 노력에 따른 보수 차이를 공정하게 생각한다는 점에 있어 20대 남녀 간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에 반해 대학 입학 저소득층 할당제나 여성 할당제와 같은 소수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에 대해서는 20대 남녀 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즉, 20대 남성은 20대 여성 및 다른 세대 남성에게 비해 적극적 우대 조치에 반대하는 경향이 크며,⁸⁾ 20대 여성은 결과의 불평등에 민감하고, 20대 남성은 기회의 불평

6) 김상태·김성엽·이상엽, 「청년세대는 공정성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인국공 사건’에 나타난 공정성 인식의 테마 분석」, 『한국행정연구』 통권 67호, 한국행정연구원, 2021, 245-277쪽.

7) 구분상, 「능력주의자와 평등주의자: 공정성 인식 유형의 정치학적 실증 분석」, 『한국정치연구』 제32집 제2호(2023)

8) 민희, 「다른 마음: 청년세대와 공정」, 『국제정치연구』 26권 2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3, 230쪽; 천관율·정한울, 위의 책, 114~115쪽.

등에 민감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⁹⁾

이러한 현상은 성별이 사회 현상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 차이를 유발하는 유일한 요인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더해 거주지, 학력, 소득수준, 전공 분야 등도 개인의 신념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를테면, 지역사회는 사회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기존의 상황과 조건을 유지하려 한다는 지방의 보수성에 대한 통념이 존재하며¹⁰⁾ 페미니즘 논쟁과 촛불 혁명을 경험할 때의 연령도 사회 현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가운데 지역 사립대학의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20대 초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지속성장 가능’, ‘더불어 함께 삶’, ‘공정과 윤리’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20대 초반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이에 관한 고등 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간과 문화, 그리고 사회를 전공으로 하는 인문·사회과학 계열 대학생들이 차별과 혐오, 소수자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공공성 및 공정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한 문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은 전국적 규모로 20대 남녀의 인식을 살펴본 『20대 남자』와 『20대 여자』에서 사용한 문항 중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경쟁과 공정, 소수자에 대한 수용 정도, 정치적 신념, 성별 차이와 성 역할 차이,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을 알아볼 수 있는 57개 문항을 선별하였다. 이들 문항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통해 먼저 D 대학교의 인문·사회과학 계열 남녀 학생들의 사회 인식을 확인하고, 이를 20대 후반까지 아우르

9) 우명숙, 남은영, 「공정성 원칙으로서 능력주의와 불평등 인식: 한국과 일본의 비교」, 『아세아연구』 64권 1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21, 201-244.

10) 추주희, 「가족상황 차별인식으로 보는 지역의 보수성 탐색: 지역권역별 세대와 젠더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 제40권 3호,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1.12, 45쪽.

는 『20대 남자』 및 『20대 여자』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2. 20대 남자, 20대 여자 현상에 대한 검토

청년 세대 내 젠더 갈등에 대한 관심은 최근 10년 동안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다. 한편에서는 성별에 따른 이념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고¹¹⁾ 20대 남녀의 성평등 의식 격차가 다른 세대 남녀에 비해 크지 않다는 등,¹²⁾ 청년세대 내 젠더 갈등이 과장되어 전개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러나 그와 상반된 연구들도 많다. 이를 테면, 구직, 낙오, 미래, 범죄 피해, 관계성 불안의 모든 문항에서 청년 여성의 불안도가 높으며, 청년 세대 여성과 남성 간의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이 기성세대에 비해 크고, 청년 남성이 청년 여성에 비해 ‘경쟁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¹³⁾ 부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도 삶에 대한 만족도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성평등 수준, 젠더 갈등의 심각성,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경쟁,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 등에서는 여성과 남성 간 인식 차이가 확인된다.¹⁴⁾

본 연구가 참조하는 『20대 남자』와 『20대 여자』도 20대 청년들이 보이는 뚜렷한 인식의 차이에서 시작되었다. 이 두 저서는 시사주간지 『시사 IN』이 기획한 여론조사와 그에 따른 분석 기사를 심화·확장한 것으로, 『20대 남자』는 2019년에 208개 문항을 18~29세 남녀 500명, 30

11) 박선경, 「젠더 내 세대 격차인가, 세대 내 젠더 격차인가?: 청년 여성의 자기평가 이념과 정책태도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제19권 제2호, 한국정당학회, 2020, 5-36쪽.

12) 최종숙, 앞의 글, 189 - 224쪽.

13) 마경희, 『청년 관점의 '젠더갈등' 진단과 포용국가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

14) 정다운, 옥소연, 「부산지역 2030 청년세대 젠더인식 조사 및 대응방안」,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22. 4

대 이상 남녀 500명에게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한 기사를,¹⁵⁾ 『20대 여자』는 20대 남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지 2년 후인 2021년에 18~29세 남녀 600명, 30~39세 600명, 40세 이상 800명에게 238개 문항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에 대한 기사를¹⁶⁾ 토대로 한다.

이들 연구는 20대 남자와 여자의 서로 대별되는 뚜렷한 경향성을 도출한다. 『20대 남자』는 20대 남자가 세간에서 바라보는 것과는 달리 정치적 보수화의 징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나, 페미니즘에 일관되게 적대감을 갖는 ‘반페미니즘 정체성 집단’이 존재한다고 읽는다. 20대 남자는 스스로를 약자이며 ‘역차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진은 이러한 ‘마이너리티 자의식’을 가진 20대 남자를 ‘반페미니즘 정체성 집단’과 겹치는 것으로 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 마이너리티 자의식을 가진 반페미니즘 정체성 집단이 여자로부터 직접적인 차별을 받는다고 인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남자와 여자가 갈등하는 상황에서 권력이 여성 편을 든다’는 것에 반응하고 분노한다. 즉, 젠더와 권력이 만나는 이슈에 대해 분노한다는 것인데,¹⁷⁾ 이는 결국 젠더 이슈가 경쟁 및 공정성에 관한 문제와 결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공정에 대한 감각은 세대, 성별 불문하고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취업이나 승진 시 여성 할당제와 같은 문제에 젠더와 권력 문제가 개입하면 20대 남자 현상 다시 등장한다. 20대 남성이 보기에, 능력 면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같거나 때로는 남성이 더 유능한데 국가가 여성을 배려하는 것은 불공정한 일이다. 요컨대, 젠더와 권력의 조합은 무엇이 공정한가라는 개념 자체를 재구성할 정도로 강력하게 작동한다. 이는 20대 남녀 간 인식의 차이를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국한해 볼 수 없음을 시사한다. 이 책에서는 이를 ‘병목 사회의 딜레마’로 설명한다. 즉,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불한 것이 내게 돌아오리라는 장기 계약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경쟁 원리가 다른 모든 규범들을 압도하는 ‘병목 사회’가 개인의 능력에

15) 「20대 남자 현상 왜 생겼나」, 『시사IN』 제605호, 2019. 4. 30.

16) 「20대 여자 그들은 누구인가」, 『시사IN』 제728호, 2021. 8. 20.

17) 천관율·정한울, 위의 책, 188쪽.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을 공정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개인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것처럼 보이는 능력 역시 사회구조와 환경의 산물이라는 사실은 소거된다. 이처럼 다양하고 다층적인 맥락이 제거된 ‘납작한 공정’은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둔 호혜적 관계를 마비시키며, 단기 계약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경쟁과 피로를 가속화시킨다.

『20대 여자』는 페미니즘을 핵심 키워드로 설문 결과를 분석한다. 그 결과 20대 여자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며, 개방적이고 연대 의식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읽어낸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특징을 견인해 가는 것은 페미니즘에 우호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이다. 예컨대, 페미니즘에 우호적일수록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고, 소수자와의 일체감이 높으며, 정치적으로는 진보적 가치를 지지하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페미니즘에 우호적인 20대 여자들의 진보적 성향은 정당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20대 여자는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는 ‘부유하는 심판자’로서, 우리 사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미지의 영향력을 가진 집단으로 기대한다.¹⁸⁾

이 연구는 또한 『20대 남자』 이후 변화한 젠더 간 인식 차를 추적한다. 그 2년간 젠더 간 페미니즘 인식 격차는 더욱 커지는데, 20대 남성은 2019년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변동이 없지만, 20대 여성의 경우 페미니즘 성향이 강화된다. 특히 가구소득, 학력, 자산규모가 높을수록 20대 여성의 페미니즘 성향이 높다. 반면, 20대 밖 여성 집단에서는 페미니즘 성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들을 제외한 전 세대, 전 연령대는 페미니즘을 여성우월주의로 보는 관점이 더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페미니즘에 우호적인 인식이 우리 사회의 비주류적인 인식으로 귀착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할 뿐 아니라, 20대 여자의 페미니즘 정체성이 20대 남자의 마이너리티 정체성만큼 강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경쟁이나 공정성에 관해서는 20대 내에서 남녀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결과도 주목해 볼 점이다. 다만, 성별에 상관없이 ‘자격·능력이

18) 국승민·김다은·김은지·정한울, 『20대 여자』, 시사HN북스, 2022, 10쪽.

없는 데도 혜택을 받는 경우'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수록, 다시 말해 무임승차에 민감할수록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는 20대 남자 중 반페미니즘 정서가 강한 집단이 경쟁 원리를 긍정하고 수용하는 경향이 우세하다는 『20대 남자』의 연구 내용과 일치한다.

3.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D 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인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총 14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 16일부터 2023년 10월 26일까지 구글 폼을 활용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모든 학생들에게 설문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생회와의 사전 협의를 진행하였다. 학생회에 연구의 목적과 설문의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학생회를 협조를 통해 모든 학과의 개별 학생들에게 설문이 전달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총 296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학과별, 출생 연도별 분포는 다음 <표 3-1>과 같다.

<표 3-1> 연구 참여 학생

학과 / 출생년도		남	여	전체
학과	국어국문학과	20 (39.2)	31 (60.8)	51 (17.2)
	중어중국학과	3 (15.8)	16 (84.2)	19 (6.4)
	일본학과	8 (50.5)	8 (50.0)	16 (5.4)
	영어영문학과	2 (40.0)	3 (60.0)	5 (1.7)
	문헌정보학과	9 (40.9)	13 (59.1)	22 (7.4)

	평생교육·청소년상담학과	4 (16.7)	20 (83.3)	24 (8.1)
	유아교육과	0 (0.0)	20 (100.0)	20 (6.8)
	광고홍보학과	2 (22.2)	7 (77.8)	9 (3.0)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6 (30.0)	14 (70.0)	20 (6.8)
	법학과	13 (52.0)	12 (48.0)	25 (8.4)
	경찰행정학과	6 (35.3)	11 (64.7)	17 (5.7)
	소방방재행정학과	34 (73.9)	12 (26.1)	46 (15.5)
	행정학과	4 (66.7)	2 (33.3)	6 (2.0)
	사회복지학과	7 (43.8)	9 (56.3)	16 (5.4)
출 생 년 도	1999년 이전	27 (22.9)	64 (36.0)	91 (30.7)
	2000년	18 (15.3)	51 (28.7)	69 (23.3)
	2001년	7 (5.9)	23 (12.9)	30 (10.1)
	2002년	20 (16.9)	21 (11.8)	41 (13.9)
	2003년	22 (18.6)	12 (6.7)	34 (11.5)
	2004년	24 (20.3)	7 (3.9)	31 (10.5)
	계	118 (39.9)	178 (60.1)	296 (100.0)

<표 3-1>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296명의 학생 중 남학생이 118명이었으며, 여학생이 178명 이었다. 비율로 보면 남학생이 39.9% 여학생이 60.1%로 실제 인문·사회과학 계열의 남녀 학생 비율(남학생 40.4%, 여학생 59.6%)과 유사하게 표집되었다. 학과별로는 국어국문학과 학생의 참여비율(17.2%)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소방방재행정학과의 참여(15.5%)가 높았다. 현재 재학 중인 남학생이 없는 유아교육과를 제외하면 모든 학과에서 남녀 학생의 참여가 있었으나 남학생과 여학생의 참여 비율은 학과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출생년도별로 살펴보면 1999년 이전 출생 학생들의 참여가 30.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00년생이 23.3%였다. 그 외 2001, 2002, 2003, 2004년생 학생들의 참여 비

율은 비슷하였다.

2) 연구 도구 및 방법

본 연구는 시사주간지 『시사 IN』의 20대 대상 전국 여론 조사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20대 남자』와 『20대 여자』를 참조하여 진행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조사한 젠더, 정치, 사회, 연대 의식 등 각각 208개와 238개 문항 중 지역적 특성, 세부 연령대, 연구 목적을 고려하여 54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설문지는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경쟁과 공정에 대한 인식, 소수자에 대한 수용 정도, 정치적 신념, 성별 차이와 성 역할에 대한 인식,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 등 크게 7개의 주요내용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별 문항수는 <표 3-2>와 같다. 이중 한국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리커트 척도, 소수자에 대한 수용 정도는 보가더스 사회적 거리 척도로 측정되었다.

<표 3-2> 연구도구의 내용 구성 및 문항 수

주요 내용	문항 수
1. 한국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8
2. 소수자(약자)에 대한 이해	14
3. 무임승차에 대한 태도	3
4. 정책에 대한 관점	11
5. 성별 능력에 대한 인식	5
6. 성 역할에 대한 이해	6
7.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	7
합계	54

4. 연구 결과

1) D 대학교 남녀 학생의 사회 인식

(1) 한국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한국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대한 8가지 질문에 대한 남, 여학생의 반응은 다음 <표 4-1>과 같다. 한국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 기회, 공정, 경쟁, 차별과 관련된 내용이다. 먼저 ‘우리 사회에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만하다’에 대해 남학생(55.8%), 여학생(62.2%)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부모님 세대보다 더 많은 기회를 얻을 것이다’에 대해서도 역시 남학생(61.1%), 여학생(77.9%) 모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20대 연령 전체가 아닌 초반에 집중되어 있는 대학생임을 고려해 볼 때 사회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과 관련된 질문은 법의 집행과 경쟁 결과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에 대해서는 남학생의 59.3% 여학생의 72.4%가 동의하지 않았다. 반면, ‘경쟁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에 대해서는 남학생의 94.9%, 여학생의 87%가 동의하였다. 이 역시 대학생이라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여겨진다. 즉, 경쟁의 결과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 상황을 성적평가로 제한하여 생각하고 반응한 것으로 여겨진다. 경쟁과 관련된 다른 질문 역시 유사한 반응 특성이 나타났다.

‘남녀 차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남학생의 경우 53.4%가 남자가 차별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9%는 차별받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학생 역시 47.4%가 여자가 차별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3%는 차별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여 두 집단 모두 스스로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남학생

<표 4-1> 한국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명/%)

설문 내용	성 별	매우 동의	대체로 동의	동의 하지 않음	매우 동의 하지 않음	모르 겠다
우리 사회는 사람들이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만하 다	남	12 (10.0)	54 (45.8)	37 (31.4)	13 (11.0)	2 (1.7)
	여	9 (5.1)	101 (57.1)	56 (31.6)	9 (5.1)	2 (1.1)
나는 나의 부모님 세대보다 더 많은 기회를 얻을 것이다	남	22 (18.6)	49 (41.5)	29 (24.6)	14 (11.9)	4 (3.4)
	여	50 (28.2)	88 (49.7)	27 (15.3)	3 (1.7)	9 (5.1)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 게 집행되고 있다	남	7 (5.9)	38 (32.2)	45 (38.1)	25 (21.2)	3 (2.5)
	여	6 (3.4)	37 (20.9)	81 (45.8)	47 (26.6)	6 (3.4)
우리 사회에서 경쟁의 결과 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남	12 (10.2)	55 (46.6)	32 (27.1)	17 (14.4)	2 (1.7)
	여	22 (7.5)	78 (44.1)	66 (37.3)	16 (9.0)	7 (4.0)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더 많 은 몫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 하다	남	57 (48.3)	55 (46.6)	4 (3.4)	1 (0.8)	1 (0.8)
	여	43 (24.3)	111 (62.7)	16 (9.0)	3 (1.7)	4 (2.3)
경쟁은 개인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남	42 (35.6)	55 (46.6)	15 (12.7)	4 (3.4)	2 (1.7)
	여	35 (19.8)	112 (63.3)	23 (13.0)	5 (2.8)	2 (1.1)
우리 사회에서 남자는 사회 적으로 차별받고 있다	남	19 (16.1)	44 (37.3)	35 (29.7)	11 (9.3)	9 (7.6)
	여	2 (1.1)	34 (19.2)	74 (41.8)	46 (26.0)	21 (11.9)
우리 사회에서 여자는 사회 적으로 차별받고 있다.	남	8 (6.8)	40 (33.9)	41 (34.7)	18 (15.3)	11 (9.3)
	여	19 (10.7)	65 (36.7)	64 (36.2)	12 (6.8)	17 (9.6)

의 비율이 여학생보다는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동시에 여학생의 경우 차별받다고 응답한 비율과 차별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해 볼 만한 사실이다. 물론 ‘남자가 차별받고 있다’는 질문에 동의한 여학생은 20.3%인 반면, ‘여자가 차별받고 있다’는 질문에 동의하는 남학생은 40.7%인 점, 그리고 ‘모르겠다’의 응답이 다른 문항들에 비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차별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 선불리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남학생 스스로 차별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20대 남자의 특성과 함께 좀 더 세심한 조사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2) 소수자(약자)에 대한 이해

D 대학교 인문·사회과학 계열 학생들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약자를 위한 도움 활동과 약자들에 대한 수용정도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2>와 <표 4-3>과 같다.

약자에 대한 도움 활동 중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학생들이(남학생: 54.2%, 여학생: 56.5) 지불한 학생들(남학생: 45.7%, 여학생: 43.5%) 보다 남학생 여학생 모두 많았으나, 온라인 활동을 통한 도움 활동에 있어서는 여학생들의 경우 62.2%가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반면, 남학생은 단지 28.8%만 참여해본 경험이 있었다.

<표 4-2> 약자에 대한 도움 활동

설문 내용	성별	3회 이상	1-2회	없다
최근 1년간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돈을 지불한 적이 있습니까?	남	20(16.9)	34(28.8)	64(54.2)
	여	20(11.3)	57(32.2)	100(56.5)
최근 1년간 온라인 및 SNS에서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활동을 한 일이 있습니까?(예: 서명, 청원 등)	남	14(11.9)	20(16.9)	84(71.2)
	여	44(24.9)	66(37.3)	67(37.9)

소수자에 대한 수용도는 소수자들과 관계 형성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응답을 통해 살펴보았다. 총 12가지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하여 수용 불가, 이웃, 직장동료, 절친한 친구, 가족 중 어디까지 수용 가능한가에 대한 응답을 수집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4-3>과 같다.

<표 4-3>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관계 수용도 (명/%)

설문 내용	성별	이웃	직장동료	절친한 친구	가족	수용불가
장애인	남	45 (38.1)	16 (13.6)	33 (28.0)	20 (16.9)	4 (3.4)
	여	37 (20.7)	41 (23.2)	53 (29.9)	44 (24.9)	2 (1.1)
정신질환자	남	45 (38.1)	15 (12.7)	16 (13.6)	5 (4.2)	37 (31.4)
	여	67 (37.9)	33 (18.6)	21 (11.9)	20 (11.3)	36 (20.3)
조손·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사람	남	13 (11.0)	3 (2.5)	47 (39.8)	54 (45.8)	1 (0.8)
	여	6 (3.4)	5 (2.8)	52 (29.4)	113 (63.8)	1 (0.6)
외국인 노동 자, 이민자	남	22 (18.6)	25 (21.2)	44 (37.3)	23 (19.5)	4 (3.4)
	여	17 (9.6)	37 (20.9)	71 (40.1)	50 (28.2)	2 (1.1)
북한이탈주민 (탈북자·새터민)	남	27 (22.9)	17 (14.4)	41 (34.7)	25 (21.2)	8 (6.8)
	여	24 (13.6)	36 (20.3)	68 (38.4)	46 (26.0)	3 (1.7)
난민	남	42 (35.6)	19 (16.1)	27 (22.9)	11 (9.3)	19 (16.1)
	여	38 (21.5)	46 (26.0)	57 (32.2)	31 (17.5)	5 (2.8)
성소수자	남	29 (24.6)	19 (16.1)	25 (21.2)	9 (7.6)	36 (30.5)
	여	20 (11.1)	24 (13.6)	79 (44.6)	50 (28.2)	4 (2.3)
기초생활 수급자	남	18 (15.3)	12 (10.2)	54 (45.8)	33 (28.0)	1 (0.8)
	여	13 (7.3)	17 (9.6)	85 (48.0)	61 (34.5)	1 (0.6)
정치적 성향 이 다른 사람	남	25 (21.2)	21 (17.8)	43 (36.4)	24 (20.3)	5 (4.2)
	여	37 (20.9)	50 (28.2)	58 (32.8)	25 (14.1)	7 (4.0)
페미니스트	남	31 (26.3)	11 (9.3)	9 (7.6)	7 (5.9)	60 (50.8)
	여	44 (24.9)	42 (23.7)	31 (17.5)	39 (22.0)	21 (11.9)
안티 페미니스트	남	37 (31.4)	17 (14.4)	14 (11.9)	14 (11.9)	36 (30.5)
	여	52 (29.4)	50 (28.2)	24 (13.6)	12 (6.8)	39 (22.0)

전과자	남	31 (26.3)	10 (8.5)	7 (5.9)	6 (5.1)	64 (54.2)
	여	46 (26.0)	17 (9.6)	5 (2.8)	4 (2.3)	105 (59.3)

<표 4-3>에 따르면 D 대학교 인문·사회과학 계열 학생들은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 집단 중 ‘조손,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사람’에 대해 가장 높은 관계 수용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장 높은 관계 수용에 해당하는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에 남학생의 45.8%, 여학생의 63.3%가 응답함으로서 다른 소수자 집단에 비해 친밀한 관계 수용이 가능함을 밝혔다. 다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남학생: 28%, 여학생: 34.5%), ‘외국인 노동자, 이민자’(남학생: 19.5%, 여학생: 28.2%), ‘북한이탈주민’(남학생: 21.2%, 여학생: 26.0%)에 대해 높은 관계 수용도를 보였다. 반면, ‘전과자’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모든 사회적 소수자 중 최저의 관계 수용도를 보였다(남학생: 54.2%, 여학생: 59.3%). 다음으로 정신질환자(남학생: 31.4%, 여학생: 20.3%), ‘안티페미니스트’(남학생: 30.5%, 여학생: 22.0%)에 대해서도 낮은 관계 수용도가 나타났다.

12가지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남학생들이 여학생 보다 관계 수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페미니스트’(남학생: 50.8%, 여학생: 11.9%), ‘성소수자’(남학생: 30.5%, 여학생: 2.3%), ‘난민’(남학생: 16.1%, 여학생: 2.8%)에 대한 남학생들의 관계 수용도는 극히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중 ‘페미니스트’에 대한 남학생의 부정적 입장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측면이 있으나, ‘성소수자’와 ‘난민’에 대한 여학생과는 상반된 남학생의 배타적 입장은 주목해 볼 만한 사실이다. 다른 소수자들에 대해 남학생과 여학생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유사한 응답 경향을 보이는 것에 반해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학생의 경우 ‘성소수자’에 대해 가족(28.2%) 또는 절친한 친구(44.6%)로 수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72.8%를 차지하여 ‘성소수자’를 매우 친밀한 관계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수용 불가의 입장은 2.3%에 불과하였다. 이에 반해 남학생의 경우 단지 7.6%만이 가족으로 수용할 수 있으며, 21.2%

가 절친한 친구로 지낼 수 있다고 응답하여 28.8%만이 친밀한 관계로 수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30.5%가 수용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난민’에 대해서도 이러한 반응 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3) 무임승차에 대한 태도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임승차에 대한 태도이다. 무임승차에 대한 태도는 소수자의 이해와 함께 그들에 대한 공정한 처우에 대한 관점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이다. 이 문항들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 경우와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받는 경우’ 중 더 큰 실수를 선택하는 문항들이다. 전자를 더 큰 문제로 생각하는 입장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후자를 더 큰 문제로 생각하는 입장은 무임승차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상황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두 경우 동등하게 문제다’는 보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수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응답자의 판단과 선택은 비교적 명확하고 확고함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소수자와 공정에 대한 응답자의 사고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주요한 질문으로 여겨진다. 무임승차와 관련된 3가지의 상황에 대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응답 결과는 다음 <표 4-4>와 같다.

무임승차에 대한 D 대학교학교 인문·사회과학 계열 학생들의 반응은

<표 4-4> 무임승차에 대한 태도 (명/%)

설문 내용		남	여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이 있는데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	36(30.5)	64(36.2)
	자격이 없는데 지원 받는 경우	33(28.0)	51(28.8)
	두 경우 동등하게 문제다	46(39.0)	60(33.9)
	모르겠다	3(2.5)	2(1.1)
대학	입학할 능력이 있는데 불합격하는 경우	28(23.7)	30(16.9)

입학	입학할 능력과 자격이 없는데 합격하는 경우	47(39.8)	86(48.6)
	두 경우 동등하게 문제다	40(33.9)	60(33.9)
	모르겠다	3(2.5)	1(0.6)
난민	자격이 있는데 부여 받지 못하는 경우	35(29.7)	62(35.0)
	자격이 없는데 부여받는 경우	41(34.7)	52(29.4)
	두 경우 동등하게 문제다	32(27.1)	54(30.5)
	모르겠다	10(8.5)	9(5.1)

문항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무임승차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대학입학’과 관련된 것이었다. 대학입학과 관련해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자격과 능력이 없는데 합격하는 경우’가 ‘능력이 있는데 불합격하는 경우’보다 더 큰 실수로 인식하였으며, 특히 여학생의 경우 48.6%로 매우 높은 민감도를 보였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자격이 있는데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격이 없는데 지원받는 경우’보다 더 큰 실수라고 인식하여서 무임승차에 대한 민감도는 낮고, 사각지대에 대한 민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난민’에 대해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반응 경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무임승차에 대한 민감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여학생의 경우 사각지대에 대한 민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무임승차에 대한 민감도는 사안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서 살펴본 소수자에 대한 인식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소수자에 대한 인식에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높은 관계수용도는 상대적으로 무임승차에 대한 낮은 민감도를 보였으며, ‘난민’에 대한 남학생들의 낮은 관계수용도는 무임승차에 대한 높은 민감도로 나타났다.

(4) 정책에 대한 관점

11가지 정책적 이슈에 대하여 진보적, 보수적 정책 방향성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4-5>와 같다.

<표 4-5> 정책에 대한 관점 (명/%)

	성장	복지	모르겠다	경제성장	환경보호	모르겠다
남	62(52.5)	50(42.4)	6(5.1)	65(55.1)	46(39.0)	7(5.9)
여	37(20.9)	132(74.6)	8(4.5)	37(20.9)	130(73.4)	10(5.6)
전체	99(33.6)	182(61.7)	14(4.7)	102(34.6)	176(59.7)	17(5.8)
	사회적질서	개인의자유	모르겠다	안정	개혁	모르겠다
남	76(64.4)	35(29.7)	7(5.9)	67(56.8)	46(39.0)	5(4.2)
여	124(70.1)	40(22.6)	13(7.3)	123(69.5)	42(23.7)	12(6.8)
전체	200(67.8)	75(25.4)	20(6.8)	190(64.4)	88(29.8)	17(5.8)
	복지			시장규제		
	선별적	보편적	모르겠다	강화	완화	모르겠다
남	45(38.1)	63(53.4)	10(8.5)	34(28.8)	55(46.6)	29(24.6)
여	57(32.2)	95(53.7)	25(14.1)	48(27.1)	54(30.5)	75(42.4)
전체	102(34.6)	158(53.6)	35(11.9)	82(27.8)	109(36.9)	104(35.3)
	대북정책			한미동맹		
	압박	대화	모르겠다	강화	축소	모르겠다
남	70(59.3)	28(23.7)	20(16.9)	95(80.5)	9(7.6)	14(11.9)
여	23(13.0)	97(54.8)	57(26.1)	109(61.6)	10(5.6)	58(32.8)
전체	93(31.5)	125(42.4)	77(26.1)	204(69.2)	19(6.4)	72(24.4)
	차별금지법			동성결혼허용		
	반대	찬성	모르겠다	반대	찬성	모르겠다
남	29(24.6)	63(53.4)	26(22.0)	51(43.2)	42(35.6)	25(21.2)
여	21(11.9)	133(75.1)	23(13.0)	18(10.2)	124(70.1)	35(19.8)
전체	50(16.9)	196(66.4)	46(15.6)	69(23.4)	166(56.3)	60(20.3)
	난민수용					
	반대	찬성	모르겠다			
남	57(48.3)	37(31.4)	24(20.3)			
여	44(24.9)	52(29.4)	81(45.8)			
전체	101(34.2)	89(30.2)	105(35.6)			

<표 4-5>에 따르면, D 대학교 학교 인문·사회과학 계열 학생들의 경우 각 이슈에 따라 정책적 판단이 다르게 나타났다. 11가지 이슈 중 7개의 항목(성장/복지, 경제성장/환경보호, 복지정책, 시장정책, 대북정책, 차별금지법, 동성결혼)에서 진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4가지 항목(사회적 질서/개인적 안정, 안정/개혁, 한미동맹, 난민수용)에 있어서는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보수적 입장을 취한 4가지 이슈 중 ‘난민수용’을 제외한 3가지 이슈에 대해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보수적 정책 방향을 선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난민수용’에 관해서는 다소 다른 입장이 나타났다. 남학생들의 경우 ‘반대’(48.3%), ‘찬성’(31.4), ‘모르겠다’(20.3%)의 순서로 응답율이 높게 나타나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학생 수가 많았다. 그에 비해 여학생의 경우에는 ‘모르겠다’(45.8%), ‘찬성’(29.4%), ‘반대’(24.9%)의 순서로 응답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보수적 입장보다는 진보적 입장이 더 많았다.

진보적 입장을 취한 7가지 이슈 중에서도 ‘복지정책’, ‘시장규제’, ‘차별금지법’의 3가지 이슈에 관해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반응 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성장/복지’, ‘경제성장/환경보호’, ‘대북정책’, ‘동성결혼’ 이슈에 대해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반응 경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들 4가지 이슈에 있어서 남학생들은 진보적 입장보다 보수적 입장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미동맹을 포함한 ‘사회적 안정’과 관련된 3가지 이슈를 제외한 모든 이슈에서 여학생들은 진보적 입장을 취한 반면, ‘복지정책’, ‘시장정책’, ‘차별금지법’을 제외한 모든 이슈에 대해 남학생들은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이는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던 이 시대 20대 남녀의 관점과 시각의 차이를 확인시켜 주는 결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추가로 ‘모르겠다’의 비율이 높은 이슈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5) 성별 능력에 대한 인식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아닌 차별은 평가와 연관되어 있으며, 평가는 경쟁을 전제로 한다. 또한 경쟁은 능력을 기반으로 한다. 이에 사회에서 주요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와 그에 대한 보상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남성과 여성의 능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4-6>과 같다.

<표 4-6> 성별 능력에 대한 인식 (명/%)

	초중고 교육과정 유능		대학입시 유능		취업후 업무능력 유능	
	남	여	남	여	남	여
남자	3(2.5)	3(1.7)	4(3.4)	8(4.5)	33(28.0)	27(15.3)
여자	26(22.0)	20(11.3)	19(16.1)	12(6.8)	10(8.5)	12(6.8)
차이없다	86(72.9)	145(81.9)	90(76.3)	146(82.5)	68(57.6)	125(70.6)
모르겠다	3(2.5)	9(5.1)	5(4.2)	11(6.2)	7(5.9)	13(7.3)
	취업 유리		임금체계 유리			
	남	여	남	여		
남자	15(12.7)	85(48.0)	30(25.4)	88(49.7)		
여자	37(31.4)	6(3.4)	6(5.1)	2(1.1)		
차이없다	57(48.3)	74(41.8)	71(60.2)	68(38.4)		
모르겠다	9(7.6)	12(6.8)	11(9.3)	19(10.7)		

<표 4-6>에 따르면, 제시된 문항의 내용에 따라 남학생과 여학생의 반응 유형에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학업능력과 관련된 ‘초중고 교육과정’과 ‘대학 입시’에 대해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별다른 차이 없다’에 대부분 응하였으며, 여자가 더 유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자가 유능하다고 응답한 비율 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취업 후 업무능력’과 관련해서는 학업능력과 마찬가지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반응 유형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차이 없다’의 비율이 남학생(57.6%)과 여학생(70.6%)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남자 유능’(남학생: 28%, 여학생: 15.3%), ‘여자 유능’(남학생 8.5%, 여학생: 6.8%)순서로 응답하였다. 학업능력에 대한 응답과 비교해

볼 때,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학업능력에 대해서는 남녀 중 여자가 더 유능하다고 판단하는 반면, 취업 후 능력에 대해서는 남자가 더 유능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능력에 대한 반응 유형은 유리함과 관련해서는 다르게 나타났다. ‘취업’ 및 ‘임금체계’에 대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취업’에 대해 ‘차이 없다’(48.3%), ‘여자 유리’(31.4%), ‘남자 유리’(12.7%) 순서로 반응한 반면, 여학생의 경우 ‘남자 유리’(48%), ‘차이 없다’(41.8%), ‘여자 유리’(3.4%) 순으로 응답하였다. 앞서 살펴본 학업능력에 비해 취업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없다는 비율이 줄고, 서로의 성이 유리하다고 반응한 비율이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임금체계’에 대해서도 남학생과 여학생의 생각이 다르게 나타났다. 남학생들은 ‘차이 없다’(60.2%), ‘남자 유리’(25.4%), ‘여자 유리’(5.1%)의 순서로 응답한 반면, 여학생들은 ‘남자 유리’(49.7%), ‘차이 없다’(38.4%), ‘여자 유리’(1.1%) 순서로 응답하였다. 이는 여학생들이 임금체계에 대한 불합리성을 추측한 결과로 여겨진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남학생들은 모든 상황에서 남녀의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학업능력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유능하다고 인식하고 취업에서도 여자가 유리한 반면, 취업 이후 능력은 남자가 더 유능하고 임금 체계에서 남자가 더 유리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여학생의 경우 개인의 능력과 관련된 항목, 즉 학업능력 및 취업 후 업무 능력에 있어서는 대다수가 남녀의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남자보다는 여자가 유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취업과 임금체계에 있어서는 남자가 더 유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능력 자체에 있어서는 남녀 간에 차이가 없거나 여성이 더 유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취업과 임금체계 즉 능력에 대한 평가는 남성에게 더 유리하다고 인식하였다.

(6) 성역할에 대한 이해

성역할에 대한 질문은 전통적 가치관에 기반한 결혼 및 자녀출산과 양육과 관련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D 대학교학교 인문·사회과학 계열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6가지 문항에 대한 응답은 다음 <표 4-7>과 같다.

<표 4-7> 성역할에 대한 인식 (명/%)

설문 내용	성 별	매우 동의	대체로 동의	동의 하지 않음	매우 동의 하지 않음	모르 겠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한다	남	13 (11.0)	40 (33.9)	35 (29.7)	23 (19.5)	7 (5.9)
	여	3 (1.7)	17 (9.6)	60 (33.9)	92 (52.0)	5 (2.8)
결혼을 하면 나의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어렵다	남	12 (10.2)	25 (21.2)	51 (43.2)	19 (16.1)	11 (9.3)
	여	17 (9.6)	91 (51.4)	50 (28.2)	9 (5.1)	10 (5.6)
자녀는 반드시 낳아야 한다	남	14 (11.9)	31 (26.3)	37 (31.4)	29 (24.6)	7 (5.9)
	여	0 (0.0)	19 (10.7)	58 (32.8)	96 (54.2)	4 (2.3)
자녀가 생기면 나의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어렵다	남	16 (13.6)	32 (27.1)	41 (34.7)	21 (17.8)	8 (6.8)
	여	27 (15.3)	114 (64.4)	24 (13.6)	4 (2.3)	8 (4.5)
부부가 협의하면 자녀에게 엄 마의 성을 물려줄 수 있지만, 가급적 아빠 성을 물려주어야 한다	남	24 (20.3)	38 (32.2)	28 (23.7)	15 (12.7)	13 (11.0)
	여	6 (3.4)	47 (26.6)	56 (31.6)	49 (27.7)	19 (10.7)
사회 경제적 여건이 된다면 싱글맘(대디)도 할 수 있다	남	37 (31.4)	41 (34.7)	18 (15.3)	14 (11.9)	8 (6.8)
	여	52 (29.4)	71 (40.1)	25 (14.1)	12 (6.8)	17 (9.6)

<표 4-7>에 따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가 동의하는 응답자보다 많았다.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남학생의 44.9%가 동의하였으며 49.2%가 동의하지 않은 반면, 여학생의 경우 11.3%가 동의하였으며, 85.9%가 동의하지 않았다. 남학생 여학생 모두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비율이 높았으나, 남학생의 경우 그 차이가 근소한 반면 여학생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결혼을 꼭 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는 반드시 낳아야 한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는데, 남학생의 38.2%가 동의, 56%가 동의하지 않았으며, 여학생의 경우 10.7%가 동의, 87%가 동의하지 않았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매우 동의’에 응답한 응답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러한 반응 경향의 원인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결혼을 하면 나의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어렵다’는 질문에 대해 남학생은 31.4%가 동의, 59.3%가 동의하지 않았으나, 여학생의 경우 61%가 동의, 33.3%가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자녀가 생기면 나의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어렵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학생의 39.7%가 동의, 52.5%가 동의하지 않았으며, 여학생의 79.7%가 동의, 15.9%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또는 자녀출산이 개인의 사회적 성취의 저해요소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남학생들은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반면, 여학생들은 동의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특히 자녀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에 대해 여학생들은 매우 높게 반응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결혼과 자녀 출산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반응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가부장적 전통적 가치에 대한 질문들이다. 우선, 자녀 성(姓)에 있어서 ‘가급적 아빠의 성을 따른다’의 질문에 대한 결과이다. 남학생의 52.5%가 동의, 36.4%가 동의하지 않았으며, 여학생 30%가 동의, 59.3%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이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에 반해 ‘싱글맘(대디)’에 대해 질문에서는 남학생의 66.1%, 여학생의 69.5%가 동의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싱글맘(대디)의 가능성에 대

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7)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

페미니즘에 대한 D 대학교학교 인문·사회과학 계열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일곱가지 질문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4-8>과 같다.

<표 4-8>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 (명/%)

	성별	매우 동의	대체로 동의	동의 하지 않음	매우 동의 하지 않음	모르 겠다
나는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한다	남	1 (0.8)	5 (4.2)	15 (12.7)	92 (78.0)	5 (4.2)
	여	8 (4.5)	24 (13.6)	41 (23.3)	77 (43.8)	26 (14.8)
페미니즘은 남녀의 동등한 지 위와 기회 부여를 이루려는 운동이다	남	15 (12.7)	23 (19.5)	17 (14.4)	48 (40.7)	15 (12.7)
	여	45 (25.4)	61 (34.5)	22 (12.4)	14 (7.9)	35 (19.8)
페미니즘은 한국 여성의 지위에 기여 해 왔다	남	9 (7.6)	19 (16.1)	18 (15.3)	56 (47.5)	16 (13.6)
	여	10 (5.6)	60 (33.9)	33 (18.6)	26 (14.7)	48 (27.1)
페미니즘은 여성을 피해자로만 생각한다	남	48 (40.7)	37 (31.4)	9 (7.6)	7 (5.9)	17 (14.4)
	여	15 (8.5)	50 (28.2)	36 (20.3)	42 (23.7)	34 (19.2)
페미니즘은 성평등보다 여성우월주의를 주장한다	남	53 (44.9)	32 (27.1)	11 (9.3)	5 (4.2)	17 (14.4)
	여	20 (11.5)	45 (25.4)	31 (17.5)	44 (24.9)	37 (20.9)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에	남	70	28	6	2	12

거부감이 들 때가 있다		(59.4)	(23.7)	(5.1)	(1.7)	(10.2)
	여	27 (15.3)	55 (31.1)	31 (17.5)	29 (16.4)	35 (19.8)
페미니즘은 지나치게 공격받고 있다	남	5 (4.2)	19 (16.1)	25 (21.2)	51 (43.2)	18 (15.3)
	여	21 (11.9)	55 (31.1)	41 (23.2)	12 (6.8)	48 (27.1)

페미니즘에 대한 D 대학교학교 인문·사회과학 계열 학생들의 인식을 종합해 볼 때, 여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남학생에 비해 페미니즘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다만 모든 항목에서 남학생에 비해 ‘모르겠다’에 응답한 비율인 높다는 점,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한다’에 대해 동의가 18.1%인데 비해 동의하지 않는다는에 응답한 비율이 67.1%로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는 점, 또한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에 거부감이 들 때가 있다’에 대해 46.4%가 동의, 33.9%가 동의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페미니즘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페미니즘은 성평등보다 여성우월주의를 주장한다’에 대해 여학생의 36.9%가 동의, 41.4%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여 페미니즘이 여성우월을 주장하고 있다는 의견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즉, 여학생들은 페미니즘이 사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동의하고 있으나, 여성 우월 등 남성과의 대립적 입장을 취하는 등의 극단적 주장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는 것으로 여겨진다.

2) 전체 20대(18세~29세) 남녀와 D 대학교 인문사회과학 계열 남녀 학생의 사회 인식 비교

(1) 사회 신뢰와 공정 및 경쟁에 대한 인식

D 대학교 학생은 남녀 모두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다. 우리 사

회가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만하다고 생각하며, 부모 세대보다 더 많은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특히, ‘부모 세대보다 더 많은 기회를 얻을 것이다’에 대해 전체 20대 남녀 모두 매우 동의하지 않거나 별로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50%를 넘는 데 반해, D 대학교 학생들은 남녀 모두 50% 이상이 대체로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한다.¹⁹⁾ 이러한 특징은 D 대학교 여학생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미래에 대한 D 대학교 여학생들의 긍정 비율은 D 대학교 남학생과 비교해서는 물론 전체 20대 여자들과 비교했을 때도 높다.

경쟁에 대해서도 D 대학교 남녀 학생은 우호적인 경향이 강하다. 경쟁이 개인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며,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더 많은 몫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기여나 능력과 비례하여 분배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을 공정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이와 같은 능력주의적 관점은 2030 세대가 공유하는 인식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경쟁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D 대학교 학생이 전체 20대보다 높다. D 대학교 학생들은 능력주의를 긍정하며, 그 능력주의에 따른 결과도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D 대학교 학생들이 전체 20대 남녀보다 우리 사회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신뢰가 전반적으로 높고, 경쟁에 대해 더 우호적인 것은 설문 대상의 연령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부모의 부양을 받는 학생 신분으로서, 사회적 재화의 분배를 놓고 기성 세대는 물론 입시나 성적평가를 제외하고는 동료 세대와도 경쟁을 한 경험이 거의 없다. 반면, 이 조사의 비교 대상으로 삼은 『20대 남자』와 『20대 여자』의 응답자들은 18세에서 20대 후반까지 포함하고 있어 취업이나 승진 등 보다 다양한 경쟁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 대학교 여학생들이 경쟁과 공정에 대해 보이는 인식은 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경쟁은 개인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19) 이하 ‘매우 동의한다’와 ‘대체로 동의한다’를 합해 ‘동의’하는 입장으로,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와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를 합해 ‘동의하지 않는’ 입장으로 표기함.

다’에 대해 전체 20대 여자 비율은 전체 20대 남자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낮다. 그러나 D 대학교의 경우는 여학생과 남학생이 거의 동일한 비율로 경쟁을 개인 발전의 원동력으로 생각하며, 경쟁을 개인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비율보다 훨씬 높다. 이 역시 사회 경험의 부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영향이 여학생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은 고찰이 필요하다.

(2) 성별에 따른 차별과 공정, 그리고 페미니즘

앞서 ‘우리 사회에서 경쟁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다’에 대해 D 대학교 학생은 전체 20대보다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성별을 고려했을 때는 D 대학교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경쟁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세하며, 이는 전체 20대 남녀가 보이는 추세와 유사하다.

경쟁 경험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남학생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도 D 대학교 여학생이 이처럼 우리 사회를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세한 것은 사회 진출 후 여자가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다고 추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은 성별 능력과 성취에 관한 설문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D 대학교 여학생들은 초·중·고 교육과정 및 대학 입시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유능하거나 비슷한 능력을 지녔으나 취업 및 임금 체계에서는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세하다. D 대학교 남학생들 역시 초·중·고 교육과정 및 대학 입시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유능하거나 비슷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취업 및 임금 체계에서는 남자가 더 유리하다고 인식한다. 성별 능력에 대한 인식과 성별 성취에 대한 D 대학교 남녀 학생들의 이러한 인식은 전체 20대 남녀의 인식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차별에 대해서는 전체 20대 남녀와 구별되는 인식을 보인다. 이를테면, ‘우리 사회에서 여자가 차별받고 있다’에 대해 동의하는 여학생 비율(47.4%)과 동의하지 않는 여학생 비율(43%)이 거

의 유사한데, 이는 여자들이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동의하지 않는 비율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전체 20대 여자의 응답과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차이다. 남학생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에서 여자는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다’에 대해 D 대학교 남학생들은 전체 20대 남성들에 비해 동의하는 비율이 높다. 전체 20대 남성들은 여자들이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그러나 D 대학교 남학생들은 여자들이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데 대해 동의하는 비율(40.7%)과 동의하지 않는 비율(50%)의 차가 적다. 요컨대, D 대학교 남학생들은 전체 20대 남성들에 비해 여성이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데 동의하는 경향이 우세하고, D 대학교 여학생들은 전체 20대 여자에 비해 여성이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적다. 즉, 우리 사회의 성별에 따른 차별, 특히 여성 차별에 대해서는 D 대학교 남녀 학생 간 인식 차이가 전체 20대 남녀 간의 인식 차이보다 적다고 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차별을 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연관지어 볼 때도 D 대학교 학생들의 이러한 특징은 확인할 수 있다. D 대학교 남학생은 남자가 차별받고 있다는 데 대해 53.4%, 여자가 차별받고 있다는 데 대해 40.7%가 동의하고, 경쟁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다는 데 대해 56.8%가 동의한다. 반면, 전체 20대 남성들은 58.6%가 자신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19.3%만이 여자가 차별받는다는 데 동의하며, 경쟁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0.4%다. 즉, 전체 20대 남자는 성별에 의해 역차별을 당하는 ‘마이너리티’로 스스로를 인식하면서 우리 사회의 평가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데 반해, D 대학교 남학생들에게는 그와 같은 경향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성차별에 대한 인식은 일반적으로 페미니즘 수용도와 관계가 있다. 자신들이 상대 성별보다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전체 20대 여자와 남성들은 바로 그런 이유로 각각 페미니즘을 부정하고 또 동조한다. 즉, 전체 20대 남자 가운데는 페미니즘이 자신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페미니즘에 대해 매우 선명하게 적대적인 집단이 매우 큰 규모로 존재하고, 전체 20대 여자들 가운데 페미니즘이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보아 페미니즘에 매우 선명하게 선호하는 집단이 존재한다.

그러나 사회의 여성 차별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페미니즘에 대해 D 대학교 남녀 학생들의 인식 차는 전국의 20대 남녀에 비해 적다. D 대학교 여학생들은 전체 20대 여자보다 페미니즘에 대해 비우호적이고, 남학생들은 전체 20대 남자보다 페미니즘에 대해 우호적이다. 이를테면, ‘나는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한다’, ‘페미니즘은 남녀의 동등한 지위와 기회 균등을 부여하기 위한 운동이다’, ‘페미니즘은 한국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기여해 왔다’, ‘페미니즘은 지나치게 공격받고 있다’와 같은 페미니즘에 대한 긍정 진술 4개 모두에 대해 동의하는 D 대학교 여학생 비율은 전체 20대 여성 비율보다 낮다. 반대로 ‘페미니즘은 여성을 피해자로만 생각한다’, ‘페미니즘은 성평등보다 여성우월주의를 주장한다’,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다’ 등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 진술 3개 모두에 대해서는 전체 20대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다. 이러한 사실은 소수자에 대한 수용도 문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페미니스트는 전과자, 안티페미니스트와 함께 D 대학교 여학생들이 수용 불가로 응답한 소수자 3순위에 든다.

D 대학교 남학생들 역시 전국의 20대 남자들과 유사하게 페미니즘에 대해 비우호적인 경향이 우세하다. 그러나 D 대학교 남학생들은 페미니즘에 대한 긍정 진술 4개 중 2개에 대해 전체 20대 남성들보다 많은 비율의 학생이 동의하였으며,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 진술 3개 중에는 1개의 진술에 대해서만 전체 20대 남성들보다 많은 비율의 학생이 동의하였다. 말하자면, D 대학교 남학생들은 페미니즘에 대해 전체 20대 남자보다는 다소 우호적인 경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역할 구분에 입각한 가족관에 대해 D 대학교 남학생들이 보이는 인식은 여전히 전통적이다. 특히, 결혼을 필수로 생각하는 D 대학교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 차는 무려 30%를 넘어 전체

20대 남녀 차이인 15%의 두 배에 달한다. 즉,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D 대학교 남학생 비율은 44.9%로 전체 20대 남자의 23.5%보다 높은 편이다. 또한 ‘부부가 협의하면 자녀에게 엄마 성을 물려줄 수 있지만, 가급적 아빠 성을 물려줘야 한다’에 대해서도 D 대학교 남학생들 중 동의하는 비율은 52.5%로 전체 20대 남자의 37.2%보다 높다. 그러나 D 대학교 남학생들은 결혼과 자녀 양육이 본인의 사회적 성취에 장애가 된다는 데 대해 전체 20대 남자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다. D 대학교 남학생들은 결혼과 자녀 양육이 개인의 삶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결혼을 필수로 생각하고, 그 결혼의 형태도 전통적인 가부장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D 대학교 남학생들이 결혼과 양육에 대해 현실적인 고민을 할 기회가 적은 것과 연관 될 것이다. 또한 가족을 사적이고 친밀한 관계의 영역으로만 생각하며 제도로서 현재의 가족 형태가 갖는 한계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D 대학교 여학생은 11.3%로 전체 여자의 8.1%와 그리 차이가 나지 않고, 결혼과 자녀 양육이 사회적 성취의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 역시 전체 20대 여자와 유사하게 6.2%와 79.7%로 매우 높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여자가 차별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D 대학교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점(47.4%), 가급적 아빠의 성을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30%로 전체 20대 여자의 19.3%보다 높은 점을 고려하면, 이들 역시 결혼과 출산, 양육 같은 재생산 제도가 성차별적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3)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개방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수용도는 개방성과 연관된다. 특히 소수자와의 관계 형성 정도에 관한 5개의 선택지 중 수용 불가 입장은 혐오와 배타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에서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총 12부류의 사회적 소수자 중 수용 불가 비율이 남녀 학생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

게 나타나는 대상은 조순·한부모 가정 출신, 기초생활수급자다. 수용할 수 없는 대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의 경우, 전과자, 페미니스트, 정신질환자, 성소수자, 안티페미니스트 순으로, 여학생은 전과자, 안티페미니스트, 정신질환자, 페미니스트 순이다.

주목해 볼 것은 D 대학교 남녀 학생 모두에게 수용 불가 대상 1순위로 꼽힌 전과자를 제외한 소수자들에 대해 D 대학교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수용 불가 응답을 한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성소수자(15배), 난민(8배), 북한이탈주민과 페미니스트(각 5배)에 대한 남녀 학생 간 수용 불가 비율은 그 격차가 매우 크다. 이 대상들은 성(性)이나 민족 등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인과 직결된 대상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성소수자와 페미니스트는 성정체성을, 난민과 북한이탈주민은 민족정체성을 위협하거나 교란하리라는 인식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D 대학교 남학생들은 여학생에 비해 정체성에 대한 신념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정책 선호에 대한 문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D 대학교 남학생들은 난민 수용을 반대하고 강경 대북 정책을 선호하는 입장이 다수를 이룬다. 여학생이 난민 수용을 찬성하고 대화 중심의 대북 정책을 선호하는 비율이 다수를 이루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마찬가지로 남학생들은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입장이 찬성하는 입장보다 우세하지만, 여학생들은 70% 가까이 동성 결혼에 찬성한다. 타자, 특히 정체성을 위협하는 타자에 대한 거부감은 혐오와 배제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에서 D 대학교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혐오에 대해 취약하다고 볼 수 있으며, 반면 타자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여학생들은 인권과 연대와 같은 사회적 가치에 관용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그 외 정책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D 대학교 남녀 학생 모두 개인의 자유와 개혁보다는 사회질서와 안정을 중요시하며, 시장 규제 완화와 한미 동맹 강화를 선호하는 등 보수적 가치 지향적이라는 공통점을 보여주지만, 복지와 환경보호 등 소수자를 수용하고 돌보는 것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는 남학생보다 훨씬 많은 여학생들

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는 전체 20대 여자와 유사한 경향이다.

주목해 볼 것은 D 대학교 여학생을 포함한 20대 여자들이 난민정책, 대북정책, 시장정책, 한미동맹 정책에 관해서는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D 대학교 여학생의 경우 위 정책에 대해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보다 2배 가량 높고, 전체 20대 여자들은 전 연령대 남녀 평균의 2배 이상 높다. 즉, D 대학교 여학생을 포함한 20대 여자들은 정치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무지하거나 관심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D 대학교 인문·사회과학 계열 학생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인간과 사회의 본질을 탐구하고 문화와 복지, 교육, 공공정책 등을 통해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문·사회과학 계열 학문의 특성상, 이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우리 사회와 공동체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참조점이 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20대 남자 현상’과 ‘20대 여자 현상’에 대한 연구로, 그 가운데 2019년과 2021년에 전국 전 세대 남녀를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20대 남녀의 특징을 도출한 『20대 남자』와 『20대 여자』를 주로 참조하였다. 먼저 두 차례의 여론 조사에서 실시한 각 208개, 238개, 총 446개 문항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도, 공정과 경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정책 선호도, 성별 능력과 성역할,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7개의 영역을 설정하고 54개 문항을 선별하였다. 이 영역과 문항들은 20대 남녀 간의 인식 차이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으로, 전체 20대 남녀와 비교를 통해 D 대학교의 남녀 학생의 인식 차를 확

인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먼저 D 대학교 학생들의 응답 결과를 분석한 후, 이를 『20대 남자』와 『20대 여자』의 설문 결과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D 대학교 학생들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가 참조한 『20대 남자』와 『20대 여자』가 대상으로 하는 20대는 전국의 18~30세를 포함하는 반면, 본 설문조사의 대상은 대학생, 즉, 사회 경험이 거의 없는 20대 초반이라는 점, 그리고 『20대 남자』와 『20대 여자』가 지역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표집하였기 때문에 수도권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설문조사의 대상은 광역시 거주자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 그리고 설문조사가 실시된 시기의 사회적 관심사 등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였다.

먼저, D 대학교 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교적 신뢰가 높고 경쟁과 능력주의에 우호적이며, 능력주의에 따른 평가도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전반적으로 전체 20대와 유사한 경향이나 동의 비율에 있어서는 D 대학교 학생들이 전체 20대보다 높다. 특히, D 대학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남학생보다 우리 사회를 더 신뢰하고 있으며, 경쟁을 개인 발전의 원동력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전체 20대 여자와 달리 남학생과 비슷하다.

이러한 경향은 본 연구의 대상자가 사회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이고, 학교라는 비교적 제한되고 공정한 경쟁 경험만 갖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험과 성적 같은 경쟁은 다른 경쟁보다는 노력과 시간 투자에 비례하여 결과가 나오는 경향이 크며, 비교적 균질적이고 폐쇄적인 집단 내부에서의 경쟁이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 외적인 요소에 경쟁의 결과가 영향을 받을 위험이 적다. 또한 경쟁에 대한 D 대학교 여학생들의 우호적인 인식을 진취성과 적극성에 대한 표지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지능, 학습 능력, 사회성 등 명백히 타고난 것처럼 보이는 능력도 사회구조 및 환경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²⁰⁾는 사실을 고려한다

20) 천관율·정한울, 앞의 책, 119쪽.

면, 시험이나 성적과 같이 기회의 균등이 주어지는 것만으로 공정을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능력주의는 소수 전문 엘리트에 의한 지배를 정당화하여 민주공화정을 위협한다는 점,²¹⁾ 개인의 능력이 형성되기까지의 사회적 조건과 과정을 무시하여 성공을 개인적 능력의 산물로 환원한다는 점,²²⁾ 차별을 정당화하여 사회 불평등을 고착화한다는 점 등의 위험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경쟁이 개인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은 제한적이다. 부와 사회적 지위, 명예 처럼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외적 영역에서 경쟁은 개인의 발전을 추동해 갈 수 있다. 반면, 인격이나 영성, 심미안과 취향, 자기 긍정 같이 내면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성장은 경쟁이 원동력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경쟁은 이러한 내면의 성장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

공정성과 성차별, 페미니즘에 관해서, D 대학교 여학생들은 전체 20대 여자와 마찬가지로 경쟁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남학생보다 높지만, 우리 사회가 여성을 차별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과 페미니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도 전체 20대 여자보다 높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여전히 한국이 여성 지위를 평가하는 지위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성별 임금 격차가 극심한 것을 고려한다면,²³⁾ D 대학교 여학생들은 현실을 외면하거나 현실에 대해 무지하다고 볼 수 있다.

21) 장은주, 「능력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철학과 현실』 128권 1호, 철학문화연구소, 2021, 133-151쪽.

22) 정대석, 「능력주의와 공정의 딜레마: 경합하는 가치판단 기준들」, 『경제와사회』 132권 4호, 비판사회학회, 2021, 12-46쪽; 박권일, 「한국의 능력주의 인식과 특징」, 『시민과 세계』 제38호, 참여사회연구소, 2021, 146-148쪽.

23)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여성 지위를 평가하는 '유리천장지수' 결과에 따르면, 이 지수가 발표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한국의 '유리천장지수'는 줄곧 최하위에 머문다. 유리천장지수를 구성하는 고등교육 수준, 노동 참여율, 성별 임금 격차, 기업 이사회 여성 비율, 의회 내 여성 비율 등 10개 세부 지표 가운데 특히, 성별 임금 격차에서 극심한 불공정을 보인다. 2022년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31.1%로 OECD 평균(12%)의 2배를 넘으며, 기업 이사회 여성 비율은 12.8%(평균 30.1%), 의회 내 여성 비율은 18.6%(평균 33.8%)에 그친다. ('세계 여성의날, 한국 유리천장지수는 올해도 OECD 꼴찌', 『경향신문』, 2023.03.07.)

반면, 남학생들은 전체 20대 남자와 마찬가지로 경쟁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페미니즘에 대한 비우호적인 경향도 현저하다. 그러나 여성이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데 대해 전체 20대 남자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고,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전체 20대 남자보다는 우호적이다. 또한 페미니즘에 관한 대부분의 문항에서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녀 학생 모두에게 있어 전체 20대 남녀보다 높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D 대학교 남녀 학생은 전체 20대 남녀보다 공정과 경쟁, 페미니즘과 성차별에 대한 남녀 인식차가 적다.

가장 단순하게는 이들이 성차별을 경험할 기회가 적었던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교육 현장에서만큼은 취업, 승진, 임금 등과 같은 사회적 경쟁에서와 달리 성별에 따른 차별이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의 이해도 가능하다. 먼저, 페미니즘 리부트 세대의 다음 세대인 현재 대학생들이 페미니즘 또는 페미니스트와 남성중심주의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의식한 것에서 기인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2015년경부터 2030 세대 여성을 중심으로 부상한 페미니즘(‘페미니즘 리부트’)은 불법 음란 사이트 폐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환기 등 우리 사회의 성차별 문제를 완화하고 젠더 감수성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특히, 정치인, 예술가, 연예인 등에 대한 미투는 한국 사회에 남성 중심적 사고방식에 대한 자기 검열과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한다. D 대학교 남학생들은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통한 학습 효과로서 윗세대인 전체 20대 남성보다 여성 차별과 페미니즘에 대해 감수성이 강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페미니즘은 젠더 갈등을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부상시키며,²⁴⁾ 페미니즘에 대한 강력한 반발, 백래시를 불러오는데, 지금의 여자 대학생들은 공격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²⁵⁾ 페미니즘과의 거리

24) 2021년 엠브레인에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갈등 중 가장 심각한 갈등은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52.7%, 중복응답)으로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42.2%)보다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1, 「사회갈등과 공동체 의식 관련 인식조사」, 리서치기업 엠브레인)

를 돕으로써 사회적 안전을 도모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성 차별이나 페미니즘에 관한 인식과는 달리 다양성에 대한 인식은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전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소수자에 대한 수용도가 낮으며, 특히, 성소수자, 난민, 북한이탈주민과 페미니스트 등 정체성에 위협이 되는 타자에 대한 경계심이 높다. 이러한 특징은 남학생이 결혼이나 자녀 양육, 성(姓) 부여 방식 등, 성별 역할 구분에 입각한 전통적인 가족주의에 대해 여학생보다 긍정적인 것과는 연관된다. 즉,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정체성에 대한 신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신념은 타자에 대한 배제와 혐오로 이어질 수 있는데, 동일성을 구심점으로 구성되는 정체성은 차이를 배제함으로써 그 경계를 확고히 하고 응집력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페미니즘이나 흑인의 블랙파워 운동, 소수 민족의 민족주의같이, 정체성은 소수자 집단의 이데올로기가 되어 억압된 권리를 회복하는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는 타자성과 이질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배타적이고, 끝없는 상호 충돌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무엇보다 동일한 정체성 집단 안에서도 무수히 개별적인 차이가 존재하며 정체성 그 자체가 본질적이거나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내부의 억압을 작동할 수도 있다.²⁵⁾

여학생의 경우 타자에 대한 수용도가 남학생보다 높고, 복지와 환경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남학생보다 뚜렷하게 우세하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와 개혁보다는 사회질서와 안정을 중요시하며, 시장 규제 완화와 한미 동맹 강화를 선호한다는 면에서는 남학생과 유사하다. 법과 사회질서 확립 우선, 정부 개입의 최소화 우선, 경제적 재분배 우선, 사회적 소수자가 겪고 있는 차별 금지와 다양성 우선이 각각 권위주의, 자유(지상)지상주의, 사회민주주의, 다문화주의의 특징이라고 할

25) 2018년 이수역 폭행사건, 2022년 10월에 발생한 페미니스트라 공격당하던 여자 연예인의 사망사건, 같은 해 7월에 발생한 올림픽 국가대표선수 페미니스트 공격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26) 한나 스타크, 이혜수·한희정 역, 『틀뢰즈 이후 페미니즘』, 이상북스, 2023, 165~169쪽.

때²⁷⁾, D 대학교 여학생은 전통적인 보수 가치(권위주의)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다문화주의를 함께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는 소수자에 대한 수용도가 낮고 법과 사회질서 확립을 중시하는 D 대학교 남학생들이 권위주의적 가치로 수렴되는 것과 대별된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성 및 공정성에 기반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고안된 이 개념은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즉,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²⁸⁾ 특히 헌법의 기본권 중 자유권보다는 사회권을 보장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사회적 가치’의 강조는 세계적인 추세를 이루고 있으며, 공공 기관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중요한 경영 전략으로 다뤄진다. 자본주의의 심화로 인한 양극화, 혐오와 차별이 확산되어 가는 시대에 공정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수립하고, 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은 필수적일 터, 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와 교육, 복지와 행정 등 공공정책과 서비스 분야로 진출할 인문·사회과학 계열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과 방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27) 국승민·김다운·김은지·정한울, 위의 책, 77쪽.

28) 2014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발의한 ‘사회적 가치 기본법안(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토대로 2016년 김경수 의원이 수정 발의한 법안, 2017년에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이다.

【참고문헌】

1. 국내 논저

- 구분상(2023), 「능력주의자와 평등주의자: 공정성 인식 유형의 정치학적 실증 분석」, 『한국정치연구』 제32집 제2호, 1-30쪽
- 김상태·김성엽·이상엽(2021), 「청년세대는 공정성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인국공 사건’에 나타난 공정성 인식의 테마 분석」, 『한국행정연구』 통권 67호, 245-277쪽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2019), 『20대 남성지지를 하락요인 분석 및 대응 방안』.
- 마경희(2020), 『청년 관점의 ‘젠더갈등’ 진단과 포용국가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민희(2023), 「다른 마음: 청년세대와 공정」, 『국제정치연구』 26권 2호, 동아시아 국제정치학회, 114-115쪽.
- 박권일(2021), 「한국의 능력주의 인식과 특징」, 『시민과 세계』 제38호, 146-148쪽.
- 박선경(2020), 「젠더 내 세대 격차인가, 세대 내 젠더 격차인가?: 청년 여성의 자기평가이념과 정책태도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제19권 제2호, 5-36쪽.
- 브레인 트렌드모니터(2021), 「사회갈등과 공동체 의식 관련 인식조사」, 리서치 기업 엠브레인.
- 우명숙·남은영(2021), 「공정성 원칙으로서 능력주의와 불평등 인식: 한국과 일본의 비교」, 『아세아연구』 64권 1호, 201-244쪽.
- 장은주(2021), 「능력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철학과 현실』 제128권 제1호, 133-151쪽.
- 정다운·옥소연(2022), 「부산지역 2030 청년세대 젠더인식 조사 및 대응방안」,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정태석(2021), 「능력주의와 공정의 딜레마: 경합하는 가치판단 기준들」, 『경제와사회』 제132권 제4호, 12-46쪽.
- 천관율·정한울(2019), 『20대 남자』, 시사IN북.
- 추주희(2021), 「가족상황 차별인식으로 보는 지역의 보수성 탐색: 지역권역별 세대와 젠더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 제40권 제3호, 43-76쪽.

최종숙(2020), 「‘20대 남성 현상’ 다시 보기: 20대와 3040세대의 이념 성향과 젠더 의식 비교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통권 제125호, 193쪽.
한나 스타크(2023), 이혜수·한희정 역, 『들뢰즈 이후 페미니즘』, 이상북스, 165~169쪽.

2. 기타

경향신문(2023. 03. 07). 「세계 여성의날, 한국 유리천장지수는 올해도 OECD 꼴찌」, URL: <https://m.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303072034015>(검색일: 2023. 11. 07).
박다혜(2019. 2.27). 「“페미니즘 무장한 20대 여성은 집단이기주의”라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한겨레신문』, URL: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883750.html>(검색일: 2023. 10. 30).
시사IN(2018. 8. 20). 「20대 여자 그들은 누구인가」, 『시사IN』, 제728호, URL: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12>(검색일: 2023. 10. 12).
시사IN(2019. 4. 30). 「20대 남자 현상 왜 생겼나」, 『시사IN』 제605호, URL: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72>(검색일: 2023. 10. 13).
천관울(2019. 04.15). 「20대 남자, 그들은 누구인가」, 『시사 IN』, URL: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344>(검색일: 2023. 9. 12).

[Abstract]

Survey of Social Awareness among College Student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Focus on D University

Jun Yun-Sook* · Lee Dalbyul** · Youn Ji-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awareness of various problems in our society among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in their early 20s majoring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t a local university and analyze the differences and commonalities among those in their 20s by comparing the results with those of a national analysis.

Referring to 『Men in their 20s』 and 『Women in their 20s』, a survey was conducted on 296 male and female students to study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t D Universit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D University students have relatively high trust in the present and future of our society, are friendly to competition and meritocracy, and think that evaluations based on meritocracy are fair. This is a similar trend overall to that of all 20s, but the agreement rate is higher for D University students than all 20s. Male and female students at D University have fewer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fairness, competition, feminism, and gender discrimination than all men and women in their 20s.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difference in perception of diversity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Overall, male students had lower acceptance of minorities than female students.

Key-words :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Men in the 20s, Women in the 20s, Social Awareness, Local University

* Dong-eui Univers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fessor

* Dong-eui University, Fire Administration and Disaster Management, Associate Professor

* Dong-eui University,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Professor

논문 접수일 : 2023년 12월 10일
심사 완료일 : 2023년 12월 20일
게재 확정일 : 2023년 12월 25일

인문사회연구소 소개

□ 설립 목적

인문학 및 인접 사회과학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인문학의 발전과 한국문화의 세계적 보급과 발전, 인류문화의 이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연혁

연도	연구소명	비고
1995년 5월	인문과학연구소	개소
2003년 10월	문화콘텐츠연구소	개명
2009년 8월	인문사회연구소	개명

□ 조직도



□ 구성원

구분	소속	성명
운영위원	윤지영	국어국문학과
	박철현	경찰행정학과
	김형열	중국어학과
	최성진	법학과
	윤유라	문헌정보학과
	김민정	광고홍보학과
	황희영	행정정책학과
	유지현	영어영문학과
학술연구위원	윤지영	국어국문학과
	이은주	문헌정보학과
	김윤희	소방방재행정학과
	주성빈	경찰행정학과
편집위원	이민홍 (편집위원장)	동의대학교
	김경모	Virginia Commonwealth 대학교
	김연식	경북대학교
	김영석	한국교원대
	남석인	연세대학교
	류성진	동의대학교
	송연주	동의대학교
	윤승민	동의대학교
	이달별	동의대학교
	전용호	인천대학교

	정준식	동의대학교
	최성민	경희대학교
	황정하	전남대학교
P.M 연구원	인문사회연구소	김미향
	인문사회연구소	이수분

『인간과 문화 연구』 발행 규정

제1조 (명칭)

본 학술지의 영문 명칭은 *The Journal for the Study of Humans and Culture*, 한글 명칭은 『인간과 문화 연구』로 한다.

제2조 (발행처)

학술지의 발행처는 동의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이며, 출판 인쇄는 본 연구소와 계약한 출판사로 한다.

제3조 (발행횟수)

본 학술지의 발행 횟수는 연 2회로 한다.

제4조 (발행일정)

본 학술지는 연 2회 발행하되 다음과 같은 일정에 의해 발행한다.

- 1) 학술지 발행 시기 : 학술지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0일자로 간행한다.
- 2) 원고 마감 시기 : 매년 4월 30일과 10월 30일을 원고 마감일로 한다. 단, 우송된 원고는 우송 일자 소인을 기준으로 위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 (논문의 투고, 심사, 게재 확정일의 표기)

소정의 심사 절차에 의해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개별 논문 대해 심사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해 논문의 투고일, 심사 개시일, 1차 수정일, 2차 수정일, 게재 확정일 등 심사 단계를 표기한다.

제6조 (원고 수집, 검토 및 채택)

1. 원고 수집은 본 연구소의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2. 원고 검토 및 심사, 게재 여부는 본 연구소의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3. 인쇄 전 기타 제반 업무는 본 연구소의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시행한다.

제7조 (심사료 및 게재료)

1. 논문 투고 시 6만 원의 심사료를 납부한다.
2. 논문의 게재 확정시 저자는 게재료 10만 원(연구비 수혜논문은 2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
3. 기타 발행 비용 및 수입에 관련된 사항은 본 연구소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동의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규정 제4조에 따라 본 연구소의 학술지(이하 ‘본 학술지’로 칭함), 연구총서(교양총서 포함), 번역총서, 자료총서 등의 간행과 투고 원고의 심사 등을 주관하는 편집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구성

- 1) 학술지의 간행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 2) 편집위원 선정은 위원장이 전공,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하여 10명 내외의 인원을 본 연구소장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제3조 선정 기준

- 1) 편집위원은 국내외의 해당 분야 연구에서 그 연구 성과를 공인 받은 인문학과 인접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 연구자로 한다.
- 2) 편집위원은 학문 영역별로 안배하고 소속기관이 전국적으로 분포 되도록 선정한다.

제4조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개최

-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주재하며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편집회의는 출석에 의한 면대면 방식과 함께 이메일 등 통신회의

도 할 수 있다.

- 3)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발행 준비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횟수로 소집 개최한다.

제6조 운영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본 연구소가 주관하는 학술연구의 기획과 집필 의뢰 및 『인간과 문화연구』, 학술총서, 번역총서, 자료총서 등의 간행에 관한 사항
- 2) 본 연구소에 투고된 원고에 대한 심사위원 위촉 및 게재 여부 최종 판정에 관한 사항
- 3) 학술지의 간행, 투고,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원칙에 따른다.

제7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논문투고 규정

1) 원고의 내용

인문학과 인접 사회과학 분야 전반에 관한 연구논문과 번역, 서평 및 학술 활동 보고서, 그리고 연구 자료를 게재한다. 이 중 논문은 학술적 가치를 갖는 내용과 학술논문의 체재를 갖춘 것을 대상으로 한다.

2) 투고자격

『인간과 문화 연구』의 투고자격은 박사 또는 동등의 자격을 원칙으로 하며, 주저자(교신저자)로 1인 1편의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단, 공동저자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한호에 최대 2편까지 투고 및 게재할 수 있다.

3) 사용 언어

우리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심사 가능한 외국어로 된 원고도 게재할 수 있다.

4) 원고 분량

원고의 분량은 A4 용지 20쪽 이내(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로 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필자가 부담한다.

5) 투고 방법

『인간과 문화 연구』에 게재를 원하는 투고자는 정해진 기일 안에 학술지 편집위원회 메일(인문사회연구소 전자우편: culture@deu.ac.kr) 또는 온라인 투고시스템으로 원고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6) 게재료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 10만원(연구비 수혜 논문은 2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7) 논문 공개

본 학술지에 게재된 모든 원고는 연구소에서 개설한 홈페이지 혹은 관련 온라인 공간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초록

논문은 한글 초록 및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 초록(반쪽 분량)을 첨부하며 주제어는 4개~10개를 해당 언어로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9) 심사 절차 및 일정

가. 원고 마감	4월 30일, 10월 30일
나. 심사 의뢰	5월 10일, 11월 10일 이전에 완료
다. 심사 진행	5월 20일, 11월 20일 이전에 완료
라. 게재 결정	5월 30일, 11월 30일
마. 결과 통보 (수정지시)	6월 10일, 12월 10일
바. 수정 원고 마감	6월 17일, 12월 17일
사. 게재 최종 결정	6월 20일, 12월 20일
아. 편집·인쇄	6월 27일, 12월 27일 이전에 완료
자. 발간	6월 30일, 12월 30일 발간

10) 기타

저자명과 논문 제목은 영문을 병기하여야 한다. 기타 원고작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논문작성방법’에 따른다.

논문 작성 방법

학술지의 원활한 편집과 출판을 위해서 논문 작성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규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1) 논문의 체제는 ‘논문 제목, 필자명(소속 및 연락처 표기), 논문 목차, 국문 초록,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 제목, 영문 필자명, 영문 혹은 외국어 초록, 영문 혹은 외국어 주제어’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맞춤법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문교부 고시 제88-1호 : 1988.1)을 따른다.
- 3) 한글 워드는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 4) 2인 이상의 저자가 작성한 논문의 경우에는, 제1 저자명을 앞부분에 기재하고 참여저자명 또는 교신저자명을 뒷부분에 기재한다. 또한,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각주로 처리할 때에도, 제1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윗줄에 기재하고 참여 저자 또는 교신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아랫줄에 기재하여 제1 저자와 참여 저자, 교신 저자의 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 5) 논문의 작성 양식은 다음과 같다.

■ 용지 여백(F7)

구분	mm	구분	mm
위쪽	60	왼쪽	50
머리말	10	제본	0
아래쪽	60	오른쪽	50
꼬리말	0		

■ 글자 모양 및 문단 모양

-아래 규정에 따르거나 논문 템플릿의 스타일 정의(F6)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항목		글자 모양(Alt+L)			문단 모양(Alt+T)				
		글꼴	크기(pt)	자간	줄간격	정렬방식	첫줄		
논문 제목		신명 견명조	13	-8	140	가운데	보통		
부제목		신명 신명조	12			오른쪽			
필자명		신명 신명조	11		가운데				
목차	제목	맑은 고딕	10(굵게)		160	양쪽정렬	들여쓰기 10		
	내용		9						
국문초록	제목	신명 신명조	10	-8				160	양쪽정렬
	내용				신명 신명조	10			
주제어	제목	신명 신명조	10		가운데	보통			
	내용	신명 태명조	13						
장제목 1.		신명 태명조	13		왼쪽	들여쓰기 10			
절제목 1)		신명 태명조	12				왼쪽		
소절제목 (1)		신명 신명조	11		140	양쪽정렬	들여쓰기 8		
본문			10						
인용문			9		120	내어쓰기 13			
각주(사사, 소속)			9		10	160	가운데	보통	
표/그림	제목	맑은 고딕	10	보통					
	내용		9						
참고 문헌	제목	신명 신명조	12(굵게)	150	양쪽정렬	보통			
	요소명		10						
	목록		9	160	오른쪽				
영문 초록	요소명	맑은 고딕	12(굵게)	140	가운데	보통			
	제목		10(굵게)						
	부제목		10						
	필자명		9	160	오른쪽				
	본문		9	150	양쪽정렬	들여쓰기 10			
	키워드		9	150	양쪽정렬	내어쓰기 60			

- 6) 본문의 분류 번호는 1, 1), (1), ①의 순으로 한다.
- 7) 표와 그림, 자료 등은 <표 1> <그림 2>, <자료 3> 등으로 표시한다.
- 8) 서명은 『 』, 논문, 작품 및 기사 제목은 「 」, 중간점은 · (HNC 문자표 전각기호 일반: 3404)을 사용한다.
- 9) 한글에서 지원하지 않는 글자나 기호, 사진 등은 본인이 직접 스캔하여 파일 안에 첨부한다.
- 10) 인용문 처리는 다음과 같다.
 - ① 절 단위 이상의 인용문은 큰따옴표(“ ”) 속에 쓰되, 본문에서 분리하여 따로 문단으로 구성한 인용문은 큰따옴표를 쓰지 않는다. 구 단위 이하의 인용문, 강조문은 작은따옴표(‘ ’) 속에 쓴다.
 - ② 생략을 표시하는 줄임표는 ‘(…)’로 표시한다.
 - ③ 원문에 없는 말을 인용자가 첨가할 경우 대괄호 ‘[]’를 쓴다.
- 11) 각주의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하되 사회과학 계열의 논문은 본문에 내주로 표기한 뒤 논문의 말미에 서지사항을 참고문헌으로 제시할 수 있다.
 - ① 국문 단행본 : 저자명(출판연도), 『저서명』, 출판사, 인용 쪽수.
 (예) 김현경(2016),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15쪽.
 (예) 울리 분덜리히, 김종수 역(2008), 『메멘토 모리의 세계』, 도서출판 길, 15쪽.
 - ② 외국 단행본 : 저자명(출판연도), 저서명(이탤릭체 표기), 지역: 출판사, p.○.
 (예) R. Groothuis(1986), *Unmasking the New Age*, Illinois: Intervarsity Press, p. 23.

- ③ 국문 단행본 내 논문 : 저자명(출판연도), 「논문제목」, 편자(대표 저자), 『저서명』, 출판사, 인용 쪽수
 (예) 신광철(2016), 「트랜스미디어의 개념 이해」, 박치완·신광철, 『문화콘텐츠와 트랜스미디어』, HUINE,, 36쪽.
- ④ 외국 단행본 내 논문 : 저자명(출판연도), “논문제목”, 편자(대표 저자), 저서명(이탤릭체), 지역: 출판사, p.○.
 (예) E. Bourguignon(1973), “Introduction: A Framework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Altered States of Consciousness”, M. Weber, Religion, *Altered States of Consciousness and Social Change*,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Press, p. 100.
- ⑤ 국문 정기간행물/저널 내 논문 : 저자명(출판연도), 「논문 제목」, 『논문집명』, 제○권/제○호, 인용 쪽수.
 (예) 박문현(2002), 「중국인의 죽음에 대한 사유」, 『인간과 문화 연구』, 제7권, 44쪽.
- ⑥ 외국 정기간행물/저널 내 논문 : 저자명, “논문 또는 글의 제목”, 저널명(이탤릭체), Vol.○, No.○, 출판년도, p.○.
 (예) P. Messaris(2016), “The global impact of South Korean popular culture: Hallyu unbound”,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26, No. 2, p.197.
- ⑦ 학위논문 : 저자명, 「논문 제목」, 대학교 및 학위구분, 출판년도, 인용 쪽수
 (예) 김인문(2003), 「한국 문화콘텐츠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쪽.
- ⑧ 일간 신문 : 기자명(발행연월일), 「기사 제목」, 『신문 이름』.
 (예) 김철수(2022.12.10), 「한국 월드컵 4강 진출」, 『중앙일보』,
- ⑨ 인터넷 신문 : 기자명(발행연월일), 「기사 제목」, 『신문 이름』, URL(검색일 : ○○○○.○.○)
 (예) 한종구(2020.12.10), 「코로나 이후 세계 민주주의 퇴보...한국

은 모범 사례』, 『연합뉴스』. URL: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0145200009>(검색일: 2021.12.2)

⑩ 인터넷상의 자료: [사이트명], URL(검색일: 연월일)

(예) [국립국어원], <http://news.join.com/nknet.html> (검색일: 2022.12.10)

⑪ 같은 저자의 책이나 논문 등을 두 번 이상 인용할 경우

- 바로 위의 주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 국문인 경우는 ‘위의 책’, ‘위의 글(논문)’, 영문(외국어)의 경우는 ‘Ibid.’로 표기하고 인용 쪽을 적는다.

(예) 위의 책(위의 글), 21쪽.

(예) Ibid., p.30.

- 바로 앞이 아닌 그 이전의 주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 국문인 경우는 저자명(발행 연도)을 명기한 후 ‘앞의 책’, ‘앞의 논문’으로, 영문(외국어)의 경우는 저자명을 명기한 후 ‘op. cit.’로 표기하고 인용 쪽을 적는다.

(예) 이남희(2020), 앞의 책(또는 앞의 글), 21쪽.

(예) M. Weber(2011), op. cit., p.37.

- 같은 저자의 여러 참고문헌을 인용할 때는 참고문헌명까지 작성한다(논문도 동일).

(예) 김현경(2016), 『사람, 장소, 환대』, 33쪽.

(예) M. Weber(2011), Religion, Altered States of Consciousness and Social Change, p.37.

⑫ 참고문헌이 2인 이상의 공저인 경우에는 중간 방점(·)으로 처리한다.

12) 참고문헌의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참고문헌의 제시 순서는 주된 분석 문헌이 있는 경우 참고문헌 최상단에 기본자료로 표기하며, 주된 분석 문헌이 없을 경우에는 국내 문헌, 외국 문헌, 기타자료(인터넷, 기사 등)의 순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단, 참고문헌의 수가 많지 않은 경우는 세분하여 제시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국내 문헌과 외국 문헌은 저서, 논문의 순으로 작성한다.
- ③ 국내 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가나다 순서로, 영어 및 외국어 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다.
- ④ 국내 문헌 표기 : 저자(출판연도), 『저서명』, 출판사/ 저자(출판연도), 「논문명」, 『학회지명』, 권 호, 발간학회.
 (예) 율리 분덜리히, 김종수 역(2006), 『메멘토 모리의 세계』, 도서출판 길.
 (예) 강미영(2020). 「대학생의 진로역량 교육 요구도 분석」. 『취업진로연구』, 10권 3호, 한국취업진로연구학회, 23-47쪽.
- ⑥ 외국 문헌 표기 : 저자(출판연도), 저서명, 출판사 / 저자(출판연도), “논문명”, 저널명(이탈릭체), Vol.○, No. ○.
 (예) P. Messaris(2016a), “The global impact of South Korean popular culture: Hallyu unbound”,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26, No. 2.
- ⑦ 동일 저자의 참고문헌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두 번째 참고문헌의 저자명은 선을 그어 표기한다.
 (예) 율리 분덜리히, 김종수 역(2006), 『메멘토 모리의 세계(상)』, 도서출판 길.
 _____, 이미향 역(2008), 『메멘토 모리의 세계(하)』, 도서출판 길.

논문심사 규정

1) 심사의 취지

학술지에 게재될 논문의 학문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국내외의 인문학과 인접 사회과학 분야의 학술 발전을 촉진한다.

2) 심사 시기

매년 5월과 11월 초에 심사를 의뢰하여 5월과 11월 말에 각각 심사를 마감한다.

3) 심사위원의 자격

가. 국내외 대학의 전임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 학자나, 투고된 원고와 같은 분야에 관한 저서나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 학자

4) 심사위원의 선정 및 위촉

가. 선정 시기 : 심사위원은 학술지 발간을 위한 제1차 편집위원회에서 위 3)의 '심사위원 자격'에 의거 선정한다.

나. 심사위원의 수 : 투고된 논문의 1편 당 심사위원 수는 3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 심사위원의 위촉 : 선정된 심사위원에 대해서 편집위원장은 지체 없이 일정한 양식의 심사의뢰서와 심사서 양식 및 해당 논문의 사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5)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편집위원장은 심사논문 발송 전 당해 논문의 저자를 인지할 수 있는 각 항목, 예컨대 필자 성명, 소속, 그리고 각주 및 참고문헌 중 '줄고'

등으로 표기된 부분을 제거하여 필자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6) 심사의 항목 및 배점

- 가. 심사 항목은 ‘연구내용의 독창성’, ‘논리전개의 명확성’, ‘체제의 적합성’, ‘논문제목의 적합성과 논문의 완성도’, ‘학문적 기여도’의 5항목으로 한다.
- 나. 항목 당 배점은 20점으로 한다.
- 다. 심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심사 항목을 변경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 라. 심사 항목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7) 심사 결과의 처리

- 가. 심사위원 3인의 평가결과가 합계 평균 75점 이상의 판정을 받은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결과 평균 75점 이상의 논문이 게재 예정 편수보다 상회할 경우 고득점 순으로 게재하며, 게재하지 못한 논문은 다음 호에 재심사 없이 우선적으로 게재할 수 있다.
- 나.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다.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문서를 통해 투고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라. 심사 결과 심사위원의 의견 제시와 편집위원의 판단에 의해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마. 수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 바. 투고자가 수정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개진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재심을 할 수 있다.

8) 표절 및 중복 게재 금지

- 가. 심사과정, 혹은 게재 이후 표절이나 중복 게재의 혐의가 있는 논

문은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심사위원회는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통보된 논문의 혐의점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 표절이나 중복게재가 확인되면 편집위원회에서는 본인의 소명절차를 거쳐 게재불가 혹은 게재취소의 판정을 내린 뒤 최소 3년 이상 논문발표 및 게재를 금지한다.

라. 본 학술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된 <연구윤리규정>을 따른다.

9) 심사의 면제

연구소에서 초청한 국내외 저명 학자의 원고 및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외국인 초청 학자의 논문은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10) 심사 일정 명시

게재가 확정된 개별 논문에 대해 심사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해 논문의 투고일, 심사개시일, 1차 수정일, 2차 수정일, 게재확정일 등 심사 단계를 기재한다.

11)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된 <논문 심사 세칙>에 따른다.

논문심사 세칙

동의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학술지 『인간과 문화 연구』의 논문심사 규정 및 편집위원의 선정기준과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인문학과 인접 사회과학 분야와 관련된 각 분야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 2)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에 따라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가. 내용의 독창성(20%)
 - 나. 논리 전개의 명확성(20%)
 - 다. 체제의 적합성(20%)
 - 라. 논문 제목의 적합성과 논문 완성도(20%)
 - 마. 연구 결과의 학문적 기여도(20%)
- 3) 심사 결과는 (a) 게재 적합 (b) 수정 후 게재 (c) 수정 후 재심사 (d) 게재 불가 등으로 나눈다.
- 4) 상기 3)항의 (b)에 해당되는 논문은 심사평가서에 의거, 투고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c)에 해당되는 논문은 차기 논문집의 심사 대상에 우선 포함한다.
- 5) 편집위원회는 학계의 분야별·전공별로 학술 업적이 뛰어난 자를 추천하여 구성한다.
- 6)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 7) 편집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의 논문심사위원회를 둔다.
- 8) 논문심사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두되, 3인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 9) 논문심사위원회는 각 분야의 권위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 10) 논문심사위원회에는 외국의 학자도 참여할 수 있다.
- 11)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회의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12)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13)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원고를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14) 편집위원회 혹은 논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투고된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15) 본 연구소에서 개최한 각종 학술대회에서 발표되고 공개토론을 거쳐 완성된 논문은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16) 원고 작성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심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필자에게 반송할 수 있다.
- 17) 원고 작성은 별도의 논문 작성 방법을 참조한다.
- 18)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 19) 이상의 심사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연구 윤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동의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가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인간과 문화 연구』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거나 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하고자 하는 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연구자로서의 윤리적 의무와 책임 및 그 업무를 담당할 편집위원, 심사위원 등이 지켜야 할 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본 규정은 본 연구소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거나 또는 논문을 편집, 심사하는 모든 연구자들에게 적용한다.

제3조 (연구윤리 위반행위)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자신의 연구물의 일부나 전부를 적절한 명기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

는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6. 연구 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기타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의 기준은 한국연구재단의 윤리규정에 준한다.

제2장 저자 연구윤리

제4조 (표절의 금지)

1.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독창적인 연구 결과나 의견을 자신의 것인 듯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자가 타인의 연구 결과나 의견을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부호나 인용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출처를 명시하거나 자신만의 표현으로 바꾸어 기술해야 한다.
3. 연속된 20음절 이상의 내용을 인용 표현 없이 사용할 경우 표절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표절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한다.

제5조 (자기 복제의 금지)

1. 자기 복제라 함은 연구자가 기존에 출판했던 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내용을 다시 출판, 혹은 투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연구자는 자신이 출판했던 연구 결과와 완전히 또는 상당한 정도로 일치하는 연구 결과를 다시 출판, 혹은 투고해서는 아니된다.
3. 연구자가 자신의 학위논문을 축약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논문을 투고할 경우,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논문은 자기 복제로 규정한다.
4. 연구 결과를 표시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자신의 기존 연구 결과를 기술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연구자는 주석 등을 통해 그 내용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5. 연구자가 전문 학술지에 게재한 연구 논문을 다시 자신의 단행본에 수록할 경우는 자기 복제로 보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에도

해당 연구 결과가 이미 연구 논문으로 출판된 적이 있음을 밝힐 것을 권장한다.

6. 연구자가 국문으로 작성한 연구 결과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해외에서 출판하는 경우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널리 소개하고 학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자기 복제로 보지 아니한다.
7. 연구자가 외국어로 작성한 연구 결과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국내에서 출판, 혹은 투고하는 경우, 해당 연구 결과의 번역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8. 연구자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기 위해 프로시딩에 게재하였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초고 형태로 발표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는 자기 복제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 (연구자료의 변형, 조작 등 금지)

1. 연구자는 자신이 입수한 객관적 형태의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 조작하거나 가공해서는 아니된다.
2.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부득이 연구 자료를 변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공동 연구자의 표기)

1. 연구자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연구 수행에 참여하고 연구 결과의 도출에 기여한 경우 해당 연구 결과에 자신의 성명을 표기할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
2. 연구자는 연구 결과의 도출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구 결과에 자신의 성명을 임의로 표기하거나 다른 연구자에게 이를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3. 연구 결과에 공동 연구자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구 수행 및 결과 도출에 있어 기여가 클수록 해당 연구자의 성명을 앞에 배열한다. 기여의 정도가 동일할 경우에는 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배열하되 가운뎃점(·)으로 각 연구자를 구별한다.

4. 공동 연구자의 성명을 표기함에 있어 책임 연구자는 해당 연구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8조 (연구윤리확약서 및 논문유사도검사)

1. 투고자는 연구윤리 규정 준수를 확약하기 위해 연구소 홈페이지의 ‘연구윤리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투고자는 논문투고 시 한국학술지 인용색인(KCI)의 논문유사도검사를 통해 유사도를 검사하고, 그 결과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회 연구윤리

제9조 (편집위원(회)의 책임과 차별 금지)

1.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회)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어떤 선임견이나 사적 친분 등에 차별하지 않고,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해야 한다.

제10조 (심사위원의 선정)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연구내용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2. 투고자와 동일기관에 재직하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4장 심사위원 연구윤리

제11조 (심사의 성실 이행)

1. 심사위원은 학회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고, 편집위원(회)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해야 한다.
3.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보완을 요구할 때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4.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삼가야 한다.

제12조 (심사위원의 비밀 엄수)

1.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해서는 안 된다.
2.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5장 연구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13조 (목적)

논문 투고자가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 (임무)

연구윤리위원회는 동의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학술지 『인간과 문화 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논문 투고자들에게 운영규정에 대한 공지와 홍보
2.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윤리규정 위배 행위의 조사
3.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윤리규정 위배 행위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제15조 (구성 및 임기)

1. 논문집의 투고 논문이 연구윤리에 위배된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을 포함, 5인 이상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연구소장이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구성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의 임기는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소집에서부터 사건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제16조 (기피·회피·제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이 될 수 없다.
 -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 ③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연구윤리위원은 조사대상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연구윤리위원회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

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 신청할 수 있고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기피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7조 (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연구부정행위 조사)

1. 연구윤리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한다.

제19조 (권한과 책무)

1.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0조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1. 윤리규정 위반으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윤리규정 위반으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4.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윤리위원회는 징계와 관련된 안전을 처리함에 있어 반드시 해당 대상자의 소명 내용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청취하여야 한다. 3회 이상의 소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상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상정한 안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1. 연구윤리위원회가 연구 부정행위라고 판정한 경우, 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에 대한 처리를 의결한다.
2.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며, 투고자의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과 같은 제재를 내릴 수 있다.
 - ①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술지에서 삭제한다.
 - ② 연구소는 이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③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의 학술지 논문투고를 최소 3년 이상 금지한다.
3.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4.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하여 반

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5.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연구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연구소에 보관한다.

제22조 (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 절차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4조 (기타)

이상의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1. 본 연구윤리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연구윤리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동의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이민홍 (동의대학교)
편집위원	김경모 (Virginia Commonwealth 대학교)
	김연식 (경북대학교)
	김영석 (한국교원대)
	남석인 (연세대학교)
	류성진 (동의대학교)
	송연주 (동의대학교)
	윤승민 (동의대학교)
	이달별 (동의대학교)
	전용호 (인천대학교)
	정준식 (동의대학교)
	최성민 (경희대학교)
	황정하 (전남대학교)

인간과 문화 연구 제34집

2023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윤지영

편집·발행처 동의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470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176
 TEL : 051-890-1776
 FAX : 051-890-2160
 E-mail : culture@deu.ac.kr
 WEB : <https://www.deu.ac.kr/www/content/201>

ISSN 1738-2645

The Journal for the Study of Humans and Culture

Vol. 34

DEC. 2023

<Articles>

-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al Conflict among early Childhood Teachers / **Jeon Seong Yi · Shon Yoo Jin**
-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Policy Experience of Stakeholders of Green Environment Support Center / **Hwang Hui-Young**
- Case Study on a Modular Singing Psychotherapy Program for Breast Cancer Survivors / **Lim Young-Je · Lee Jeong-Hee**
- Production and Demand Patterns of Pottery in Ulsan the Goryeo Dynasty / **Park Joo Hyang**
- Survey of Social Awareness among College Student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Focus on D University / **Jun Yun-Sook · Lee Dalbyul · Youn Jiyoung**

Published by
Institut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Dong-eui University